금주의 법구—〈보왕삼매론〉
세상살이 어려움 없길 바라지 말라.
오만하고 사치한 마음이 생기나니
근심과 곤란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9 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 단기 4351년 음력 12월 11일) 2019년 1월 16일 수요일

공공기관 '佛心' 결집 지역 거점포교 나선다

조계종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결성 추진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이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불자들을 중심으로 연합불자회를 결성해 지역 거점포교에 나선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직장직능 불교신행단체 조직화 사업 일환으로 연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불자들의 구심점이 될 지역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를 추진하고 있다. 원주혁신도시를 시작으로 전북, 나주, 대전 등에서 추진 중"이라고 1월 9일 밝혔다.

현재 조계종에는 서울교통공사법우회, 국민건강보험공단불자회 등 직장 내 불교 신행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직장직능 불자회가 있다. 하지만 지역별 직장을 통합하는 불자회 구성은 처음이다. 특히 지방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맞춰 직장직능과 지역을 연결하는 포교 종책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가장 먼저 연합불자회가 구성되는 지역은 원주다. 원주 혁신도시 내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있으며 이들 기관에는 산별 불자회가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이들 불자회와 지난해 12월 간담회를 갖고 심무경 국립공원관리공단 감사와 안무열 적십자혈액원 감사실장을 '원주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이상권 국민건강보험공단 불자회장, 최동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불자회장 등을 집행위원으로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오는 2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강당에서 혜민 스님 초청 강연과 함께 연합불자회 창립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안무열 창립추진위 공동대표는 "혁신도시가 전국에 있지만 생활여건이 불안하다. 젊은 사람은 가족단위로 이사를 오지만 나이든 사람들은 근무지에 가족과 떨어져 업무를 본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동 신행활동은 생활 안정이나 업무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기관의 불자 수가 적은 상황에서 불자로서의 정체성도 연합불자회로 지켜갈 수 있다"면서 "첫 시작이기에 다른 혁신도시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매월 정기법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중앙신도회는 전북과 나주혁신도시에도 연합불자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 공공기관에는 총 12개의 산별 불자회가 있다. 나주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에 16개의 산별 불자회가 있다. 또 대덕연구단지 내에도 성불회 등 2개 단체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북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나주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대덕연구단지 연합불자회' 등이 연내 구성될 예정이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지역별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결성에 이어 신행중심도량도 배정하고, 이들 단체와 기존 신행단체의 연계도 추진해 역량을 배가시킨다는 방침이다. 전북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는 전주운전기사불자연합회, 전북도청불자회, 전주교도소직원불자회 등과 네트워크를, 나주혁신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는 철도청광주지역불자회, 해남농협불자회 등 유관 불자회 등과도 연계된다.

장성원 조계종 중앙신도회 행정지원팀장은 "직장직능 불자회의 가장 큰 애로점은 신행활동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사찰을 신행도량으로 연결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권역별 교구신도회를 상위로 지역

2월 '원주공공기관 불자회' 발족
나주, 대전, 전북 지역서도 설립
중앙 · 교구신도회 · 사찰 연계 높여
연합불자회 통해 활동 역량 강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맞춘 조치
"다양한 직군 불자회 구성 계획"

직장직능 불자회와 개별 신도단체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지역포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선 조계종 포교원 신도팀장은 "지역 공공기관에서는 그동안 신행단체가 활성화된 이웃종교계에 비해 소외감을 느끼는 불자들이 많았다. 불자로서의 자부심 확대와 함께 다양한 활동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존 직군별 불자회의 통합 네트워크도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1월 중 감정평가사 불자회의 종단 신도단체 등록 절차를 지원하고, 세무사불자연합회 · 공무원불자연합회 등과 연합법회를 주선할 예정이다. 현재 감정평가사불자회는 수도권 지역 회원 30여 명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은 "다양한 불자네트워크를 통해 불자들의 사회적 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다"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구성을 시작으로 다양한 직군별 불자회의 힘을 모으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가 탄생했다. 사진은 1월 8일 팔공총림 동화사서 열린 법계 품서식에서 대종사 법계를 받은 원로의원 우송 · 일면 · 원행 스님(사진 왼쪽부터)이 가사를 정대한 뒤 광도중생 원력을 다짐하는 모습.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대종사들 "광도중생 원력으로 정진"

조계종, 1월 8일 신년하례 및 대종사 법계 품서식

조계종단 최고 법계이자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대종사 법계를 원로의원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이 품수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8일 팔공총림 대구 동화사 통일기원대전서 '조계종 종정예하 신년하례 및 대종사 법계품서식'을 봉행했다. 조계종의 공식 신년하례인 이 행사에는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세민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중앙종회의장 범해 스님, 각 교구본사 주지 등 종단을 대표하는 200여 스님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대중은 새해 첫날 석가모니불을 비롯한 삼보와 호법신중, 대중에게 올리는 불교 신년하례식인 통알을 하고, 종정 및 원로의원 스님들에 대한 신년하례를 진행했다. 이어진 법계품서식에서는 종정 진제 스님이 대종사법계 품수자인 우송 · 현호 · 일면 · 원행 스님에게 법계증과 가사를 수여했다. 신임 대종사 스님들은 가사를 정대하고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불자를 받아든 뒤 "광도중생의 대원과 번뇌 불생의 대열반에 이르도록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모든 대중은 대종사 스님들을 제불제조(諸佛諸祖)와 같이 모셔주시고, 대종사들께서는 자비와 연민으로 사해오호(四海五湖) 중생들과 함께하며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저 언덕으로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트렌드 분석 · 新아이디어, '기업 기부' 이끈다

동행, 기업 후원 증가… 새로운 시도에 높은 호응

삼성 문화유산탐방 50% 증액
KB · 하나금융 지원 규모 늘려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기업 차원의 후원이 늘어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1월 8일 "예년 대비 기업 후원액이 총 2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아름다운동행의 '청소년 세계문화유산탐방&나의유산만들기' 사업 지원액을 예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액했다.

KB국민카드도 저소득 가정 초등학생에게 학용품을 전달하는 '책가방보내기' 사업 지원액을 예년 1억 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렸다. 이와 함께 KEB하나금융그룹도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의 기자재 비용 4000만원 지원을 시작했으며, 향후 아이연탄맨 사업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경화상사도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대학 지원기금을 매달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기업 차원의 후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그동안 불교계에서 하지 못한 기부트렌드를 반영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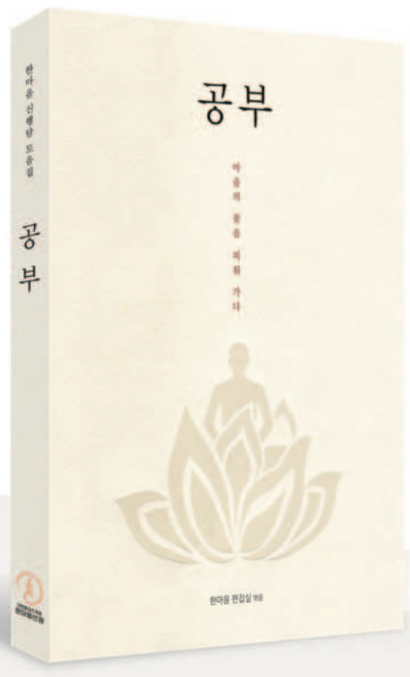
실제 삼성그룹 관계자는 "'세계문화유산탐방&나의유산만들기'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문화적 소양을 쌓고 직업군의 성인 멘토와 교감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았다"고 평가했다.

최현웅 아름다운동행 주임은 "책과 SNS 등을 통해 트렌드 변화를 파악하고 수시로 기획회의를 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에너지빈곤층 연탄 나눔인 '아이연탄맨' · 한부모가정 위한 '위시박스' · '더불어 저금통' · 독거어르신 사찰음식 지원 '동행수라' 등 젊은 층을 비롯한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반응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춘 가치혼합경영연구소장은 "최근 트렌드는 '청년' '어르신' 등을 넘어 '자립' '가족정서' 등으로 확장되고 있다. 기업 측에서도 트렌드를 주도하고 효과가 좋다면 후원이 몰리게 돼 있다"며 "월드비전의 경우 선교 명시에도 후원자의 60% 이상이 비기독교인이다. 불교 내 고정관념을 버리고, 외부 트렌드까지 주도할 때 자연스럽게 불교의 사회적 역량 강화, 후원 증대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지원기자 jayjace@hyunbul.com

마음의 꽃을 피워 가다 공부



한마음선원 신행 포교지인 〈한마음〉에 실렸던
신행담들 중에서 일부를 선별하여 엮은 책입니다.

《공부》는 마음공부에 관한 책이자
인생 공부에 관한 책입니다.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도반들의 진솔한 이야기,
다시 꺼내 보니 새삼 와 닿는 이야기, 그래서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픈 39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음 편집실 엮음 | 256쪽 | 값 12,000원

판매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16 ●운주사 02-3672-7181 ●한마음선원 본원 무진향 031-470-3118 ●전국 온라인 서점 판매
●온라인 주문 현불샵 http://www.hyunbulshop.com | 한마음 블로그『한그루의 숲』http://blog.naver.com/hanjournal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13908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282
TEL : 031)470-3100 FAX : 031)470-3116
www.hanmaum.org



조계종 시무식이 끝난 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교역직 종무원과 일반직 종무원들이 주먹을 불끈 쥔 채 새해 각오를 다짐하고 있다.

주요종단 '화합' 기치로 종무시작

조계 · 태고 · 진각종, 기해년 불교발전 다짐

조계종을 비롯한 한국불교 각 주요종단이 새해를 맞아 화합을 기치로 내걸고 기해년 불교발전을 다짐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불기 2563(2019)년 기해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 교역직 스님과 일반직 종무원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원행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모두 일상 속에서 바르게 자비를 실천하고, 이웃과 함께 복과 덕을 나누자. 인연과 본분을 소중히 여겨 부단히 정진하자"면서 "화합과 혁신으로 미래불교를 열어가는 데 함께하자. 종단발전을 이끄는 주역으로, 참된 불자로 살아가겠다는 서원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도 3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서 총무원장과 중앙종회의장, 호법원장, 각 교구 종무원장 등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시무식 및 하례법회를 봉행했다. 편백운 스님은 "지난해 종단운영에 있어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결국 대화로 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고종은 도전적 모험정신으로 한 해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은 2일 진각문화전승원서 시무식을 봉행, 3년차에 접어든 20대 집행부가 종단사업과제를 원만히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올해에도 심인당 이전과 신축, 진각교전과 진각의범 정비 등 다양하고 중요한 사업이 있는 만큼 종무행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전체 예산 감소 속 신규사업 '눈길'

2019 문체부 종무실 불교예산 살펴보니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예산이 지난해 대비 30% 감소한 565억91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각 종교문화활동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불교계는 '언해불전 역해'라는 신규 국고지원 사업을 필두로 한 해 불교문화 확산에 나선다. 종교문화 예산을 총괄하는 문체부 2019년 예산을 중심으로 불교계 사업을 살펴봤다.

올해 가장 주목할 국고지원 사업은 바로 '언해불전 역해'다. 신규사업으로 국고예산이 2억 원 배정된 언해불전 역해는 (사)운허기념사업회가 추진한다. 언해불전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15~16세기 불교경전을 우리말로 옮겨 보급한 책을 뜻한다. 세종 당시 편찬한 〈석보상절〉과 〈월인천강지곡〉 등이 대표적이며, 뒤이어 〈법화경〉〈원각경〉〈아미타경〉〈금강경〉 등 수많은 경전 언해가 이뤄졌다.

운허기념사업회의 언해불전 역해는 그간 오랫동안 국고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예산 배정에서 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가 한글고전 역주사업 일환으로 대부분의 불경언해서를 현대어로 풀어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허기념사업회는 이 책들이 언해서의 원문을 담지 않고, 불교교리 전문가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점을 짚어 별도의 언해불전 역해라는 사업을 추진했다.

운허기념사업회 이사 선우 스님은 "세종대왕기념사업회의 한글고전 역주는 가장 중요한 원문이 빠졌다. 특히 불경언해서 역주는 불교에 대한 해박한

'언해불전 역해' 예산 배정
운허기념사업회 추진 계획
태고문화센터 건립 가시화
법난기념관 예산 대폭 삭감

지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국문학자들이 참여해 부족한 점이 많다"며 "올해 언해불전 역해 사업을 통해 향후 방향성을 논의하고, 전산화 작업 등을 준비하려 한다. 이 같은 사업은 남북통일언어에 대한 조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기대할 만한 것으로는 '제주태고문화센터 건립'을 꼽을 수 있다.

종무실 예산 565억9100만원
(지난해 대비 30% 감소)

주요 불교예산 항목

전통사찰 보존	208억8400만원
불교문화행사 지원	36억3500만원
지역문화행사 지원	13억7000만원
10.27법난기념관	50억 원
한국불교문화체험관	11억6000만원
제주태고문화센터	8억 원
불교기록 아카이브	20억 원
가산불교 대사림	7억 원
언해불전 역해	2억 원

지난해 태고종 제주교구가 추진하기 시작한 이 사업은 부지변경을 통해 부지매입이 끝났으며, 공사를 앞둔 상황이다. 제주태고문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에 공연장과 전시실, 체험관 등을 갖춘 대중 문화공간을 지향한다.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매입한 봉개동 토지 인근 마을주민들의 반대가 큰 것으로 알려져 주민 설득이 주요과제로 남았다. 태고종 제주교구에 따르면 현재 마을주민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등을 우려하며 도에 민원을 제기 중이다.

제주교구 관계자는 "봉개동 인근 마을 분위기가 혐오시설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등 어떠한 시설도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1100평의 부지를 매입했지만 공사 소음 등의 피해를 줄이고자 마을진입로와 떨어진 사도(私道)를 매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계종 역점사업으로 평가되는 10.27법난기념관 건립 예산은 지난해 약 252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이는 부지매입에 어려움을 겪으며 불용예산이 발생함에 따라 현실적인 예산부터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예산은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1억6000만원으로 42% 감소했지만 사업기간이 1년 연장됨에 따라 예산이 배분돼 총 예산에는 변동 없다고 종무실은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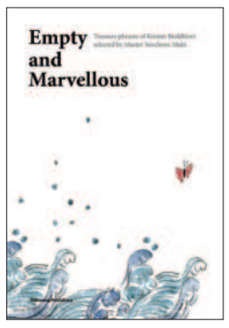
이외에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의 해외교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가산불교 대사림 편찬, 불교전통문화 발굴 및 전승 등 기존 사업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종단협 10번째 불교서적 영역출판

〈Empty and Marvellous〉 포교용으로 2000부 제작해

외국인들에게 한국불교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한국불교서적을 번역해온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10번째 결과물 〈Empty and Marvellous · 사진〉를 내놓았다. 이 책은 한국불교 대강백으로 평가받는 무비 스님이 쓴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명구 100선〉을 편집한 것으로 한국불교만의 명구를 작은 책자 한 권에 담아냈다.

이 책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경전 명구와 국내 조사 스님들의 명언, 선시 등에서 42개를 다시 추려 하나로 묶었다. 무비 스님 단행본 내 명구의 원전이 중국 등 넓은 지역을 포괄했다면, 이 책은 한국이라는 무대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영역뿐만 아니라 한글 단행본에 실린 원문도 함께 담아냈다. 이



와 함께 외국인들을 위해 따뜻한 느낌을 주는 한국적 일러스트를 다수 삽입,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불교이야기에 거부감 없도록 꾸몄다. 번역은 불교계서 오랫동안 번역과 통역을 맡은 홍희연 씨가 맡았다.

종단협은 이 책을 포교용으로 총 2000부 제작했으며, 회원종단과 템플스테이 사찰, 주한대사관, 해외한국대사관, 해외한국문화원, 도서관 등 300여 곳에 배포할 예정이다.

윤호섭 기자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거 본격화

총추위원 26명 위촉… 1차 회의서 일정 · 세칙 의결

동국대 제19대 총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자광)는 1월 8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이하 총추위) 제1차 회의를 열고 총추위원 위촉과 향후 일정 · 세칙 등을 의결했다.

총추위원은 규정에 따라 총 26명이 위촉됐다. 조계종 대표로는 원명(봉은사 주지) · 삼혜(前종립학교관리위원장) · 호산(중앙종회 사무처장) · 원명(종회의원) 스님이, 사회인사 대표로는 이기흥(조계종 중앙신도회장) · 박범훈(조계종 불교음악원장) · 김봉석(법률사무소 금상 대표)이 이름을 올렸다.

동문 대표로는 전영화(총동창회장) · 박대신(총동창회 수석부회장)이, 교원 대표로는 불교대학 대표 정도 스님을 비롯해 양홍석 · 공영대 · 최봉석 · 이재철 · 박찬규 · 윤화영 · 박형무 · 강택구 · 정달영 · 안희철 · 이윤석 교수가 참여한다.

직원 대표에는 김영훈 · 조영신 · 정왕근 · 장인준이, 학부생 대표로는 김정도 前총학생회장이 위촉됐다. 대학원생 대표는 자격 논란 등 법적 미비 사항이 발견돼 선정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기로 했다.

총추위를 이끌 위원장으로는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위촉됐다.

위촉 직후 원명 스님은 "동국대는 전국 각지 사찰이 재원을 기부해 세워진 종립학교지만 처음 원력보다는 많이 가벼워졌다"면서 "내홍없이 공정하게 동국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중립적이며 원칙

1월 15~16일 지원서 접수
18일 후보 자격심사 진행
22 · 28일 소견발표 · 토론회
2월 7~8일 이사회서 선출

대로 총장 후보 선발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사장 자광 스님도 공정한 총장 후보 선출을 당부했다. 스님은 "그간 총장 선출을 두고 과열 분위기가 있어 최대한 시기를 늦췄다. 이제는 안정된 분위기에서 좋은 인물을 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학교 측은 어떤 선입견도 없다. 가장 민주적이면서 객관성을 확보해 학교를 발전시킬 인물을 총장으로 사심 없이 선출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총추위는 1차 회의에서 총장 선출 일정, 운영 세칙, 실무위 구성 등을 확정 · 의결했다. 15~16일 지원서 접수에 이어 18일 2차 회의에서는 지원자 자격심사와 최종 후보자수를 의결한다. 22일 3차 회의에서는 후보 대상자 소견발표가, 28일에는 공개토론회가 진행된다. 소견발표와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종추위는 1월 30일 4차 회의에서 최종 후보자를 선정해 이사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2월 7~8일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자들 중 총장을 선출한다.

이와 함께 총추위는 실무를 책임질 실무위를 구성했다. 실무위원으로는 호산 스님을 비롯해 김봉석 변호사, 박대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최봉석 · 정달영 교수, 정왕근 노조위원장, 김정도 前총학생회장 등 7명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 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 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011-870-0021

北사찰 복원 · 지원 재개 '준비 만반'

신년 남북불교교류 전망은

남북관계 훈풍 전망 속
불교 대북교류 계획 수립
남북 공동행사 · 개최 주력
"범종교계 접근 관심 높아"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올해도 남북관계 훈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교계가 준비한 새 대북사업들이 기지개를 펴고 있다. 그간 단절됐던 남북 민간교류 및 인도적 지원활동이 실효성을 갖춰 현실화될 전망이 나온다.

사찰조사 · 템플스테이 준비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 주요 종단들은 북한 문화재 복원 및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대북사업 추진 준비에 한창이다.

먼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수차례 천명한 금강산 신계사 템플스테이 사업에 방점을 찍고 북측과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은 "종단 관심사업인 금강산 신계사를 중심으로 조선불교도연맹과 공동 협의를 거쳐 템플스테이 등을 전개하고자 한다. 북한 답사 등 구체적인 사항들은 민추본과 사회부, 문화부가 협업해 실무적인 준비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2019년 민추본 주요사업은 △신계사 건축물 공동 진단조사 및 보수공사 △부처님오신날 남북불교대표단 서울-평양 상호교차방문 △만해선사 남북합동다례재 △금강산 신계사 시범 템플스테이 △북한 사찰 산림조성 협력사업 △통일대비 북한 불교정책 로드맵 보고서 발간 등이다.

또한 민추본은 신계사를 비롯, 임진왜란 당시 승군의 총본산인 평안남도 법흥사 등 의미 있는 폐사지 발굴 등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북제재의 제약이 비교적 덜한 사찰 문화교류를 우선 사업으로 북측과 적극 협의,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말 6.15공동선언실천위원회가 주관한 남북공동행사에 참여, 방북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더욱 기대가 모아진다. 스님은 북한 금강산서 열릴 새해맞이 남북해외민족공동행사에 7대 종교 협의체인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불교 대표로 참가한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2005년 복원한 개성 영통사를 중심으로 사찰 현황조사 · 보수 및 문화교류 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진창호 나누며하나되기 사무처장은 "2005년 10월 복원 당시 건축마감재를 전달한 뒤로 조사 · 보수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영통사 중창불사를 최우선 사업으로 두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중국 심양서 조불련 측과 만나 중창불사, 개성 성지순례 및 영통사 템플스테이 등에 대한 뜻을 전달해 상호 논의과정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총무원장 편백운)은 북한불교계와 개별적인 연락을 이어오며 금강산 유점사 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태고종에 따르면, 금강산 유점사는 현재 서울 종로구 태고종 총무원이 위치한 법륜사의 본사다. 종단을 대표하는 불이성 법륜사는 유점사의 서울 포교당이며, 대륜선사가 개원한 유점사의 맥을 잇는 문중임을 되새기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종단 측 설명이다.

올해 태고종은 역점사업 가운데 하나인 유점사 복원 사업을 위해 기존 유관기구인 금강불이회를 보완하고, 예산 등 실제적인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태고종 사회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과 총무원장 스님이 심양서 만나 유점사 관련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다. 북한 불교계 연락창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논 중"이라고 말했다.

인도적 협력 지원기구 '시동'

불교계 국제구호단체인 (사)JTS(이사장 법륜) 역시 얼어붙은 남북 정세로 인해 중단됐던 북한 지원사업이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다수의 대북지원이 평양과 그 주변 지역에 집중된 것과 달리, JTS는 함경북도 등 열악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전개했다. 하지만 2012년 9월 북한 수해지역 긴급구호를 위한 밀가루 500t 지원을 끝으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이후 JTS는 지연된 북한지원 사업으로 인해 지정후원금을 다른 사업에 유용하지 않고, 대북사업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다.

정영미 JTS 사무국장은 "기존 53개 지원시설을 대상으로 한 지원 수준을 회복하는 것을 최우선 사업으로 삼고,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즉시 구호물자를 확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내부 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및 실무자들은 불교계가 남북교류 본격화를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불교계가 민간교류나 인도적 차원의 교류협력에 적극 나섰으면 한다"며 "시대적 흐름에 맞는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북측에 지속 제안한다면 불교계가 다양한 사업을 실행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누며하나되기 관계자는 "종단의 개별 사업도 중요하지만 범종단, 범종교계 차원의 대북사업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와 캠페인 등을 함께 준비한다면 민간교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방북, 공동행사
신계사 템플스테이 추진

천태종
영통사 현황조사 · 중창
개성지역 성지순례 추진

태고종
유점사 역사 및 전통 복원
전담기구 보완, 예산 준비

JTS
함경북도 등 식량지원
53개 지원시설 회복 목표

봉축표어 공모 시작

1월 20일까지, 글자수 10자 내외

불기2563(2019)년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는 봉축표어 공모가 시작됐다.

연등회보존위원회는 오는 1월 20일까지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에 사용될 표어를 공모한다. 참가대상은 부처님 오신 뜻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모든 이다. 표어는 글자수 10자 내외로 부처님 오신 뜻을 되새겨 존경받는 불교로서 미래지향적 사회를 지향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1인 최대 1개씩 응모가능하며 추가분은 무효처리된다. 또한 타인 명의 응모는 금지된다.

표어 공모 희망자는 조계종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kang@buddhism.or.kr) 또는 팩스(02-725-6643)로 접수하면 된다. 상금은 대상 1인에게 50만원, 장려상 3~10인에게 소정의 상품이 주어진다. (02)2011-1745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새해 달라지는 문화재 행정들

올해부터 소규모 발굴조사에서도 연면적과 상관없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동산문화재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존처리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일정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고 1월 2일 밝혔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사업자는 건축물의 대지 면적이 792㎡ 이하 · 연면적 264㎡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현행 조항이 유지된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하여 국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설 연면적 상관없이
소규모 발굴 국가 지원
동산문화재 관리 체계화
보존처리계획서 작성해야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자체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동산문화재의 보존처리 사업을 발주하거나 문화재 보존과학업체가 동산문화재를 보존처리할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마련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양식화되거나 문화재 유형별로 세분화되지 않아 발생하던 기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 회화 · 조각 · 공예 등 다양한 유형별 동산문화재에 대한 보존처리계획서 작성 항목 표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보존처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조치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지침의 적용 대상을 동산문화재로 명확히 하고, 보존처리계획과 보존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해당 분야 문화재수리기능자와 함께 보존처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에서 통일된 절차와 보존처리 과정을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문화유산 3D데이터 무료 사용하세요

문화재청, 문화유산 포털서 3D프린팅 데이터 개방

불교를 비롯한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3차원 입체(3D) 데이터를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문화재가 훼손 · 멸실되는 상황을 대비해 원형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작한 문화유산 3차원 입체(이하 3D) 프린팅 데이터를 '국가문화유산 포털(heritage.go.kr)'을 통해 1월 10일부터 국민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3D 데이터로 제작된 국보 제100호 개성남계원지칠층석탑.

국가문화유산 포털에 이번에 공개하는 문화유산 3D 데이터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용수요에 맞게 가공 · 변환한 자료들이다. 문화유산 3D 프린팅 자료 등 이번에 공개하는 데이터들은 직접 제작하려면 고가의 3D 스캔 장비와 전문기술이 필요하므로 일반인이 직접 제작 · 활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자료들이다.

이번에 개방하는 자료들은 개성남계원지칠층석탑(국보 제100호), 창덕궁(사적 제122호), 임신서기석(보물 제1411호),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등 모두 186건 1,1%점으로, △3D 프린팅 △모델링(모형화) △영상 △스캔 원본 등 다양하다. 또한, 국가문화유산 포털 검색을 통해 '한국의 세계유산', '교과서 속 문화재' 등 주제 · 문화재별 검색과 미리 보기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들 자료는 국가문화유산 포털을 방문하면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내려받기 할 수 있으며, 대용량 데이터(100MB 이상)의 경우 신청서를 작성해 전자우편(pcsjsh@korea.kr)으로 제출하면 별도로 제공받을 수 있다.

신성민 기자



익명 불자, 동국대 발전기금 6억여 원 기부

지난해 12월에만 2차례 억대 보시
현재까지 총 13억1000만 원 전달

동국대 발전을 위해 2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던 익명의 불자가 또다시 동국대에 기부했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익명의 불자가 동국대를 방문해 아껴 모은 정재 6억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구랍 30일 밝혔다.

독실한 불자인 익명의 기부자는 지난 2009년 3억 원, 2017년 2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한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도 2억 원을 장학금으로 쾌척했다.

본인의 신분을 밝히길 원치 않은 이 기부자는 "불자로서 동국대가 더욱 발전하기 바라는 마음뿐"이라며 "이번 기부는 대외협력처장 종호 스님의 권선으로 형편이 어려우신 스님들의 병원비 지원과 호스피스 병동 개원에 잘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부의 소감을 밝혔다.

총장 보광 스님은 "기부자의 큰 뜻을 깊이 새겨 동국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기부는 스님들의 의료지원과 2019년 상반기에 완공될 호스피스 병동 건립에 소중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동국대는 이번 기부금을 기부자의 뜻에 따라 승가의료 지원과 호스피스 병동 개원을 위한 일산불교병원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스님과 신부가 논하는 '종교와 장애'

보리수아래, 1월 26일 장애 인식 개선 세미나

스님과 신부가 한자리에 모여 각 종교 속 장애인식과 개선점에 대해 논하는 자리가 열린다.

불자 장애인 단체인 보리수아래(회장 최명숙)는 1월 26일 서울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스님과 신부가 만나 종교와 장애를 말하다'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중앙승가대 비구니 수행관 관장 담준 스님의 '불교윤리 측면에서 본 장애'에 이어 前성 베네딕도회 요셉수도원 원장 이수철 프란치스코 신부의 '가톨릭에서 보는 장애' 등이 발표된다.

이어 보리수아래 회원인 홍현승 씨와 이상복 파주 한사랑공동체 원장의 '내가 바라는 종교'로 장애인들이 현장 목소리와 함께 이계경 조계종 전문포교사의 '성경과 불경에 나타난 장애인'이 발표된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회장은 "장애인들이 느끼는 종교계의 장애인식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어떤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한국정신문화 알리기 추진

1월 5일 김성림 회장 취임 및 11대 집행부 구성

국제포교사회가 새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불교를 알리는데 적극 나선다. 국제포교사회(회장 김성림)는 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김성림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국제포교사회는 제11대 집행부 구성과 함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포교에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제11대 집행부는 김성림 회장을 필두로 김용언, 이재홍, 박상규, 조정희, 사공옥경 부회장과 이순풍, 이주미 감사 등으로 회장단을 조직했다.

김성림 회장은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며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단순히 한국사찰을 안내하는 역할을 넘어 선문화를 비롯한 한국 정신문화의 진수를 알리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며 "한국불교를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문화교류의 주체로 한단계 도약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성림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이어 신행활동을 위한 법회 지원 등의 활동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천도재 '현대음악'으로 재조명

'(가제)왕생가' 앨범 · 악보 제작…7월 중 출시 예정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향적)가 천도재를 현대음악화 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해인사는 최근 종무회의를 통해 천도재를 현대음악으로 재조명하는 사업을 진행키로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은 월간 〈해인〉 편집장 도정 스님이 기획 · 총괄을 맡고 승려 시인인 의정 · 동명 스님, 김형미 시인이 참여해 가사를 붙인다.

가사는 근대기에 활동한 석찬 스님이 불교의식을 집대성해 편찬한 〈석문의범〉과 백파 긍선 스님이 펴낸 종합의례서인 〈작법귀감〉에 근거해 작사된다. 작곡은 작사 작업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에 작곡자 3~4인을 섭외해 진행할 예정이다. 천도(薦度)는 불보살의 힘으로 망혼을 극락과 같이 좋은 곳에 보내줄 것을 천거하는 법식으로 장례를 마친 이후 망혼에게 지내는 불교의례는 모두 천도재에 해당된다. 많은 사찰들에서 일상적으로 천도재가 이뤄져오고 있지만, 재가불자나 일반인들에게는 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었다.

해인사가 추진하는 천도재 현대음악화 사업은 일반 대중이 천도재의 내용과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고 죽음이 단순히 슬픔으로 끝나는 것을 지양함에 목적이 있다.

도정 스님은 "천도재가 죽은 이들에게 법을 설하는 엄숙하고 딱딱한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주와 재주와 영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잔치가 되도록 만들 것"이라며 "새로운 세계로 가는 잔치이자 희망이 재의 역할이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석문의범〉〈작법귀감〉 토대
도정 스님 등 시인 4명 작사
작곡가 3~4명 선정해 곡 붙여
10곡 수록… "불교예술 확장"

현재 기획된 곡은 총 10곡으로, 모두 기존 찬불가 형식을 탈피한 합창과 독창, 중창이 주를 이룰 예정이다. 또한 한 편의 뮤지컬처럼 10개의 곡이 스토리를 가지고 이어질 수 있도록 제작해 만들 구상도 도정 스님은 갖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 오는 7월에는 '(가제)왕생가'라는 제목으로 앨범과 악보를 출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천도재는 전통의식으로 자리했지만 대중화된 불교음악으로 새롭게 발돋움한다.

도정 스님은 "한 편의 연극과 뮤지컬처럼 꾸며질 천도재는 불교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불교 예술의 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인사의 천도재 현대음악화 사업에 대해 불교음악인들은 우선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했다. 그러면서도 불교 의례라는 범주도 지켜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박범훈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은 "의례는 종교를 상징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 · 공감하지 못한다면 문제가 없지 않다"라며 "천도재에 대한 전통을 살리면서 대중적이고 현대적인 음악이 나올 수 있다면 충분히 권장할만 한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종만 풍경소리 대표 역시 "천도재가 새로운 모습으로 불자와 일반인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시도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이라며 "이 같은 새로운 시도가 일선 사찰에서도 활발히 활용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형진 니르바나 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은 신중한 사업 진행을 당부했다. 강형진 단장은 "기획자의 방향과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작곡자 선정이 중요하다"며 "기획 목적과 의도에 대한 방향성을 기획자가 잘 판단해 종합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곽 드러나는 문경세계명상마을

4월 경 웰컴센터 완비
2단계 불사도 가시화

총 300억원 규모 대형 불사
자부담 과제, 2021년 완공

문경 봉암사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추진하는 '문경 세계명상마을' 1단계 불사가 4월 경 완료된다.

문경세계명상마을사업단(단장 박희승)은 최근 4월 경 웰컴센터 완공으로 1단계 불사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명상기초교육장인 웰컴센터는 현재 외형불사는 끝난 상태로 내부 인테리어 및 상하수도 연결 공사 등이 진행 중에 있다.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는 지난해 7월 13일 사업단 구성과 함께 문경세계명상마을 착공식을 진행했다. 문경 봉암사 인근 희양산 일대 대지 12만230㎡에 2,600㎡ 규모의 문경세계명상마을은 참선 · 명상문화 체험공간으로 활용된다. 총건축비는 300억원 규모로, 2021년까지 완공되면 300명이 수용가능하다.



문경세계명상마을 조감도. 웰컴센터가 4월 개원되면 명상프로그램을 일부 접할 수 있다.

명상마을이 조성되면 참선 코스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일반 시민뿐 아니라 공무원, 기업 임직원, 청소년을 위한 참선 코스를 운영한다. 특히 한국 전통 선 명상을 세계인이 체험하는 공간인 만큼 외국인 명상 수련자를 위한 코스와 무문관 코스, 간화선 및 명상 지도자 양성 코스도 지속적으로 개발 · 진행할 예정이다.

관건은 선원수좌선문화복지회가 부담할 불사 자부담 분으로 지난 1차 불사액 10억원 외에도 2차 불사에 3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단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며 "2021년 KTX문경 개통과 함께 한국정신문화를 널리 알리는 보금자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스카우트불교연맹 인성함양 스키캠프

1월 22~24일, 홍천 대명리조트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연맹장 성행)이 1월 22~24일 강원도 홍천 대명리조트에서 '제6회 인성함양 스키캠프'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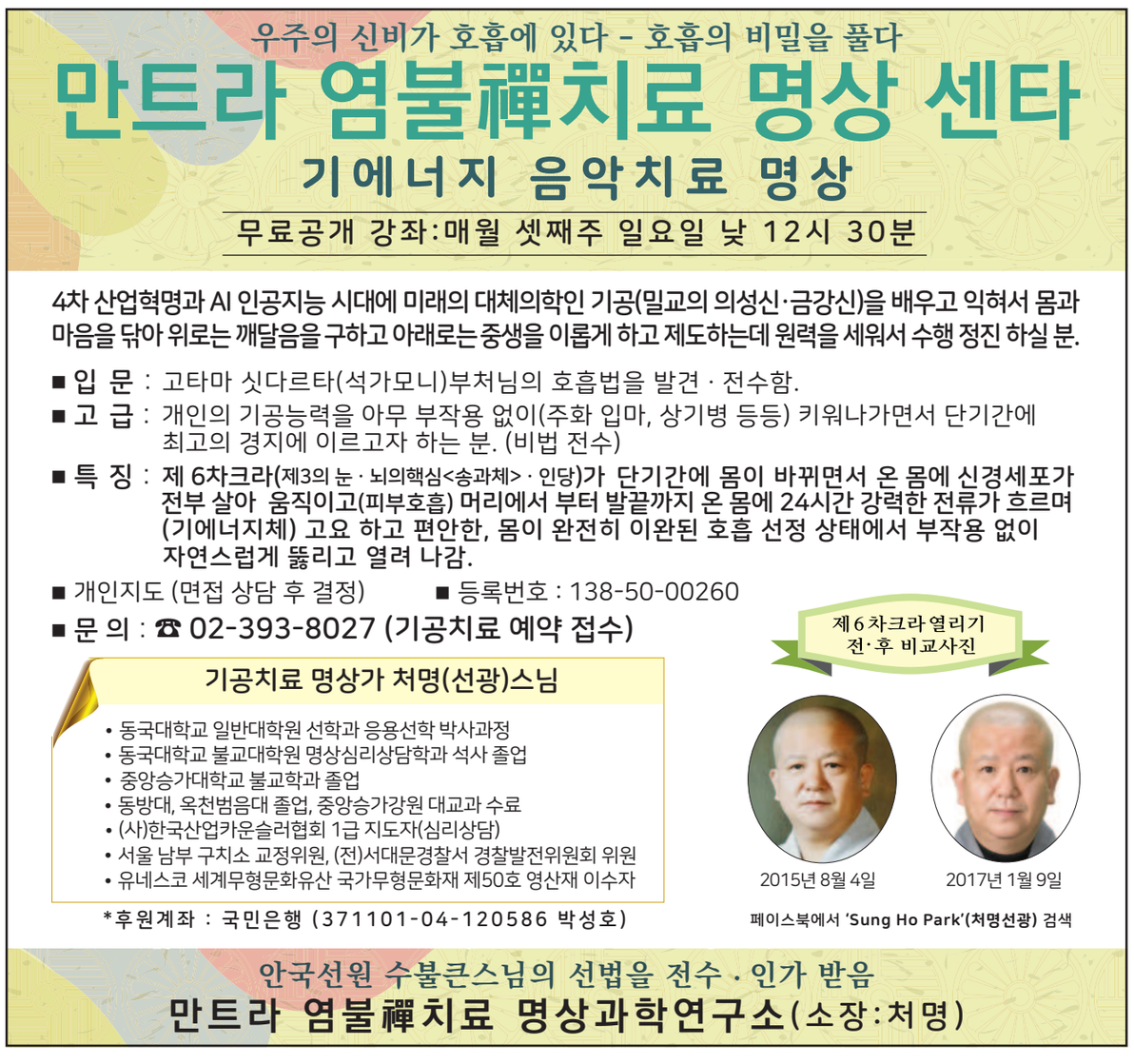
이번 스키캠프는 스키와 보드 두 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22일 입재식에 이어 안전교육 및 기초강습과 함께 저녁에는 국제친선의 밤이 진행된다. 둘째날인 23일에는 스키 보드 강습과 함께 저녁에는 오션월드 테마파크 체험활동도 이어진다. 매일 오전 7시에는 아침예불도 함께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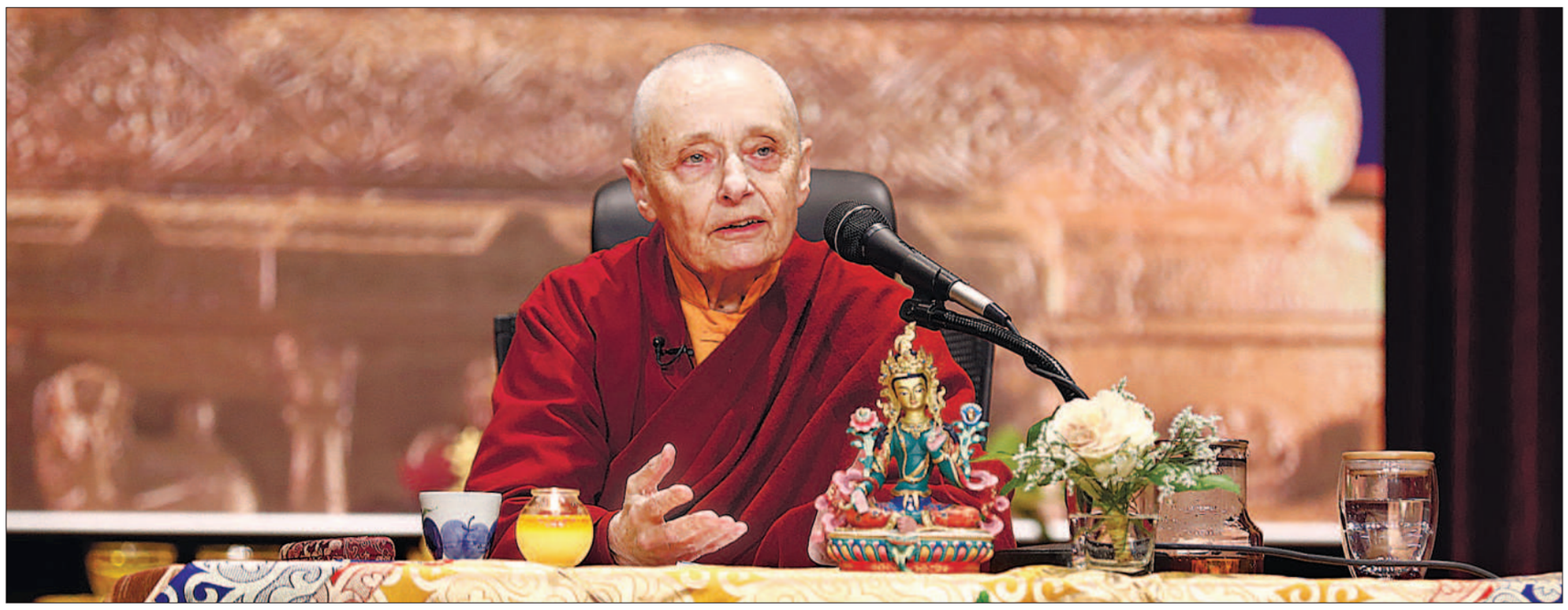
스카우트불교연맹 측은 "자칫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 야외활동 활성화 일환으로 제6회 인성함양스키캠프를 열게 됐다"며 "겨울철 어린이 청소년들의 기분전환과 몸과 마음 단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신청 (02)722-9033

노덕현 기자







제쑨마 텐진 빠모 스님은 1월 5일부터 양일간 '마음과 친구하기' 란 주제로 명상법회를 진행했다. 티베트불교의 수행법을 한국에 전하는 세첸코리아는 이 기간 행사를 주관했다.



스님, 재가자는 물론이고 국적을 막론한 참가대중 250여 명이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마음의 작동원리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자 참가대중은 하나 둘 필기를 멈추고 스님과 눈을 맞췄다.

"진정한 보시, 붙잡지 않는 '마음'서 나온다"

세첸코리아, 텐진 빠모 스님 초청 명상법회 현장

수행 근본은 '내면의 태도'
행동 · 말보다 心 다스림부터
무집착서 나오는 진짜 보시

쉽고 재미있는 비유 · 일화로
불교 핵심 마음훈련법 전수
사부대중 250여 명 운집해

글=김지원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Just Let go!(그냥 놓아버리세요) 진정한 보시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버리게 두는 것입니다. 붙잡는 마음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마치 벨크로 테이프처럼 우리 마음에도 여러 개의 작은 갈고리들이 나 있기 때문이에요."

잔잔하고 온화한 미소로 텐진 빠모(Tenzin Palmo) 스님이 법을 펼쳤다. 스님이 생동감 넘치는 비유와 일화로 마음의 작동원리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자 참가대중은 하나 둘 필기를 멈추고 스님과 눈을 맞췄다. 마치 대화를 나누는 듯한 법문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다가왔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수행자인 제쑨마 텐진 빠모 스님은 1월 5일부터 양일간 '마음과 친구하기' 란 주제로 명상법회를 진행했다. 티베트불교의 수행법을 한국에 전하는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이 기간 행사를 주관했다. 스님, 재가자는 물론이고 국적을 막론한 참가대중 250여 명이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을 가득 채웠다. 모두 텐진 빠모 스님의 명상법을 들으러 온 이들이었다. 사전 신청자 수가 마감됐지만 현장 접수를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텐진 빠모 스님은 서양 여성 최초로 티베트 불교에서 계를 받았다. 또한, 12년간 히말라야 산 속 동굴에서 홀로 수행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법회는 '아띠샤 존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요결(Atia's Lojong Root Verses on Training the Mind)'을 기반으로 구절마다 텐진 빠모 스님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인도 아띠샤(Atia) 존자는 불교를 티베트에 전래한 인도 고승이자, 티베트 불교의 후전기를 여는 사상적인 지도자다. 아띠샤 존자는 티베트 불교의 수행법인 로종 즉, 마음 훈련을 창시했다. 마음을 다스리는 요결은 정신 · 마음 · 의식을 변화시키고 탈바꿈하는 다스림 훈련법의 요체를 담은 명상수행 법문으로, "최고의 지혜는 무아(無我)의 의미를 아는 것이고 최고의 수행은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임을 골자로 한다.

먼저 스님은 물질적인 세속의 가치관에 매몰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스님이 제시한 세속의 가치관은 더 가질수록 행복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띠샤 존자는 '최고의 품행은 세속과 맞지 않는 것' 이라고 했어요. 이에 대해 세속과 조화를 이루는 게 맞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요. 성공하지도, 출세하지도 말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축적하고, 명예를 얻는 일 등 사회가 바라는 방향만이 다가 아님을 인지하자는 겁니다."

스님은 금생을 호텔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세속의 가치관 대신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아는 지족, 내려놓음으로 발원의 방향을 바꿀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원하는 방향을 세속과 반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갈 수 없어요. 모두 벗고 갑니다. 업을 가지고 갈 뿐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몸을 호텔로 여기십시오. 호텔에서 영원히 지내지 않죠? 체크아웃을 해야만 하잖아요. 언젠가는 두고 갈 것들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어 스님은 마음의 구체적인 성품과 작동을 인지하고,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을 설했다. 스님에 따르면, 불교에서는 번뇌를 억압하라고 하지 않는다. 번뇌는 습관적으로 작동하는 마음의 원리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속적으로 번뇌를 다스리는 훈련을 함으로써 마음을 변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님의 법문은 종교, 언어의 장벽을 넘어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러시아, 캐나다 등 타국에서 온 참가대중이 휴식시간 텐진 빠모 스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리 마음은 쾌락에는 집착하고, 아픔은 거부하는 원리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초월하려면 번뇌의 공한 본질을 알아보고 '나(ego)'가 사라지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쇼핑몰에 온갖 물건들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그 중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특히 스님은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의 실천을 대중에게 당부했다. 보시를 함에 있어서도 집착 없이 베푸는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를 강조했다. 스님은 "대부분 타인에게 베푸는 것이 보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해"라고 말했다. 보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 즉 붙잡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스럽게 보시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띠샤 존자의 요결에서 '무집착이 가장 높은 보시'라 표현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 텐진 빠모 스님은 힌두 수아미와 제자의 일화를 들려주면서, 마음을 들러붙지 않는 프라이팬에 비유했다.

"독신으로 간소한 삶을 사는 한 수아미에게 제자들이 값진 공양물을 올렸습니다. 이 스승은 진정 즐거워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 물건에 관심을 가지고 신기해했죠. 이후 그것들 모두 잘 쓸 수 있을만한 이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가 바깥 물건(thing)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집착하는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아미는 물건에 관심을 보였지만 그 분의 마음은 물건을 붙잡지 않았어요.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집착하는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보시한다는 것에 집착하는 것도, 무집착에 집착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좋은 프라이팬에 음식이 달라붙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지 않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스님의 법문은 종교, 언어의 장벽을 넘어 청중의 마음을 울렸다. 티베트 불교의 마음수행법을 처음 접한 이들은 '공감'을 가장 큰 매력으로 꼽았다.

무일 스님(용인 서봉사)은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끝없는 윤회 속에서 돌아가는 존재란 사실을 다시 새기면서 들었다. 조계종에 들어온 뒤 간화선을 공부하지만, 도반 스님의 권유로 이번 기회에 티베트 불교를 처음 접하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서 왔다는 나탈리아(43) 씨는 "심리학 계통에서 일을 하고 있고 평소에 종교에는 그다지 흥미가 없는 편이다. 불자인 친구와 함께 텐진 빠모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됐다"며 "단순한 호기심으로 듣다가 과학과 불법이 매우 유사한 점이 많아 놀라웠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길들이는 방법은 상담심리 분야서 행하는 마인드 트레이닝과 방향성이 일치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세첸코리아가 주관한 행사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이장원(33) 씨는 "전에 텐진 빠모 스님이 봉은사서 법문을 하시는 영상을 접하고 실제로 뵙고 싶었다. 그때보다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중을 향한 음성과 눈빛에 맑은 기운과 사랑이 느껴졌다"며 "특히 진정한 보시에 대한 수아미 일화가 마음에 와닿았다. 한 해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시기에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베푸는 것에 집착하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익명의 한 참가자는 "화가 났을 때 내 감정을 조절하기 무척 어려웠는데 스님의 법문을 통해 그 이유를 알게 됐다"며 "분심이 일어날 때 내 감정을 바라보는 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라는 조언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텐진 빠모 스님은 도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반은 좋은 친구이자, 영적인 길을 가는 데 힘이 돼주고, 격려 받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도, 불자가 아니어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이가 바로 도반입니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만난 이들도, 함께 법문을 들으러 온 이들도 모두 서로의 도반이었다.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9년 1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 (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

‘화엄의 야단법석’ 환희 속 회향

영축총림 통도사, 30일간 구법여행 마무리

양산 통도사=하성미 기자

영축총림 통도사가 화엄산림법회를 회향했다.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역대 최다인 2만여 명이 참여해 마지막 소대의식에서 대중이 산을 가득 메우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국내 최대 화엄법회라는 명성 속에 마지막 회향까지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가 돋보여 주지 영배 스님을 비롯해 소임 국장 스님 그리고 봉사자들까지 모두 큰 박수를 받았다.

통도사(주지 영배)가 30일 동안 이어온 화엄 구도 여행 ‘화엄산림법회’는 1월 5일 설법전에서 회향했다. 회향법회는 방장 성파 스님의 법문과 주지 영배 스님의 인사말 그리고 영가 시식 및 소대의식 순으로 진행됐다.

방장 성파 스님은 “행백리자 반구십리(行百里者半九十里), 100리를 가려는 사람은 90리를 가고서도 이제 절반쯤 왔다고 여긴다”며 “끝까지 마무리가 중요하다. 마지막까지 정진하라”고 당부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10만여 영가를 모시고 수만 명의 신도들과 함께 부처님의 진리 화엄경을 공부하고 법문을 들었다”며 “화엄경은 우리 삶의 지표다. 잘 간직해 2019년에는 화엄의 길을 걷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역대 최다 2만여 불자 참여
화엄정신 되새기며 정진해
많은 인파에도 질서유지 눈길
“2019년 화엄의 길 걸어가라”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특히 많은 사부대중이 찾아 눈길을 끌었다. 주지 영배 스님 취임 후 꾸준히 화엄산림 참여 인원이 늘어났고, 이번에 최다 인원인 2만 명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불자들은 화엄산림법회는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화엄산림법회의 전통과 시작인 자장 스님은 화엄도량으로 통도사를 창건했다”고 덧붙여 강조했다.


영축총림 통도사가 화엄산림법회를 회향했다. 이번 화엄산림법회는 역대 최다인 2만여 명이 참여했으며 마지막 회향까지 질서 유지와 안전관리가 돋보였다.

정신에서 대승불교의 정신을 알 수 있고 함께하는 것으로 화엄정신을 잇는다고 동참 의미를 설명했다.

화엄산림법회는 1927년 시작됐다. 1925년 통도사 극락암 경봉 스님이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피기 위해 만일염불회를 개설했고, 대승보살도를 설하기 위해 화엄산림법회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해 방장 성파 스님은 “화엄경 법회는 1927년 전에도 꾸준히 이어져 왔으며 개산조

성파 스님은 회향법문에서 “자장 스님은 당나라에서 화엄경을 설한 화엄종장이며 통도사는 화엄종찰”이라고 설명했다. 또 “가람 배치를 살펴보면 화엄경에 따라 지어져 화엄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 도량 곳곳이 바로 화엄을 상징하며 여러분이 소우주이자 화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엄산림법회를 찾는 또 다른 이유로 불자들은 뛰어난 강백과 선사 그리고 율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생생하게 맛볼 수 있어서라고 답했다. 화엄산림법회는 경봉 스님, 보우 스님, 해담 스님 3명의 법사로 시작했으나 현재 전국 각지에서 초청한 30명의 법사 스님들이 매년 설법을 잇고 있다.

특히 화엄산림법회 기간 열리는 영가천도는 불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다.

김진서(54 · 부산 연제구) 씨는 “평소 어머니가 화엄경을 좋아하셨고 통도사에 찾아 화엄경 법문을 듣고 하셨는데 이번에 화엄산림법회에 영가를 올리고 소대의식도 함께 할 수 있어 너무나 위안이 된다”며 “화엄경을 함께 듣는 영가들을 위해 지극하게 기도해주시는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통도사는 화엄산림법회 기간 매주 토요일 저녁예불 후에 설법전에서 법성게 정진을 진행하고, 일요일 오전 법문 후에는 천도재를 봉행했다. 법성게는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친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는 천도의식이다. 스님들과 불자들은 반야용선을 따라 함께 광목천을 잡고 법당을 돌며 화엄경을 읊고 장엄 염불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그리고 마지막 회향법회 후 대중은 위패와 다라니를 들고 소대의식에 참여하며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이번 법회는 특히 많은 대중이 참여했지만 안전사고가 없었고 뛰어난 질서 유지로 대미를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음향 시설을 도량 곳곳에 설치해 설법전에 들어오지 못한 대중이 어디서든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 섬세한 배려가 눈길을 끌었다. 또한 이번 화엄산림법회를 위해 통도사 신행단체 12개 회원 500여명이 봉사에 대거 참여했다.

주지 영배 스님은 “화엄산림법회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정성을 기울인 것이 여러분의 안전이었다”며 “통도사 설법전이 전국 법당 가운데 가장 큰데도 좁게 느껴질 정도였다. 공양간 및 관음전 그리고 후원 등 도량 곳곳에서 현재 법문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러분을 위해 한 달 동안 밤낮 없이 뒷바라지 해준 신행단체 회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약수사, 기해년 출발 생명나눔으로 ‘훈훈’

장기기증등록 · 환우 기금 전달

부산 사하구 약수사는 2019년 기해년 새해를 생명나눔으로 시작했다.

약수사(주지 혜우)는 1월 6일 경내 대웅전에서 생명나눔 법회를 봉행하고 장기기증희망등록서와 난치병 환우 돕기 기금을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약수사 신도들은 이날 장기기증희망등록서 30장을 작성했고, 저금통으로 십시일반 모은 60만원도 함께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부산 괴정 옥련암 주지 지연 스님과 신도들도 함께 생명나눔에 동참해 따뜻함을 더했다.

약수사 주지 혜우 스님은 생명나눔의 따뜻함이 릴레이처럼 온 세상에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혜우 스님은 “오늘 이 행사가 어렵게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환우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여러분의 선한 행동이 시작점이 되어 각 사찰에서 지속적으로 릴레이처럼 이어지고 행복한 불국토가 되는 한 해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2019년 부산불교연합회 신년하례 모습. 부산불교계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 “새해 새 원력과 발심으로”

각 연합회 기해년 신년하례로 각오 다져

부산불교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원력을 세우고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불교는 한 해 동안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며 복지를 통한 사회공헌과 정법 홍포를 위해 정진한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경선)는 1월 4일 부산 코모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부산불교계는 먼저 중요무형문화재 122호인 연등축제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의 발굴, 계승하고 발전을 위해 활동을 펼친다. 베트남 등 주요 불교국가와 교류하며 문화교류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또한 팔관회를 중심으로 불교의 사회화 및 인간성 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이웃돕기를 통해 자비사상을 실천한다. 특히 정법 홍포를 위해 화합하고 부산불자대상을 처음으로 제정해 시상한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신년하례회는 승가와 재가가 함께 불교의 발전과 정법 홍포를 향한 큰 뜻을 세우기 위해 개최한다”며 “새롭게 세운 원력은 불자만을 위한 것이 아닌 부산시민과 나아가 국가를 위한 선물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도 1월 3일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에서 기해년 첫 연합법회를 봉행하고 새로운 포교 계획으로 화합을 다졌다.

영도구불교연합회는 2019년 연합 사업으로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재, 경로잔치 및 자비의 연탄 나눔 등 화합과 포교를 위한 활동을 새롭게 전개한다. 회장 호법 스님은 연기적 공동체의식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의 행복을 위해 전법활동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남구불교연합회는 1월 4일 남구청 대회의실서 자비나눔 성금 전달식을 통해 새해 첫 출발을 사회공헌으로 시작했다. 전달식에서 남구불교연합회는 성금 900만원과 쌀 6800kg을 지역사회에 후원했다. 후원금은 남구불교연합회에서 개최한 일일찻집 수익금으로 마련했다.

하성미 부산주재 기자

“광주불교 佛法 전파 더 널리”

광주불교연합회, 성도재일 연합대법회 봉행

광주지역 불자들이 성도재일을 기념하기 위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동현)는 1월 9일 광주시청 대강당에서 ‘불기2563년 성도재일 연합대법회’를 개최하고, 제4대 광주불교연합회장 동현 스님 취임식을 실시했다. 행사에는 연합회 스님들을 비롯해 정관계 인사 등 600여 명이 참여했다.〈사진〉



이날 동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해방 후 80년의 시간동안 광주시민의 삶 속에 면면히 이어온 자비, 평등의 부처님 가르침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근간이 됐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에 펼쳤던 숭고한 뜻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행사에서는 호남지역 가장 큰 재가불자상인 불자대상에 이재언 불자가 선정됐다. 이재언 불자는 15년간 매주 광주소년원생을 위한 교화활동과 빛고을나눔나무 승보공양, 포교사 활동, 봉축행사 기획 등에 참여해 지역불교 활성화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인정됐다.

봉축대상에는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행사에서 차량봉사, 제등행진 진행요원으로 활동하는 운전불자회 광주지회(지회장 홍신도)가 수상했다. 운전불자회 광주지회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차량통제, 제등행진 안전요원 등으로 활동하며 봉축행사가 원만히 회향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성도재일 기념 예불 및 법문이 이어졌다. 봉선사 능엄학림 학장 정원 스님은 법문을 통해 ‘불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에 대한 해설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광주불교연합회는 또한 올해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일정 등을 발표하고, 세부적인 강습회와 교육일정 등을 결의했다. 특히 지난 5일부터 매주 토요일 3회에 걸쳐 지화연꽃, 연꽃컵등, 행렬등 강습회를 시작으로 1월 26일 율동강습회 등 봉축을 위한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

인욕의 씨앗으로 '마음살림' 하자

주제 : 불자답게 사는 정진의 자세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

무술년은 그만두고 내년 기해년 새해부터 / 신심 있는 우리 불자 열심히 나아가세.
도끼 들고 산에 들면 덤불쳐서 개량하고 / 괭이 들고 돌밭 파면 황무지가 옥토 된다.
우리 밭에 보리싹은 눈 속에도 푸르러있고 / 우리새암 물줄기는 소리치고 솟아난다.
부지런히 나아가면 새천지 아니볼까 / 정신있는 우리불자 사람중에 사람되세 하시더라.
백학명 스님 신년가 중에서

무술년 한 해도 지나갔습니다. 구한말 내장산 내장사의 조실로 계신 백학명 큰스님께서 새해를 맞이하며 지은 신년가의 한 대목입니다. 이 구절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육체를 '참 나'로 여긴 삶

처음 두 구절을 봅시다. 무술년은 가게 두고 기해년부터는 신심 있는 불자로 일을 좀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면, '내가 나의 일을 하자' 는 이야기예요. 대부분 우리는 내 일은 없고 남의 일을 하다가 업만 짓고 한 세상 살다옵니다.

불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나' 는 참 나가 아니에요. 나인 줄 믿는 육신조차도 참 나는 아닙니다. 부모님께 얻어서 내가 쓰고 생활하는 몸뚱아리인 것이지, 내가 아닙니다. 전부 이 몸뚱아리가 좋다고 하는 대로, 이 몸이 시키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하면 업 짓는 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금년부터는 불자로서 불자답게 자신의 일을 좀 하는 불자가 되자고 다짐합시다. 자신의 일은 나를 위한 공부, 수행 이외에는 없습니다.

生死, 옷 갈아입기에 불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자신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구절부터 봅시다. '도끼 들고 산에 들면 덤불쳐서 개량하고' 에서 도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유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위해서 참 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진리, 법이라는 겁니다. 산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할 때 가장 큰 적이 되는 사상(四相)을 뜻해요. 바로 이 사상 산을 허물어뜨려야 합니다. 여기서 덤불은 번뇌 · 망상을 비유합니다. 따라서 온갖 분별, 욕망을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로 모두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욕망의 덤불을 쳐서 없애자고 말입니다.

사상에 대해 좀 더 살펴봅시다. 사상은 아상(我想), 인상(人相), 중생상(衆生相), 수자상(壽子相)을 의미해요. 아상은 '나' 라는 생각입니다. "나 잘났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많이 배웠다" "나는 귀하다" 등 교만한 생각과 자만심입니다. 인상은 상대에 대한 생각이에요.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깔보는, 상대는 내가 아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은 모두 인상입니다. 즉, 자신이 인간이란



묘허 스님은… 1957년 한산당 화엄 선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63년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뒤, 1965년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현재 대전 신흥사 · 김해 원명사 · 단양 방곡사 회주를 맡고 있다.

새해 불자가 할 일, 오직 수행
중생의 한계인 분별 · 욕망 떨쳐
삶 집착 거두고 인내하는 노력
한 사람에서 전체 변화 비롯돼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을 뜻합니다. 중생은 아상, 인상에 집착해서 이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한 우리 중생은 중생상 즉, 부처님처럼 해탈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질적인 육체와 정신적인 영체, 영육이 동시에 공존하면서 심호흡을 하고, 감각기관을 갖추고 있는, 깨닫지 못한 모든 생명체를 통칭해 중생이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일체중생의 생명체는 평등하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어찌 중생에게 차별이 많은가하고 물을 수 있어요. 각자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업에 따라서 덮고 있는 껍데기, 육체가 다를 뿐이지 생명의 본질은 평등합니다. 중생상은 이러한 생명의 존재를 차별하는 마음, 분별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자상은 오래 살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배우고 알고 나면, 본래 생사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 생사한 줄 알고 생사에 얽매여 1초 1각이라도 더 살고자 합니다. 육체에 대한 집착이 모두 수자상입니다.

나고 죽음은 본래 없고, 육체의 껍데기만 바뀌는 것이 생과 사라 했습니다. 생사는 입은 옷이 떨어지면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아요. 육체의 의복은 내가 입고 있는 것이지만, 내 영혼의 의복은 바로 육체입니다. 이런 진리를 믿으면 나고 죽음에 기뻐할 일도, 슬퍼할 일도 없어요. 무생무사(無生無死)라, 나지 않으면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과 사는 둘이 아니에요. 본래 생과 사가 없는데, 우리는 육체의 의복이 바뀌는 것을 생과 사로 알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살림으로 불성 꺼내자

여러분은 헌 옷이 좋나요, 새 옷이 좋은가요? 지금 법당에 앉아있는 불자님들, 입고 있는 옷들이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을 보고 내가 입은 것보다 좋아보여서 기죽는 경우도 있죠. 돈 많이 준 옷이 좋은 것을 알면서도 사 입지 못하는 이도 있어요. 돈이 없어서요. 경제 살림을 잘 살아야 오늘처럼 추운 날 보온이 잘 되는 좋은 옷을 사 입을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걸치고 있는 의복, 육체는 어떨까요? 육체가 입는 옷은 경제 살림을 잘 살아야 되지만, 영혼이 걸치는 육체는 마음 살림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도끼 들고 산에 들어 덤불치고 개량하자는 대목은 번뇌 망상을 쳐부수고 심전(心田)을 잘 개량해야한다는 이야기예요. 산은 높은 산도, 낮은 산도, 깊은 골짜기도, 얕은 골짜기도 있잖아요. 밭도 평지밭이라야 농사가 잘 돼요. 사상 산을 허물어서 넓은 평야로 만들고 심전을 개량하는데, 뭐가 있으면 더 잘 되겠어요? 부처님의 말씀, 진리의 포크레인을 갖고 사상 산에 들어가서 넓은 평지를 만들어서 심전 개량을 잘 하자는 겁니다.

개발만 하면 뭐합니까, 농사를 잘 지어야합니다. 우리는 만들어놓은 심전에 경작도 잘 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마음 밭에 참을 인(忍)의 씨를 뿌립시다. 불자라면 인욕의 씨앗을 마음 밭에 심어서 어떤 일에도 참는 노력을 합시다.

참는 것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노력을 불교에서는 정진(精進)이라고 합니다. 노력하다보면 인욕의 씨앗에 정진의 싹이 트게 돼요. 자꾸 참다 보면 무슨 소리를 들어도 성냄이 덜 나게 돼 있어요. 덜 나다가 나중에는 아예 나지 않게 됩니다.

황토물이 굽이치고 내려갈 때는 아무리 밝은 달도 그 위에 그림자가 비칠 수 없어요. 하지만 영원히 달그림자가 비춰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모래 찌꺼기가 다 가라앉은 뒤 굽이치던 물이 거울물처럼 고요해지면 사물의 그림자가 본래 모습처럼 환하게 비춰집니다. 이처럼 성내고 헐떡거림이 멈춰진 상태를 바로 선정(禪定)이라 합니다. 선정은 반야(般若)의 지혜를 얻고 성불하기 위해 마음을 닦는 수행이지요. 선정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지혜의 꽃이 핍니다. 지혜의 꽃이 피고 깨달음의 열매,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구절인 '괭이 들고 돌밭 파면 황무지가 옥토 된다' 를 보겠습니다. 괭이 역시 부처님의 진리 가르침입니다. 돌밭은 번뇌, 망상이겠죠. 따라서 부처님 가르침으로 번뇌 망상을 파내면 쓸 데 없는 황무지가 옥토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밭에 보리싹은 눈 속에도 푸르러있고' 에서 우리 밭은 각자의 마음 밭을, 보리싹은 깨달음을, 눈 속은 번뇌와 망상 등 온갖 집착을 비유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온갖 집착을 다 가져도 그 속에 있는 본래 불성의 모습, 자성은 명백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속에 부처님의 깨달음과 조금도 다름없는 불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눈이 자성을 차단하고 덮고 있어서 보이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 속에서도 푸르고 성성한 깨달음이 있어요.

'우리샘 물줄기는 소리치고 솟아난다' 구절에서 물줄기는 지혜의 원천을 뜻합니다. 결국 그 물줄기가 강으로, 바다로 갈 겁니다. '부지런히 나아가면 새천지 아니볼까' 에서 새천지가 바로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각해(覺海)라고 해요. 바다는 물을 받아들일 때 가리지 않습니다. 썩은 물도, 황토 물도, 깨끗한 물도 들어오지만 바다에 들어가면 다 한 맛이 되죠. 그 어떤 물이라도 짠 바닷물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든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음은 하나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과거는 한강물에 모두 모아 던져내어 버리고 맑은 정신만 챙겨서 삽시다. 여러분은 한 사람의 불자이자, 대한불교조계종의 불자이자, 더 나아가면 대한 불교의 불자이자, 세계 불교의 하나입니다. 이처럼 나 한 살림이 지구 전체의 살림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을 작은 존재로 여기지 마시고 나 하나가 맑으면 내 가정, 주위 이웃, 지역사회, 국가, 세계가 참다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삽시다. 스스로 나만의 한 사람이 아닌 우주 전체의 한 사람이란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은 나 하나의 소중함을 아는 불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불자란 이름으로 불자답게, 나 자신에게 거짓 없이 떳떳하고 당당한 참 불자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자료제공=BTN불교TV

지나간 일들은 묻고, 새 마음 새 뜻으로 한 해를 무장하자는 가르침이 있다.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은 1월 3일 방영된 불교TV무상사 일요초청법회서 '불자답게 사는 정진의 자세' 란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생사는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다"며 "중생은 영혼이 걸치는 의복인 육체가 참 나가 아님을 알고, 새해부터는 불자로서 '나' 를 위한 수행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정리=김지원 기자

한국불교태고종 부산종무원

부산종무원장	자관스님(자비암)	중앙원로수석부의장	원묵스님(용화사)	지방종회의장	도오스님(백룡사)
		중앙원로위원	경담스님(구봉사)	지방종회부의장	청안스님(무량정사)
행정부원장	마나스님(백운사)	지방원로위원	여산스님(옥남사)	지방종회사무국장	지운스님(연화사)
재경부원장	지광스님(원광사)		남화스님(대연사)	중앙종회위원	지풍스님(법성사)
총무국장	봉진스님(예성사)		법운스님(보광사)		태명스님(사천왕사)
교무국장	성주스님(흥급사)	포교위원장	고담스님(전불정사)	지방종회위원	행암스님(대덕암)
재무국장	지보스님(연화사)	지방선관위원장	혜각스님(영월사)		보해스님(은혜사)
사회국장	도화스님(무심사)				성각스님(보림사)
규정국장	법성스님(성불사)				혜공스님(구룡암)
문화국장	일행스님(무애사)				도향스님(보문사)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 47(수안동)청하빌딩 4층 | Tel 051)558-5077 Fax 051)558-5076

채움보다 비움을, 성공보다 성장을



김원숙의
불교와 미학

① 미니멀리즘과 비움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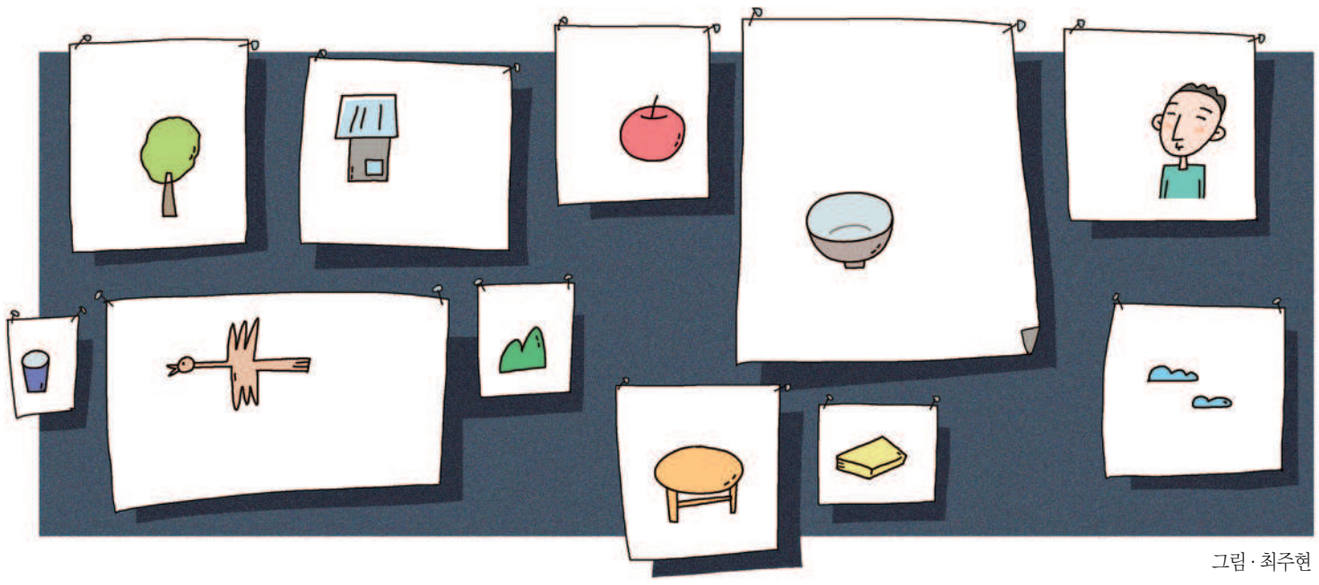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정신의 절대적 단계 '비움'
미술의 '미니멀리즘' 표현
여유로운 삶의 새 방식

근래 미니멀 인테리어의 유행과 더불어 〈버리면 버릴수록 행복해졌다〉, 〈누구나 꿈꾸는 미니멀 라이프〉, 〈아무 것도 없는 방에서 살고 싶다〉, 〈처음 시작하는 미니멀 라이프〉 등 최근 출간되는 책들의 제목만 보아도 간결한 삶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불고 있는 소확행(小確幸), 퀘렌시아(Querencia) 트렌드와 더불어 비움과 무소유를 표방하는 미니멀리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도 하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정작 단순하게 살기란 쉽지 않다.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은 단순하게 사는 법을 잘 알지 못한다.

얼마 전 대학교 기말시험 때의 일이다. 삼십분즈음 지나 몇몇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고 시험장 나가기를 청했다. 감독인 나는 다른 학생들의 불편을 염려하여 그 청을 거절했다. 잠시 후 학생들의 표정이 초조함에서 막막함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점차 변하고 있었다. 그렇게 적막함 속에 우두커니 앉아 있어 본 경험이 없었을 그들이었다. 지켜보기가 안타까워 인터넷을 검색하여 아직 답안을 작성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 정도로 나지막이 피아노 명상 음악을 들려주었다. 불편해하던 학생들이 그나마 작은 안식처를 찾는 듯 했다. 시험을 마치고,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에는 산사나 수도원 혹은 숲 속이나 바닷가를 찾아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기를 권했다. 시큰둥한 표정이었으나 적잖은 동요가 느껴졌다. 비단 학생들만의 경우는 아닐 것이다. 우리 또한 그 '비움'에 스스로를 내놓은 적이 얼마나 될까?

'최소한'이라는 의미의 미니멀(minimal)과 주의(ism)를 결합한 '미니멀리즘'은 2차 세계대전 후, 1960~1970년대에 일어난 단순함과 간결함을 추구하는 미술운동이다. 미니멀리즘 미술에서는 형태와 색채의 단순함뿐만 아니라, 사물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고자 미술가의 감정과 사상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미술가의 감정만이 아니라 작가성 또한 배제한다. 불필요함을 제거하고 본질만을 남기려는 미니멀리즘(minimalism)은 이후 시각미술뿐 아니라, 패션 · 건축 · 음악 등 여러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작가의 개성적 손길과 감상자의 감정이입마저 최소화된 미니멀 아트는 사물 그 자체가 되고자 한다.

도미니크 로로는 자신의 저서 〈심플하게 산다〉에서 '심플한 삶이란 적게 소유하는 대신 사물의 본질과 핵심으로 통하는 것'이라 언급한다. 인생에서 정말 소중하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여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데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이 미니멀 라이프의 근간이다.



카지미르 말레비치의 '검은사각형'을 보는 관람객.

그런데 우리는 적게 소유하기, 비우기, 버리기, 무소유란 단어에 현혹되어 정작 본질을 놓쳐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진정 단순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위의 작은 사진 속 그림에서 무엇이 보이는가? 아름다운 여인도 아니 보이고, 화려한 꽃다발도 멋진 풍경도 없다. 그저 흰 화면 위에 검게 칠해진 사각형이 전부다. 아무것도 없이 적막 속에서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했던 학생들처럼, 이런 종류의 작품 앞에 서면 막막해진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리의 시선은 당황스럽기만 하다.

〈검은 사각형〉을 그린 작가는 러시아 화가이자 미술교사였던 카지미르 세베리노비치 말레비치(Казимир Северинович Малевич)다. 단순한 하얀색 바탕에 검은 사각형 하나가 있을 뿐인 이 작품은 모더니즘미술에서 가장 극단적인 추상의 형태인 절대주의(Suprematism)의 탄생을 보여주며, 이후 단순성, 명료성, 반복성, 사물성을 특징으로 하는 미니멀리즘의 효시가 된다.

말레비치는 예술의 절대주의를 선언한다. 말레비치는 "나는 자신을 영(Zero)의 형태로 만들었고 무(無)에서 창조로 나아갔다. 그것이 절대주의고, 회화의 새로운 리얼리즘이고, 대상이 없는 순수한 창조다"라고 말했다. 순수 감성이란 어떤 모방이나 형태로도 표현할 수 없기에 외부세계의 재현을 거부하고, 형상마저 없애버린다. 그에게 예술의 궁극적 목적은 가시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절대적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검은 사각형〉은 맑고 차갑고 투명한 고독의 극치에서 외친 말레비치의 탄성과 같은 그림이다. 1915년에 열린 '마지막 미래주의 전시: 0,10'라는 이름의 단체 전시회에서 '절대적인 텅 빈 무(無)'의 상태를 나타낸 이 작품을 발표한지 20년 후, 말레비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사망하는데, 죽기 전에 검은 사각형과 원으로 자신의 관 뚜껑을 직접 디자인했다. 형태를 지우고 빛과 색의 부재 속으로 들어간 말레비치는 어쩌면 검은 색 사각형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신마저 지워버리고 싶었는지 모른다.

자신의 유언에 따라, 말레비치는 모스크바 인근 넴시노브카(Nemchinovka)의 떡갈나무 아래 묻혔다. 친구 니콜라이 수에틴(Николай Суетин)이 하얀 바탕 위의 검은 사각형을 묘지석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말레비치의 무덤은 2차 세계대전 중 파괴되었고, 2013년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현재는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고 당시 기록 사진으로만 남아있을 뿐이다. 소련 시절에 이루어진 집단 농장, 강제 산업화, 전쟁 및 냉전을 거치면서 잊히고 사라져간 그의 소박한 무덤은 어쩌면 러시아의 슬픈 근대 역사의 자화상이 아닐까.

말레비치는 심신을 작용하는 여섯 가지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의 경계가 끊어진 자리의 깊고 고요한 어둠을 통해, 감각 너머 절대순수성에 도달함으로써 모든 존재의 근원에 다가가고자 하였다.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은 노발리스가 말했던 모든 시공간의 구분이 사라져 태초의 시간으로 되돌아가는 순간인 '신성한 밤'이고, 니체가 주장했던 영원회귀의 시간을 의미하는 '깊은 밤'이다. 동시에 세계 내지 존재의 근원에 대해 말하는 침묵의 목소리다. 그의 〈검은 사각형〉에서 모든 색을 받아들여 텅 빈 무의 세계, '없되 없지 않으며, 있되 있지 않은 상태', '없으면서 있고, 있으면서 없는 상태', 무와 유가 하나인 '공'의 상태인 진공묘유(眞空妙有)의 세계를 만난다.



미니멀리즘은 미술을 넘어 삶의 양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후 〈검은 회화〉 시리즈를 제작한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는 "보이는 것이 당신이 보는 것 그 자체다"라는 말로 미니멀리즘을 요약하며, 비움과 있는 그대로 바라봄에 대해 언급한다.

고요하고 텅 비어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신령스러운 빛은 눈부시게 온 누리를 비추네
저 삶과 죽음을 받을 몸과 마음 이제 없거니
가고 옴에 전혀 걸리는 것이 없네

湛然空寂本無一物 靈光赫赫洞徹十方
更無身心受彼生死 去來往復也無罣碍
〈함허당득통화상어록(涵虛堂得通和尙語錄)〉 중에서

조선 초 승려로 일생을 수행자로 살다 가신 함허(涵虛) 스님의 임종게다. 이 게송은 고요하고 텅 비어 형체나 흔적이 없으며, 오직 비고 비어 비고 빈 거울뿐이며 오고 감에 티끌 하나 걸리지 않는 우리의 마음 본래 자리에 대한 스님의 마지막 깨달음을 사무치게 전해준다.

최소한의 물건만 소유하고자 하는 일명, 자발적 가난은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비움, '청빈'이어야 한다. 법정 스님은 말씀하시길,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청빈의 덕을 쌓으려면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과 간소함이란 본질적 세계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제외한 꼭 필수불가결한 것만 있는 결정체 같은 것입니다. 단순과 간소, 이것은 침묵의 세계, 텅 빈 공(空)의 세계입니다. 여백과 공간의 아름다움이 단순과 간소에 있습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마음의 온갖 욕망과 욕심은 그대로인데 아무리 엄청난 양의 물건을 내다 버리고 처분하여 집 안을 텅 비운다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뿐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다. 지난날의 슬픔과 다가올 날의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 좀체 끊기 힘든 집착과 번뇌로 이끈다.

진정한 비움은 비움의 욕망마저 떨치고, 지금 여기에 이미 내가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는 일이다. 진정한 비움은 기억과 기대가 아니라 오직 이 순간을 사는 일이고, 어떤 집착도 걱정도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비움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가야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특별한 것도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온전한 비움이다. 비움은 있고 없음의 경계, 크고 작음의 경계, 높고 낮음의 경계, 너와 나의 경계, 시작과 끝의 경계, 나고 죽음의 경계까지도 없는 무의 세계에서 걸림 없는 자유로운 본래 존재로의 열림이다.

'인류의 미래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내면의 깊이를 발견하고, 그 내면에서부터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상의 것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다.' (아널드 토인비)

미니멀리즘은 인생을 더없이 충만하게 사는 기술이 되고, 무분별한 소비주의 삶에 대한 반성과 다음 세대와 전 지구적 자원의 환경 윤리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여유와 행복을 향한 삶의 새로운 방식이다. 채움보다는 비움을, 성공보다는 성장을 바라는 진정한 삶의 미니멀리스트로 인해 세상은 맑고 향기로울 것이다.

〈건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

김원숙 교수는
'미재'(渼滓)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불교미술학자다. 현재 건국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로 출강하고 있으며 동탄후마니타스아카데미 대표직을 맡고 있다. 그외 영남대 박물관 특별연구원,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길 위의 인문학-미재와 떠나는 행복한 미술여행', 서울시시민대학 강좌, 화성시립도서관, 오산시립도서관, 군포시립도서관, 남양주시립도서관, 동해시립도서관 및 미술관 등에서 시민대상 인문학 강좌를 진행해왔다.



부처와 君子, '이타행' 통해 완성



임종욱의
붓다와 마주한 인생독법

① 부처와 공자, 그리고 우리들의 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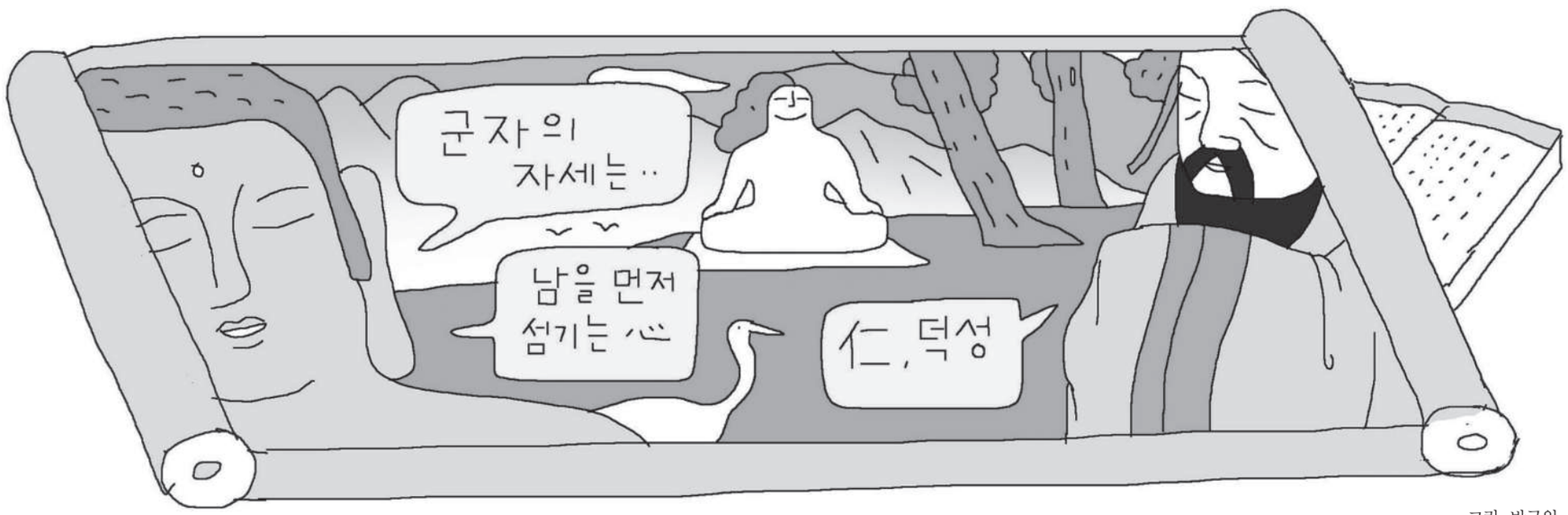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새로움과 만남, 그리고 공동체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고작 하루 차이, 아니 일 초의 간격에 지나지 않는데도 기묘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사람이 멋대로 나눈 시간일 뿐이지만 사람들은 거기서 어떤 울림을 느낀다. 강물이 굽이치며 울려야 그 존재를 주목하듯이 시간도 굽이칠 때가 있어야 그 시간의 의미를 응시하게 되는 듯하다. 이렇게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무엇을 지표로 삼아 살아야 할지 되새기게 된다.

지루하고 번잡했던 서울 생활을 털어버리고 경남 남해군에 내려온 지도 일곱 해째가 된다. 그 새 여러 일이 있었다. 책을 몇 권 냈고, 진주교육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고, 이사를 몇 차례 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이제 이 글을 쓴다. 다 시절인연이 닿아 거둔 수확이겠다.

따져보면 지난 여러 해 동안 했던 나의 일이란 게 '만남'이란 말로 수렴되는 듯하다. 책을 통해 독자를 만나고, 강의를 통해 학생을 만나고, 이사를 해서 이웃을 만나고, 글을 통해 도반(道伴)을 만난다. 다 좋은 만남이랄 수는 없지만, 만남은 어쨌거나 이로운 일이란 생각이 든다.

인연이란 참 소중한 것이라서, 내가 좋다고 마냥 만날 수도 없고 싫다고 아예 안 볼 수도 없다. 이래저래 버거운 일이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만들지 말라. 싫어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고,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다"고 설파했는가 보다.

우리는 한 평생을 살면서 몇 명의 사람이나 만나게 될까? 지구상의 인구가 60억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 우리는 기껏해야 천 명도 안 되는 사람들과 어우러지며 살다 죽는다. 당장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 명단을 헤아려보라. 천 명은 고사하고 그 반도 안 된다. 게다가 이름을 보고도 누군지 떠오르지 않는 사람도 수두룩하다. 그러니 만나 안다는 일이야말로 고귀한 축복이 아닐 수 없다.

만남에 대해서는 공자도 〈논어〉 '술이편'에서 "세 사람이 길을 가다 보면 그 안에 반드시 스승될 이가 있다. 착한 사람은 본받아서 스승이고, 못된 사람은 내 허물을 고칠 수 있으니 스승이다."고 말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의 반은 선인(善人)이고 반은 불선인(不善人)이라지만, 내가 선인을 많이 만났다면 전생에 많이 쌓은 적덕이 베푼 행복일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남을 보면서 얻는 경험이요 판단이다.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은 분명한데, 나만으로 세상을 살아갈 도리는 없다. 내가 있어 남이 있듯이 남이 있어 내가 있다. 시야를 바꿔 남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둘러보자. 나는 과연 남에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선인'인 것일까? 참으로 섬뜩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새해는 해도 새롭지만, 나도 새롭게 태어난다.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만남을 가진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마음을 다잡는다. 어쩌면 인간은 일생에 한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매초 매시간 다시 태어나는 존재일 듯도 하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한갓 미물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부처 또한 매한가지일 것이다. 미물과 부처도 찰나의 순간마다 다시 태어나 스스로를 새롭게, 새롭게 갈고 닦으리라. 그리하여 미물도 부처가 되고, 부처는 더욱 큰 부처가 되는 게 아니겠는가.

부처와 공자는 어찌하여 위대할까

우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생명을 받아 처음 태어날 때 외쳤던 일성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 우주 위와 아래에서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선언이다. 이 말에 이어 석가모니는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즉 "온 세상 중생들이 다들 괴로움 속에 놓였으니, 내가 마땅히 이들을 편안케 하리라"는 말도 남겼다. 이 말은 이생에서의 석가모니가 한 말이 아니라 첫 번째 전생인 비바시(Vipassi, 毘婆尸) 부처의 일화에서 나온 것이라는데, 중국에서 경전이 한역되는 과정에서 와전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부처 역시 항상 새로 태어나는 존재로 본다면 그것이 어느 때인들 무슨 상관이랴.

나는 이 말을 되새길 때마다 첫 번째 두 구절만 기억하고 이어지는 두 구절은 덮여버린 것이 아쉬웠다. 석가모니는 '나'의 소중함을 역설하면서 남과 함께 어깨를 비비며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다. 자리행(自利行)과 이타행(利他行)은 별개가 아니라 한 몸인 것을 자각하라고 죽비로 등짝을 세게 내리치면서 베푼 가르침이었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참다운 나로 존립할 수 있음을 반추하도록 이끈 말씀이었다.

〈장아함경(長阿含經)〉에는 첫 발성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실려 있는데, 석가모니는 태어나자마자 일곱 걸음을 걸은 뒤 "천상천하 유아위존 요도중생 생로병사(天上天下 唯我爲尊 要度衆生 生老病死)", 즉 "이 우주 위와 아래에서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 오로지 중생들을 생로병사의 질곡에서 구해낼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큰 차이는 없는 발언이지만, '고(苦)'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타산적인 중국인다운 번역이란 생각이 든다.

우리는 모두 학교를 다녔을 것인데, 학교마다 교훈이란 게 있다. 내게 가장 인상 깊었던 교훈은

남을 편하게 하려는 '佛心'
공자가 설한 '仁'과 맞닿아
"깨달음 씨앗 쟁기질 하자"

배재중학교의 교훈인데(내 동생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라"로 기억한다. 가장 편한 우리말로 가장 깊은 진리를 담았다. 석가모니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서 부처가 된 것은 아니다. 남을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 남을 섬기는 마음이 있었고, 이를 실천했기에 부처가 된 것이다.

공자에게 있어 이런 부처에 해당하는 존재가 있다면 군자가 아닐까? 〈논어〉에는 이 군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장광설이 끝도 없이 펼쳐진다. 공자는 세상의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 보는데, 성현(聖賢)과 군자, 그리고 소인(小人)이다. 계층이 아니라 인격을 바탕으로 삼은 구분이다. 〈계씨편〉에서 공자는 성현(원문은 '上'이다)은 "나면서부터 아는 이(生而知之者)"라 했고, 군자(원문은 '次')는 "배워서 아는 이(學而知之者)"라 했으며, 소인(원문은 '下')은 "답답해하면서도 배우지 않는 이(困而不學)"라고 규정했다. 내가 조금 고쳐 푼 것이지만, 대의에서 큰 다름은 없을 것이다.

군자로만 국한해 더 살펴보면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는(過則勿憚改)"(〈학이편〉) 사람이라 했고, 군자는 "남의 아름다움을 이뤄주지만 남의 악함을 이뤄주지는 않는다(成人之美 不成人之惡)"고 했다. 군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데에도 적극적이지만, 남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주는 데도 소홀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천은 무엇일까? 공자는 그것을 인(仁)에서 찾았다. 인이란 남을 위해 발현하는 덕성(德性)이다. 인을 가장 잘 설명한 말로 나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는 말을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나도 싫고 남도 싫지만 꼭 해야 할 일이라면 누가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달은 나, 즉 군자가 하라는 말이다.

석가모니는 나면서부터 나의 존귀함과 남의 소중함을 깨치셨으니 성현이고, 공자는 뒤늦게 공부하여 도를 알았으니 군자로구나 생각할 수도 있다(〈위정편〉에 보면 공자는 열다섯이 되어서야 배움에 뜻을 두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차이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석가모니도 인간이라면 겪어야 하는 생로병사의 고통을 보고서야 깨달음을 얻었으니 이생에서 배움의 길을 거친 셈이다. 그 깨달음의 씨앗은 부처나 공자나 모두 잉태되어 있었던 것이다.

우리 모두 부처가 되고 공자가 되자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을 교화해 구제하려 했던 보살의 태도나 치군택민(致君澤民)하려 했던 군자의 지향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과 공자의 가르침에서 출발했다. 세상의 제도나 논리가 바뀌었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질 리는 없다. 한 송이 꽃에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처럼 부처님의 말씀과 공자의 가르침을 알곡을 고르듯이 낱낱이 읽고 이를 꼼꼼히 실천한다면, 그 안에서 연화장세계와 대동세상은 빛나게 결실을 맺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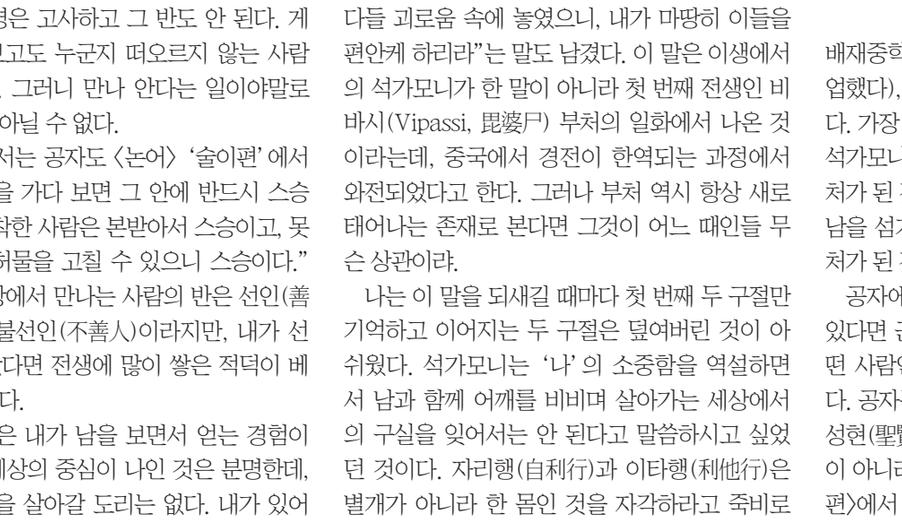
새해를 맞는 아침에 우리들은 첫 날 떠오르는 해를 만나려 집을 나서 먼 길을 떠난다. 탁 트인 동해 바다에서 파도를 가르며 솟아나는 해를 품기도 하고, 하늘과 닿을 듯 높은 산봉우리에서 운무 속에 춤추며 떠오르는 햇살의 기운을 마시기도 한다. 나 역시 남해에 살면서 이따금 새해를 반기려고 남해의 영산 금산(錦山)에 오르곤 한다. 보리암에서 만나는 해는 부처님의 넉넉한 미소만큼이나 은은하게 오래도록 마음을 적신다. 더욱이 올해는 새 글을 써서 새 도반들과 새로 길을 여는 시작이다.

우리들이 해를 찾아 새벽 밤길을 더듬는 일은 마치 미망(迷妄)의 어둠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모색하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말씀, 공자와 그 훌륭한 계승자들의 언행을 밭을 갈 듯 쟁기질하라고 권하고 싶다. 이 글이 그런 농사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다시 세모가 왔을 때 우리가 부처의 터전에 성큼 다가와 있고, 공자의 울짱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선뜻 왔음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소설가〉

임종욱 소설가는
1962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국문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2005년부터 소설을 쓰기 시작했으며, 2012년 김만중문학상에서 〈남해는 잠들지 않는다〉로 대상을 수상했다. 이후 남해에서 창작과 연구를 병행하고 있으며 진주교육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문학과 작문을 가르치고 있다. 불교 저서 〈우리 고승들의 선시 세계〉와 〈중국역대불교인명사전〉, 여러 편의 선시 관련 논문들이 있다.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 종도모집

(사)대한불교 대경조계종은 본종에 등록한 사암의 재산에 대하여
일체관여하지 않는 종단으로 사암 및 종도님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지원을 하면서 고통
또한 같이 감내하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불교발전과 포교에 수희 동참하실 사암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 입종구비서류 ◆
① 사찰 및 승려등록신청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④ 사암 안팎 사진 1매(사찰등록 하실분)
⑤ 타 종단 수계첩 또는 승려증 사본 1부

◆사찰 및 종도님께 발급하는 서류◆
① 사암 가입증명서
② 주지 임명장
③ 승려증(법사증)
④ 간부스님에 한하여 위촉장 또는 추대장을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모든 종도님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정책에 반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社團法人 大韓佛教 大京曺溪宗
종무원 : 경북 안동시 향교1길 27-15 (송천동) 천룡사 ☎: 054)823-6777 H.P : 010-4053-2722

서역서 온 선지식, 禪을 열다



정운 스님의
禪의 르네상스 이끈 선지식들

① 중국 선종과 달마



소림사 소실산 유봉 중턱에 있는 달마동 입구. 달마동은 길이 7m, 넓이 3m의 천연동굴로 달마 스님이 9년간 면벽했다고 전해지는 곳이다.



소림사 도량 내부에 모셔진 달마상.

이 연재의 원고는 과거 역사상 불교의 선지식들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다. 과거의 위대한 선지식이 있었기에 현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불교의 면모가 점점 되살아나고 있다. 먼저 중국 불교의 현 주소를 엿보기로 하자.

10여 년 전, 중국은 지린성(吉林省)의 리훙즈가 창시한 파룬궁(法輪功) 신자들에게 엄청난 종교 탄압이 있었다. 그렇다면 현 중국에서 종교를 부정하고, 신앙을 허락하지 않는가? 한마디로 대답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중국은 어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않으며, 어떤 종교를 선택하든 간에 자유이다. 현재 중국에서 승인하는 종교는 불교 · 도교 · 이슬람교 · 기독교 · 가톨릭이다.

다만, 허가된 곳이 아닌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되며, 외국 승려와 선교사 활동을 금한다.

몇 년 전 중국의 종교 신자 현황을 보면, 불교와 도교신자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이슬람교도 1800여만 명, 라마교도 700여만 명, 가톨릭교도 530만 명, 기독교도 2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불교와 도교 신자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은 추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유교는 종교로 분류하지 않으며, 중국에서 승인한 종교 가운데 도교 이외에는 모두 외래종교이다. 도교는 중국의 자생종교요, 중국인들의 민속신앙 속에 자리 잡은 종교이다. 하지만 도교는 중국인들에게 불교보다 낮은 평가를 받으며, 한 지역에서 도교 사찰은 불교 사찰에 비해 매우 열세하다. 중국의 역사학자이자 세계적인 문화평론가인 위치우위(余秋雨, 1946~)는 불교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였다.

"중화문화의 핵심을 이루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마치 모세혈관이 피부 끝까지 뻗어 있는 것처럼 불교의 자취가 곳곳에 자리하여 그 어떤 문화보다 훨씬 더 크게 활약하고, 훨씬 더 유효했다."

–〈중화를 찾아서〉 p.330中

중국에 불교가 유입되기 이전 유학과 도교가 먼저 존재했다. 불교교리로 인해 중국의 사상계는 크고 넓은 시야로 발전되었다. 불교는 송대의 성리학이나 명대의 양명학에 영향을 끼쳤다. 한편 불교는 도교의 의례와 교리를 발전시키는데도 큰 공헌을 했으며, 도교 경전은 불교의 경전을 그대로 본 따서 만들었다. 그만큼 불교는 중국에 유입된 이래 중국인들의 정신 사유를 바꿔 놓았다고 볼 수 있다.

근자에 신문지상을 통해 중국불교에 대해 여러 이설이 나오지만, 필자가 직접 보고 느낀 중국의 불교는 날씨로 치면 '맑음'이다. 물론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 불합리한 점이 많지만, 사찰불사 · 중국 승려들의 외국유학 · 승려교육 체계 · 불학 · 중국인들의 불심 등은 사회주의 국가 이래 눈부시게 발전되고 있다.

중국불교사서 선종의 위치

중국에 불교가 전파된 경로는 여러 이설이 있지만, 역사적인 전거에 의하면 후한의 효명제(58~75 재위) 시대라고 본다. 이후 중앙아시아, 인도 등지에서 건너온 승려들에 의해 경전이 한역되었다.

전래된 불교 경전은 도교적인 바탕 위에 한역(漢譯)이 이루어져 격의불교(格義佛教)라고 한다. 남북조 시대 때, 승려 도안(道安, 312~385)과 혜원(慧遠, 334~416)에 의해 중국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이 무렵 구마라집(344~413)이 중국에 온 이래 소 · 대승 경전을 한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역경 이래 중국 문화가 반영된 격의불교의 한계성이 극복되었다. 구마라집 이후 현장(602~664) 법사도 인도에서 17년간을 지낸 뒤 돌아와 한역하였다. 구마라집과 현장 이외 인도와 서역에서 온 수많은 역경가들과 중국 승려에 의해 경전이 번역되었다. 이 한역된 경전을 중심으로 종파가 성립되었는데, 대표적으로 8종이다. 즉 천태종 · 법상종 · 밀교 · 남산율종 · 삼론종 · 정토종 · 화엄종 · 선종이다.

이렇게 중국에서 발전된 8종은 중국화된 불교로 탈바꿈된 사상들이다. 이 가운데 정토종과 선종이 8종 가운데 가장 늦게 성립되었지만, 이론과 실천적인 측면을 겸비하여 근자에까지 동아시아 전반에 최대의 종파를 형성하고 있다. 물론 한국불교 전반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선종(禪宗) 측면에서는 어떠한가? 선종은 현 대한불교조계종의 연원이 되기도 한다. 선사상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청담과 현학 사상운동으로 나타났고, 륵나마제 · 보지공(418~514) · 부대사(497~569) 등 선자(禪者)들이 있었다. 즉 선종은 달마가 520년 중국에 들어온 이래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선사상은 달마 이전부터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다.

선종 초조 달마, 실제 인물인가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이 필자를 찾아왔다. 그의 목적은 달마도를 구하고 싶다는 것이다. '왜 그러냐' 고 했더니, 수맥차단용으로 달마도를 집에 걸어놓고 싶다는 취지이다. 아이러니한 이야기다. 오롯한 선수행자인 달마가 중생들의 기복용으로 그림이 활용된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현상이다. 하기야 나말여초 구산선문 가운데 하나인 사굴산문의 범일(梵日, 810~889) 국사가 영동지방 강릉 단오제의 주신(主神)으로 모셔져 있다. 달마선사와 범일국사가 중생들의 귀의처로 모셔진다는 것,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

불교, 中 정신 사유 바꾼 종교
한역 경전 중심 8대 종파 발생
선종 뒤늦게 성립… 후대 번창

선사상, 달마 전부터 존재하지만
中선종 시조이자 큰 위치 '분명'
실제 인물… 일화 중 허구 존재

그렇다면 달마는 어떤 존재인가? 달마만큼 중국 선종사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인물도 드물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달마는 선의 시작점이며, 달마의 사상은 중국 선사상의 근원을 이루기 때문이다.

어록이나 공안에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가 많이 등장한다. 여기서 조사는 달마를 가리키는데, '달마가 서쪽으로부터 중국에 온 이유는 무엇이냐' 는 뜻이다. 단순한 어구적인 해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의 본질은 무엇인가' , 수행코자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란 무엇이냐' 가 담겨 있다. 바로 이런 전제 아래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선문답을 하고 있다. 그만큼 달마라는 인물은 어떤 존재이냐를 떠나서 선의 근원이자, 본질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달마에 관한 전기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문헌은 도선(道宣, 596~667)의 〈속고승전(645년)〉이다. 〈속고승전〉보다 조금 늦은 시대의 〈전등록〉조차도 달마는 선종 시조(始祖)로서의 사명을 짊어진 이상형의 모습일 뿐이다.

예를 들어 달마가 처음 양무제와 조우했을 때이다. 양무제가 달마에게 자신은 '스님들을 돕고 불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 자신에게 공덕이 얼마나 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달마는 양무제에게 '공덕이 하나도 없다' 고 답했다.

또한 달마가 숭산 소림사로 들어가 9년간 면벽하고 있을 때, 혜가가 찾아와 법을 구하였다. 눈이 오는 날, 혜가는 팔을 잘라서 달마에게 구도력을 보여주었다. 한편 달마는 당시 선사였던 보리유지와 광통율사의 질투를 사서 독살되었는데 관속에 한 짝 신발만 남겨둔 채 인도로 돌아갔다. 이외에 달마와 관련해 재미난 일화가 많다. 그런데 모두 허구이다. 달마에 관한 일화 등이 후대 조사상(祖師像)에 대한 시대적인 요청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달마가 역사적 실제 인물이 아닌 가공인물인가? 한 마디로 답하면 달마는 실제 인물이다. 학계에서는 최초로 달마가 실제 인물이라는 사실을 양현지(楊衒之)의 〈낙양가람기〉를 증거로 한다. 즉, 권1 '영녕사조(永寧寺條)'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한다.

"달마는 멀리 변방 지역에서 태어나 우리나라를 유람하다가 북위의 수도 낙양의 영녕사 탑의 금반에 해가 비쳐 그 광채가 구름 위에까지 퍼지며 보탑(寶鐸)이 바람에 흔들리어 울리니 그 소리의 여운이 中天에까지 미치는 모습을 보고, 달마가 '나는 150살이 되도록 여러 나라를 두루 다녔으나 이 절은 매우 아름답다'고 말하며 입으로 '나무(南無)'라고 염불하면서 연일 합장하였다."

〈전등록〉에서도 "달마는 후위(後魏) 여덟 번째 임금인 효명제 19년에 열반에 들었는데, 이때 나이가 150세요, 장사는 하남성(河南省) 웅이산(熊耳山)에서 지냈으며 양무제 아들 소명태자가 제문을 지었다"고 하면서 달마의 탑을 정림사(定林寺)에 모셨다고 명기하고 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삼문협 웅이산(三門峽 陝縣 西李村 陡溝 熊耳山)에서 달마의 석비와 묘탑이 발견되었다. 석비에는 "달마는 대동(大同) 2년(536년) 12월 5일에 낙주(洛州)의 우문(禹門), 현재의 용문석굴에서 입멸했다"라고 적혀 있어 문헌과 조금 상이한 점이 있다.

달마의 행적을 살펴보니

〈속고승전〉에 기록된 달마의 모습은 이러하다. "달마는 남천축의 바라문 종족으로 신령스러운 슬기가 밝고 트이어 듣는 것은 모두 환하게 깨달았다. 대승에 뜻을 두어 마음이 허적(虛寂)함에 명합(冥合)하였으며 미묘함을 통달하여 많은 수행자들이 그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변방의 사람들을 가엾이 여겨 법을 중국에 전하고자 송(宋)의 남쪽 국경인 남월(南越)에 이르렀고, 후에 북지(北地)로 옮겨가 위(魏)에 이르렀다."

달마가 중국에 들어오기 이전 선자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선을 신선방술적이고 초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도선의 중국적 변용은 천태종의 천태 지의(538~597)이지만, 선을 신이(神異)한 이미지로 알고 있는 중국인의 사유를 완전히 승화시킨 이는 보리달마에 의한 중국 선종의 성립이다.('선종' 이라는 종명을 쓴 것은 황벽 희운의 〈전심법요〉에서 처음 사용.)

〈역대법보기〉에 의하면, 달마가 제자들에게 법을 인가하는 부분에 대해 피(皮) · 육(肉) · 골(骨) · 수(髓)의 부법(付法)이 전한다. 어느 날 달마가 제자들을 모이라고 한 뒤에 '선을 통해 얻은 바를 말해 보라' 고 하였다. 제일 먼저 도부(道副)가 말했다.

"문자에 착(着)하지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는 것으로 도를 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다."

총지 비구니에게는 '그대는 살을 얻었다' 라고 했으며, 도육에게는 '뼈를 얻었다' 고 하였다. 마지막 혜가에게는 '골수를 얻었다' 라고 한 뒤, 그에게 법의 신표로 가사를 전했다. 이리하여 달마의 법은 2조 혜가에게 전해졌다.

〈조계종 불학연구소장〉

정운 스님은
명우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4년 수계했고,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동국대서 석 · 박사를 받았고, 2011년부터 시작된 종단 교육아사리로 위촉돼 활동해왔다. 현재는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소임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구법〉 〈동아시아 선의 르네상스를 찾아서〉 〈경전숲길〉 〈경전의 힘〉 등이 있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재)대한불교관음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대덕산 백 련 사
종무원장 법 웅
사 부 대 중 일 동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동
진밭길 2948-24(백련사)
TEL 053)781-3784, 053)781-311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신도회
신도회장 장 세 철
사 부 대 중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도학동 35)
TEL 010-3510-9985
사무국장 이달용

高靈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보현사
신용협동조합
스님…
대출이 필요하 십니까?
스님들의 고민!!!
30년의 전통 전국유일의 불교신협
보현사신협이 확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찰매매 잔금 대출
불사자금 대출
기타 대출상담
自利利他(자리이타)
남도 이롭게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대구 중구 중앙대로 67길 10(상가101호)
보현사신협 문의 : 053)428-1133

말없이 미소로 주고받은 法



新 불교사자성어

② 염화미소(拈花微笑)

'꽃을 들어 보이자 미소를 지었다'는 뜻이다. 염화미소를 다른 말로는 '염화시중(拈花示衆, 꽃을 들어서 대중에게 보이다),' 또는 '염화일소(拈花一笑)'라고도 한다. '화(花)'자 대신 '화(華)'자를 사용하여 '염화미소(拈華微笑)'라고 하기도 한다.

'미소(微笑)'는 '말 없는 웃음' '소리 없이 웃는 웃음'이다. '가장 아름다운 웃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말로 형용하면 '빙긋 웃는, 입가의 엷은 웃음'을 뜻한다. 의미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미소 가운데는 '백제의 미소' '천년의 미소'라고 하는 '반가사유상의 미소'가 있다. 국보 78호와 국보 83호의 두 반가사유상의 미소는 시공을 초월하여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일본 교토 고류지(광륭사)에도 똑같은 반가사유상이 있지만, 백제의 미소까지 그려내지는 못했다고 일본 미술사학자들도 토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불교사자성어, 불전고사성어(佛典故事成語)에는 일화가 얽혀 있는데 염화미소 역시 예외는 아니다. 〈대범천왕문불결의경(大梵天王問佛決疑经)〉 제3권 '여화품'에서 염화미소의 태동을 찾을 수 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축산(영취산, 기사굴산) 정상에 있는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설법을 하실 때의 일이다. 고대 인도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가하(왕사성) 동북쪽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자리한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전을 설하신 곳으로도 유명하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마하가섭, 수보리, 사리불, 목건련, 아난 등 10대 제자를 비롯하여 많은 제자들이 모였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시기 위하여 법상에 오르셨다. 그런데 법상에 오르신 지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응시하고 계셨다. 이것을 선에서는 '양구(良久)' '묵연양구(默然良久)'라고 한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법문 대신 '앞에 있는 꽃을 한 송이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전례 없는 부처님의 행동에 그 까닭을 모르는 대중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다. 바로 그 때 수제자(首弟子) 마하가섭이 미소(微笑)를 지어 보였다.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인 의미를 오직 마하가섭만이 알아차렸던 것이다.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의 미소를 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에게 있는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 실상무상(實相無相),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教外別傳)의 심오한 이치를 마하가섭에게 부촉한다."(〈대범천왕문불결의경〉 제3권 여화품).

정법안장이란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의 진리, 정법의 진리, 반야지혜를 가리킨다. 정법안장을 가섭 존자에게 부촉한다는 것은 곧 가섭에게 법을 전한다는 뜻이다. 염화미소는 부처님과 제자 가섭의 마음이 상통했음을 뜻한다. 그것을 선불교에서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고 하는데, 주로 스승과 제자의 깨달은 경지가 거의 같을 때, 그리하여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전할 때 사용한다. 언어 문자가 아닌 마음이 통하여 마음으로 진리, 정법안장을 전했다는 것이다.

중국의 선불교는 이 '염화미소'의 고사(故事)에서 발원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외별전(教外別傳, 경전 외에 특별히 전한)의 미소'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불교(선종)의 초조는 보리달마이고, 2조는 혜가인데, 이들이 모두 선(禪)의 법맥 상으로는 부처님께서 염화미소로 가섭에게 전한 불립문자, 교외별전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역사적 사실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염화미소는 선수행자들이 참구한 공안(화두)으로도 널리 전해졌다. 선종(禪宗)의 여러 어록과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데, 선의 대표적인 공안집인 〈무문관(無門關)〉 제6칙에 '세존염화(世尊拈花)'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말이 많은 세상, 말과 매체가 수도 없이 널려 있어도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세상, 소통하기 힘든 세상이다. 오로지 자기주장, 자기생각만 옳다는 것은 우치(愚癡)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덕산의 방망이 삼십 방



격절록 강설

② 제1칙 덕산시중(德山示眾)

[古則과 着語]

擧, 德山示眾云 "今夜不答 (言猶在耳) 問話者 三十棒" (打云 "喫棒了也") 時有僧出禮拜 山便打 (忘前失後漢) 僧云 "某甲話也未問" (却較些子) 山云 "你是甚處人" (換却眼睛) 僧云 "新羅人" (却換德山眼睛) 山云 "未踏船舷 好打三十棒" (大小德山 作這般去就) 法眼拈云 "大小德山話 作兩橛" (漆桶夜生光) 圓明拈云 "大小德山 龍頭蛇尾" (烏 龜鑽破壁)

덕산이 대중에게 말했다. "오늘 밤엔 대답하지 않겠다. [이 말이 아직까지도 귀에 쟁쟁하다.] 묻는 자는 삼십 방이야!" [(선상)을 치고 말했다. "(이미 삼십) 방망이를 먹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나와 절을 하자, 덕산이 바로 쳤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된 놈이로다!]

스님이 말했다. "저는 아직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은 괜찮군.]

덕산이 말했다. "그대는 어디 사람인가?" [눈동자를 바꿔버리는구나!]

스님이 말했다. "신라 사람입니다." [도리어 덕산의 눈동자를 바꿔버렸다.]

덕산이 말했다. "뱃머리를 밟기도 전에 30방을 쳤어야 했다." [덕산정도 되는 양반이 맨날 이런 식이군.]

법안이 염(拈, 거론)해서 말했다.

"별 것 아닌 덕산의 말이 두 개의 말뚝이 되었다." [칠통 같은 밤에 빛이 난다.]

원명이 염해서 말했다.

"별 것 아닌 덕산이 용두사미가 되었도다." [와(烏)! 거북의 등을 뚫고 벽을 부수는구나.]

[拈古와 着語]

雪竇拈云 "二老宿 雖善裁長補短 舍重從輕 (錯 下名言) 要見德山 亦未可 (還曾夢見德山麽) 何故 德山大似握闔外威權 有當斷不斷 不招其亂底劒 (險) 諸人要識新羅僧麽 (莫是闍黎) 只是撞著露柱的瞎漢" (自領出去)

설두가 염해서 말했다.

"두 노장(법안과 원명)이 아무리 긴 것을 재단해서 짧은 것을 보완하고, 무거운 것은 버리고 가벼운 것을 따르는 것은 잘 했어도 [착(錯, 틀렸다)! 하지만 명언을 했다.] 덕산을 보고자 했지만, 역시 보지 못했다. [(설두 스님은)꿈속에서라도 덕산을 본 적이 있소?] 왜냐하면 덕산은 마치 변방의 장군이 위엄과 권위를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험(險, 위험하다)!] 대중은 신라 스님을 알고자 하는가? [혹시 스님(설두)이 아니오?] 단지 노주(露柱)에 부딪친 눈 먼 놈일 뿐이다." [(스님이나)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관가에) 출두하시오!]

*덕산(德山)은 덕산선감 선사로, 용담숭신의 법을 이었으며, 주금강(周金剛)이라고도 불렸다.

*법안(法眼)은 법안종의 개조 법안문익, 원명(圓明)은 운문문언의 법을 이은 덕산연밀 선사를 뜻한다.

*원문의 대소(大小)는 문맥에 따라 달리 표현하였음을 밝혀둔다.

*'마땅히 끊어야 할 때 끊지 않아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는 검'은 결단하여야 할 때에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오히려 난을 당하게 된다(當斷不斷 反受其亂)는 사마천의 〈사기(史記)〉 '춘신군전(春申君傳)'에 나오는 말을 인용한 것이다.

*자령출거(自領出去)는 선가에서는 주로 자기의 일을 자백하는 뜻으로 쓰이는데, 위에서는 직역을 하였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② 믿음(信) 편 2

종교는 믿는 것인가, 아는 것인가?

종교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를 믿는 체계다. 그 무엇에는 종교를 창시한 교주(教主)와 그의 가르침인 교리(教理), 그리고 교주와 그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교단(教團)이 포함된다. 이를 가리켜 종교의 3대 요소라 한다. 불교의 경우 교주인 석가모니 붓다(佛)와 그 가르침인 법(法), 교단인 승가(僧)가 이에 해당된다. 대개의 종교는 이 셋을 갖추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종교적 믿음은 불완전한 믿음이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종교적 믿음이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체계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사실 여부에 대한 분명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보류하면 된다. 그러나 종교는 이런 검증체계를 통해서 신이 존재하는지, 전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신앙과 과학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카테고리의 벽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처럼 종교는 검증의 체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서구 중세 신학자들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무려 천 년에 걸쳐서 존재론적 증명, 우주론적 증명, 도덕론적 증명 등 어렵고 복잡한 시스템을 고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다. 예컨대 존재론적 증명을 삼단논법을 통해 정리하면 이렇다.

대전제 : 신은 완전자이다. **소전제** : 완전하기 위해서는 관념 속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존재해야 한다. **결론** :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완전자, 즉 완전한 존재라는 신의 개념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실제로도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완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린 아이가 도화지에 사과를 그렸다고 해보자. 그림 속 사과와 실제 먹을 수 있는 사과 중에 어느 것이 더 완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실제로 눈앞에 있는 사과가 더 완전하다. 이처럼 신도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해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를 타당한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결론이 타당하려면 전제들이 옳거나 사실이어야 하는데, 신의 완전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증명은 전제 속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곧 인간의 이성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는 지적 오만이 부른 무모한 시도일 뿐이다. 일종의 범주의 오류(category mistake)라고 할 수 있다.

중세 신학자들의 이러한 시도들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를 통해 종교는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다. 즉 신앙과 이성은 서로 카테고리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종교는 믿음의 대상이지 결코 검증의 대상이 아니다. 검증을 통해 신의 존재나 전생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이처럼 종교적 신앙은 일반적 의미의 앎, 즉 지식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지식은 경험적이든 분석적이든 검증을 통해 그것이 옳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신이나 내세가 존재한다는 종교적 언명들이 검증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이 역시 지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는 이성과 경험을 통해 어떤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일이 아니다. 이는 불교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다. 전생의 존재여부를 지구 밖에 금성이 있음을 밝히는 것과 같이 확인할 수는 없다. 모든 종교는 과학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가르침이다.

결론적으로 종교는 믿는 것이지 아는 것이 아니다. 종교적 믿음을 과학이나 이성을 통해 검증하려는 태도는 난센스(nonsense)라 할 것이다. 종교적 믿음에는 지식과는 견줄 수 없는 삶의 중요한 의미들이 가득 들어있다. 사람들이 종교를 신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글들은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동방불교대학 2019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공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리드하는 동방불교대학이
새로운 인재를 기다립니다.

교육비 안내
- 전형료 : 5만원
- 입학금 : 20만원
- 등록금 : 학기당 100만원

모집요강

1. 본교는 본 종단의 종법(교육법 제19조/22조)이 정한 기본교육기관으로서 출가득도자의 의무교육기관이다.
2.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승적취적 및 법계 등 각종 자격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는다.
3.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할 승려는 본교에 입학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해야한다.
4. 범패학과 신입생은 매년 1학년 입학을 원칙으로 한다. (편입학불가)
5. 본교가 개설하고 있는 모든 학과 공히 출가자(사미·사미니 포함)와 재가자 모두 응시 가능하다.
6. 본교는 한국불교태고종이 설립한 종도양성 의무교육기관으로서 정부당국의 인가여부와 무관하다.

모집인원 및 편제 〔 접수인원 미달 시 폐강될 수 있습니다 〕

학 과	모집인원	편 제	비 고
불교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범패학과	00명	2년제	정규반

전형일정 〔 입학전형의 서류심사는 학사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

구 분	날 짜	장 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8. 12. 17(월) ~ 2019. 02. 08(금)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www.dongbang.org
서류심사 결과통지	2019. 02. 14(목)	개별통지 www.dongbang.org
합격자 발표	2019. 02. 20(수)	개별통지 www.dongbang.org

지원자격 : 본교 지원자는 공히 다음 사항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1. 본 종단의 합동득도수계산림을 통해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 및 정사(재가승)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2. 본 종단으로 전종하여 입적한 승려로서 교육이수의무 대상자
3.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4. 본 종단 간부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불교교학·불교의식을 수학하고자 하는 자

특 전 1) 동방불교대학 졸업시 선덕 법계 품수 2) 동방불교대학 졸업생이 사교,대교(2년) 졸업시 중덕 법계 품수

접수서류 및 접수방법

학 과	제출서류	제출방법
공 통	① 입학원서(소정서식) 1부 ②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수계증 사본 1부(해당자) ⑤ 승적증명서 1부(해당자) ⑥ 종단간부 추천서 1부(해당자) ⑦ 사진: 반명함판 3매, 명함판 2매 (득도수계자는 가사장삼 수한 모습)	•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발송 접수 • 접수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Tel 02) 745-2030 교학과장 010-7236-0900

동방불교대학 Dongbang Buddhist College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31 (사간동112) | 우 03062

www.dongbang.org
Tel 02) 745-2030
010-7236-0900
Fax 02) 739-3470



지성 대종사 21주기 추모재

선운사 "가르침 잊지 않고 정진"

조계종 24교구본사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4일 동안거 포살법회와 태허당 지성 대종사 21주기 추모재를 봉행했다.

선운사 지장보궁에서 열린 이날 포살법회에는 선운사 대중스님들과 참당암, 도솔암, 석상암 등 산내암자 스님들, 선운사 불학승가대학 학인스님, 말사 스님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포살법회는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 강주 재연 스님을 포살법사로, 예경삼보에 이어 조계종단의 〈범망경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 독송이 진행됐다. 사부대중은 계율을 준수하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원력을 다짐했다.

한편 포살법회 후에는 선운사 주지를 역임하며 선운사의 중흥을 이끌었던 태허당 지성 대종사 21주기 추모재가 봉행됐다. 추모재에는 선운사 한주 재곤, 재덕 스님 등 원로스님들과 법경 스님, 법만 스님을 비롯한 문손스님,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해 지성 대종사의 유지를 기렸다.

태허 스님의 문도를 대표해 경우 스님은 "스님의 낭랑한 염불소리와 경책의 말씀이 귓가에 맴도는데 벌써 21주기를 맞았다"며 "생전 스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종단 발전 매진하는 해로"

원효종, 1월 9일 신년하례법회

원효종이 새로운 다짐으로 새해를 열어가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대한불교원효종(총무원장 우석)은 1월 9일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정광 스님과 원로원장 창혜 스님, 총무원장 우석 스님, 종회의장 운오 스님, 부산교구원장 석불 스님, 종단 소임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했다.

종정 정광 스님은 "역사 깊은 종단 사부대중은 시작도 끝도 없는 이치를 알아 항상 불심에 젖어 실천행으로 원효보살도 정신을 결사해 나가자"고 법문했다.

총무원장 우석 스님은 "기해년 새해를 맞아 승가의 덕목인 종단의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를 올리게 돼 감사하다. 종단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함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주불교 연등축제 3일 문화행사로 확대"

Interview

신임 제주불교연합회장 석용 스님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제주 봉축 행사기간 늘려
더 많은 불교문화 체험 제공
연합회 5개 종단 화합 방점
적극 소통하며 공의 수렴도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는 한국불교만의 고유한 문화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마당입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그동안 단 하루만 축제를 개최해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앞으로 제주도 부처님오신날 행사가 하루가 아닌 3일간의 문화행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지난 1월 5일 '제주도 발전과 도민 안녕을 기원하는 신년하례법회'에서 신임 제주불교연합회장으로 취임한 천태종 문강사 주지 석용 스님. 스님은 회장 취임 각오를 본지에 이 같이 밝히며 '불교문화 창달'에 방점을 찍었다.

석용 스님은 얼마 전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63호 지화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유네스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에 필요한 장엄 전통지화부문 이수자이기도 하다.

스님은 오래 전부터 한국전통지화보존연구회장을 맡아 전통지화의 가치를 알리고, 지화를 연구하는 등 불교문화에 깊은 관심을 두고 수행해왔다. 이 같은 문화활동으로 닦은 기반이 제주불교계의 문화창달 노력으로 이어진 셈이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진 않았지만 대중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제 장기인 지화도 이에 해당하고 연등회의 가장 핵심을 담당하는 등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등 불교문화 콘텐츠는 다양하니까요.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이뤄져왔는데 이제는 제주도에도 새로운 경험의 기회가 필요합니다. 문화포교 시대에 걸맞는 일이기도 하죠."

이처럼 제주불교계의 우선과제로 '문화 확대'를 꼽은 석용 스님은 장기적으로 종합불교회관 건립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 만큼 임기 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주불교계의 한결같은 고민이라는 게 석용 스님 설명이다.

"한 단체나 조직이 지역에서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거점이 중요합니다. 거점이 없으면 구성원들이 아무리 의기투합한다고 해도 끝내 흩어지기 십상이죠. 거점을 바탕으로 산하조직들의 공간이 생기면 소속감도 더 부여되고, 주도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수월합니다. 공연장이나 전시장 등까지 갖춘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석용 스님은 끝으로 연합회 내 5개 종단(조계종 · 태고종 · 천태종 · 법화종 · 일붕선교종) 소속 사찰들이 다수 존재하는 만큼 회원 화합에도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전임 회장스님들께서도 항상 연합회 화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저 역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의를 모아내는 데 힘쓰겠습니다."

상월원각조사 107주년 탄신법요

천태종 구인사 광명전서 2만여 대중 유지 되새겨


천태종 총무원장 문덕 스님이 상월원각조사전에 헌향하고 있다.

천태종이 고려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중생구제 정신을 이어 한국 천태종을 중창한 상월원각조사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1월 3일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상월원각대조사 탄신 107주년 봉축 법요식'을 봉행했다. 법요식에는 종정 도용 스님을 비롯한 종단 스님,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홍파 스님과 사무총장 지민 스님 등 불교계 지도자, 송영길 · 오영훈 · 이헌승 · 이후삼 국회의원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정 · 관계 인사, 류한우 단양군수를 비롯한 지자체 관계자,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우리 종단의 종지종통이 3대 지표를 통해 더욱 밝게 드러나고, 주경야선의 정진으로 더욱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으니 이 모든 공덕의 뿌리는 대조사님의 자애하신 가르침"이라며 "오늘 대조사님의 탄신 107주년을 봉축하며, 모든 종도가 일심으로 대조사님의 광활하신 원력을 더욱 건실히 배우고 전해 각자의 삶을 새롭게 하고 국운을 융창케 하며 인류의 평화를 이끌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이어 총무부장 월장 스님이 문재인 대통령의 축전을 낭독했다. 문재인 대통령 축전에서 "대조사께서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며 중생구제의 큰 뜻을 세우시고 천태종을 중창하셨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 천태종 불자님들도 평화와 번영의 꽃을 피우도록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불교계 지도자, 정 · 관계 인사, 지자체 관계자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원행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부회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대조사께서는 억조창생 구제중생의 큰 원력을 펼치셨고, 천태종을 중흥하셨다. 천태종은 그 정신을 이어 이 시대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새해에도 세상의 평화가 인류의 행복을 위해 무량한 자비를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윤호섭 기자

"복된 마음으로 한 해를"

화엄사 · 순천사암연 공동 신년하례법회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와 순천불교사암연합회(회장 보리)는 1월 5일 화엄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불교단체와 학생들에게 장학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200여 대중이 참석한 신년하례법회서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복된 마음을 갖고, 불제자답게 사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고 참석 대중을 격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청년포교 활성화 기금 쾌척

송일호 동국대 교수불자회장 포교원에



송일호 동국대 교수불자회장은 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을 예방하고 아름다운동행에 청년포교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송 회장은 "한국불교의 어려운 현실은 청년불자 층이 적은 데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학생 불자를 양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홀몸어르신 돕는 강천사

1월 3일, 순창군청에 라면 100상자 기탁



순창 강천사(주지 종고)는 1월 3일 순창군청을 방문, 새해를 맞아 홀몸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준비한 라면 100상자를 기탁했다. 종고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천사는 이외에 매년 5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전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대한불교 능인종 교육원

2019학년도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능인종 교육원에서는 신라의 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 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자 합니다.

자 격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시는 분
개강일 2019년 2월 23일 오후 3시 (음력 1월 19일 토요일)
일 시 매주 월 /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주 2회 강의)
장 소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장사 (진영포교당)
수강료 월10만원(수시모집가능)
강 사 수암, 일산, 덕우(외전위주 강의)
과 목 중급반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제의식. 관음시식등, 사물 다루는 법 – 실전위주
상급반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 개인지도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장사 진영포교당 (055) 343-2267~8700
수 암 010-5488-7060

사단법인 대한불교능인종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조원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연수원장 일월 교육원장 백양 법붕 포교원장 백담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월명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58-6
전화 055)532-4414 휴대전화 010-3507-2837

‘승복 입고 운전’ 벌금 부과 논란

日 후쿠이현 경찰, “운전조작에 지장” 사유로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의 한 지자체에서 “승복을 입고 운전 시 사고위험이 있다”며 40대의 스님에게 벌금을 부과한 사실이 밝혀졌다. 구랍 2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9월 일어난 이 기막힌 사건을 특별 보도했다.

일본 중부에 소재한 후쿠이현(福井県) 경찰과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6일 오전 10시경 후쿠이현의 현도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 의해 사건이 발생했다. 스님은 “법회를 위해 가던 도중이었기에 승복을 입고 운전 중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은 스님에게 “그 복장은 운전에 적절하지 못하다”며 경고장을 발부, 범칙금 6천 엔(한화 약 6만2천원)을 부과했다. 경고장 발부사유에는 ‘운전조작에 지장이 있는 전통의복으로 운전’이라고 기입됐다.

스님은 “20년 가까이 승복을 입고 운전했지만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항상 안전운전에 주의를 기했다”며 기가 막힌다는 반응을 보였다.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시태그로 올라온 스님들의 저글링 등 묘기 영상. 사진출처=트위터

운전하며 법회 가던 스님
범칙금 6천엔 부과 논란
日 불교계 법적대응 고려
SNS에 경찰 비판 거세져

현장 경찰관과 후쿠이현경 교통지도과는 “현의 도로교통법 시행세칙에 ‘운전조작에 지장을 미치는 복장을 착용한 채 차량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며 “당시 스님은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승복을 입고 있었기에 운전조작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했다. 모든 승복이 위반인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해명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자체조사를 통해 일본 전국 47개 지자체 중 15곳에 운전 시 복장규정을 명시한 세칙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당 세칙이 잘 알려지지 않아 사찰관계자들이 종종 곤혹을 겪고 있다.

실제 같은 후쿠이현의 모 스님은 “운전할 때 소매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깨끈 등으로 고정해서 운전한다. 이런 규칙이 있는지조차 몰랐다”며 당혹스러움을 표했다. 또 다른 스님은 “도쿄나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는 위반이 아닌데,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이 오히려 이러한 규칙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범칙금을 부과 받은 스님은 자신이 소속된 정토진종 서본원사파의 총무원과 변호사 등과 상담,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찰의 독촉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일본 교통법에서는 경미한 교통위반의 경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실형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다만 교통법위반 용의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있다.

스님은 “경찰의 논리는 출근하는 회사원에게 ‘양복을 벗으라’고 명하는 것과 같다. 승복을 입고도 안전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판에서 주장하겠다”며 법원에 기소했다.

정토진종 서본원사파 측은 “이번 적발에 대해 내부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령은 준수해야하지만 승려 활동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해당 사건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매스컴에 집중되면서 불교계에서는 SNS를 통해 연대, 반대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승복을 입고 할 수 있는 것’이라는 해시태그를 단 영상들이 연일 업로드 되고 있다. 영상 속 스님들은 승복을 입고 줄넘기나 저글링, 텀블링, 드럼 연주 등 운동량이 많은 모습을 보여주며 “승복이 운전 조작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출가를 금지하는 태국 법을 거부, 타국에서 비구니로서 계를 받은 태국 여성 부드사반 찬타웡. 사진출처=인디안익스프레스

‘비구니’ 되길 원하는 태국 여성들

여성 출가가 금지된 태국에서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인디안익스프레스는 1월 10일 “태국 여성들이 전통을 거스르고 평등을 위해 싸우고 있다”며 “최근 몇 년 새 비구니가 되길 원하는 여성들이 스리랑카 또는 인도에서 출가, 계를 받는 방법을 통해 전통을 타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태국의 수도인 방콕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 출가자들의 실상을 고발하며 지난달 타국에서 출가한 여성 21명의 소식을 전했다.

태국은 1928년 이후 여성 출가를 금지시켰다. 이 때문에 오직 남성만 스님이 될 수 있다. 여성이 종교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스님보다 덜 엄격한 규제를 따르는 ‘흰 옷’(일반 승려 가사와 다른)을 입는 수도승이 되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에는 사찰의 가사 업무만을 담당하기도 한다.

다만 태국 정부는 이것이 성 차별이 아닌 오랜 전통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 불모지’ UAE서 佛法 전파

〈아랍에미레이트〉

1999년 창건된 사찰 ‘마하메브나와’ 조명

불자 급증하며 분주해져
매일 1000여 대중 몰려

두바이 외곽에 위치한 아랍에미레이트(UAE)의 유일한 불교 사찰이 최근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다소 폐쇄적인 UAE 종교계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자를 홀로 감당하고 있기 때문.

부디스트도어 1월 9일 보도에 따르면 마하메브나와(Mahamevnawa) 불교 사찰은 UAE 내 약 50만 명 불자들의 피난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마하메브나와 사찰은 스리랑카 불교에 기반을 둔다. 1999년 ‘스리랑카 국민스님’으로 불리는 키리받고다 냐나난다 존자가 설립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유명 고승들이 불교 불모지와 같은 UAE에 방문해 부처님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다.

냐나난다 존자는 앞서 걸프뉴스와 인터뷰에서 “나는 UAE를 방문할 때마다 불자들로부터 받는 환영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수백 개 국적과 종교가 공존하는 UAE에서 불교가 성장할 수 있다는 자체가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며 “UAE는 우리(불교)에게 마음을 열었다. 나는 영원히 이 나라에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해당 수도원은 항시 개방되는데, 매일 전국 각지에서 1000명 이상의 불자들이 몰려든다. 금요일은 특히 바쁘다. 불자들은 사찰에서 수행 중인 2명의 승려들을 위해 음식을 기부하고, 사찰 유지·보수를 위해서만 현금 형태로 보시한다.

스리랑카인 불자 샘 에더리신게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우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며 “절은 우리에게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웃어 보였다.



마하메브나와(Mahamevnawa) 불교 사찰은 UAE 내 약 50만 명 불자들의 피난처이자 안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부디스트도어

또 다른 스리랑카인 불자 사시카 라나신도 “업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불교 사원을 찾는다. 도시화된 삶에서 우리 마음은 오염되고 쉽게 화를 내게 된다. 나는 마음 정화를 위해 이곳에 온다”고 밝혔다.

한편 2005년 국가 공식 인구 조사에 따르면 UAE는 인구 76.9%가 이슬람교도다. 이밖에 기독교도가 12.6%, 힌두교도가 6.6%, 불교도가 2% 등을 차지한다. UAE의 불교도들은 중국·네팔·스리랑카·태국·베트남 등 불교 국가 출신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UAE 경제 개발이 본격화된 후 외국인 근로자로서 넘어온 경우가 많다.

박정현 객원기자

사찰이 반세기 지켜온 소극장

日 도쿄 중심가서 문화 지켜온 스님의 노력

도쿄 중심가 번화가로 손꼽히는 이케부쿠로를 50년간 지켜온 연극전용 소극장 ‘시어터 그린’. 도쿄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이 소극장을 절에서 경영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지난 1월 3일 일본 ‘도쿄신문’은 이 특별한 소극장에 대해 보도했다.

이케부쿠로 중심지를 조금 벗어난 미나미 이케부쿠로 공원 근처에 소재한 ‘시어터 그린’ 소극장은 지난 1968년 ‘이케부쿠로 아트 시어터’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관했다. 현재 지배인을 맡고 있는 아사히나 분스이(44) 스님은 극장 바로 옆 센교지(仙行寺)의 주지다.

분스이 스님은 “이 극장을 개관한 것은 선대주지이자 부친인 안죠(78) 스님 때의 일”이라고 전했다. 스님은 “당시 이케부쿠로 지역은 2차 대전 직후 암시장이 성행한 지역으로, 우범지대라는 이미지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안죠 스님은 ‘문화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서로 모인다면 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분스이 스님은 “연극과 불교 간의 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많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찰은 사람들이 모이는 역할을 하는 장소로 지역에 녹아들지 않으면, 동네 사찰은 그저 풍경에 지나지 않는다”며 극장을 이어나가는 의미를 밝혔다.



현재 시어터 그린 소극장의 지배인을 맡고 있는 분스이 스님. 사진출처=도쿄신문

분스이 스님은 “처음 개관할 땐 무대와 객석 모두 대중스님들과 연극인들이 손으로 만들었다. 연극을 상연할 곳이 없던 신흥극단과 젊은 극작가들에겐 등용문으로 이름을 날렸고, 지금도 그들의 활동이 왕성하다”며 극장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냈다.

지난 2005년 노후화로 리모델링한 극장은 170석에서 70석까지 대·중·소의 3개 극장을 갖춘 규모로 확장됐다. 또 12년째 학생극단을 지원하며 매년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생활 불교 · 실천 불교 · 효행 불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고 문 석 암 도

승정원장 석벽봉 승정 석화담 승정 석혜암
원로고문 석법령 원로위원 석일우. 석청산. 석우암. 석도명. 석정호. 석법산. 석법광. 석자광

총무원장	석도선	교육원장	석남산	기획원장	석담허	어 산 장	석도암
법계고시원장	석일두	호법원장	석청강	의전원장	석법도	비구니회장	석경호
총무부원장	석대공	총무부장	석도흥	감찰부장	석성보	조사부장	석성도
수행부장	석보각	사회부장	석종우	사서부장	석성우	조직부장	석성각
종무부장	석법민	문화부장	석성원	포교부장	석보현	연수부장	석원희
총무국장	석성덕	지원국장	석해인	봉사국장	석성호	포교국장	석혜성
포교국장	석법정	포교국장	석성원	의전국장	석균중	수행국장	석성탁
종무국장	석성안	문화국장	석원종	의식국장	석성혜		
비구니부회장	석효성	비구니부장	석지현	비구니국장	석충효		

제주중앙종무원장	석의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릉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칠곡중앙종무원장	석혜천	부천중앙종무원장	석원해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영주중앙종무원장	석문교	속초중앙종무원장	석태성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도명	천안중앙종무원장	석함월
시흥중앙종무원장	석지일	경남중앙종무원장	석일지	태백중앙종무원장	석일현	김해중앙종무원장	석천각
문경중앙종무원장	석정현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암	대구중앙종무원장	석성담		

▪종단법인 운영이사 이사장 도선 수석이사 남산 체법 일두 성만 성우
운영이사 청강 일현 도명 청암 혜천 수선화 성덕 의공 학산 법광 혜림 혜화 법수 성담 성원

▪종단법률자문위원 변호사 : (明眞)김진우 | 법무사 : (雲虛)이익렬 | 세무사 : 이수열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이사장 · 총무원장 석도선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 (이종길)	부회장	진불심 (이순임)
총 무	대각심 (김경숙)	임 원	혜명심 (박현숙)
임 원	보덕심 (박경남)		

▪종립종합예술원

원 장	묘 각 (이재인)	부원장	혜 담 (이정민)
국 장	불심화 (정형숙)	무 용	무애심 (박순애)
연 출	원각심 (도지연)		

▪법사승 임원

경남원장	도 혜	홍보부장	원 명	청주부장	혜 원
울산원장	법 광	부산부장	혜 성	전남부장	혜 명
경북원장	성 인	경기부장	자 운		
법사원장	목 암	구미부장	혜 진		
충북부장	상 학	대구부장	혜 련		

경남국장	성 광	포교국장	청 운	삼척국장	정 허
사업국장	소 현	통영국장	덕 인	영천국장	원 명
포교국장	덕 운	포교국장	혜 림	통역국장	정 연
종무국장	도 연	봉화국장	혜 정	포교국장	혜 경
서울국장	명 덕	화순국장	보 정		

■ 총본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무원 :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91, 2층 대표전화 02)303-5612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4〉 깨달음

참 수행자는 自我를 약화시킨다



오늘은 깨달음이란 어떤 것이며 깨달음에는 어떤 단계가 있는지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정작 깨달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깨달았다는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싶어 합니다. 깨달음마저 욕망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달음을 인증하고 자격증을 주는 명상 수련회도 생겨났습니다. 한 달쯤 되는 비교적 긴 기간의 수련회를 마칠 무렵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에 따라 예류자, 일래자, 불환자, 아라한이라는 자격증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이 수련회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은 처음 참가했을 때는 불환자의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 년 후 두 번째로 참가했을 때는 예류자의 자격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지 못한 주최 측의 실수로 이 년 후에 두 단계가 내려갔던 것입니다. 그 명상 수련회는 후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깨달았다는 자격증을 받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이 영적인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신의 수행과 다른 사람의 수행을 비교하고 우월감을 갖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행의 단계는 쉽게 자만심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수행자로서 우리는 어떤 것도 자만심의 근거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을 통해 자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약화시켜야 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어떤 인도 구루는 자신이 완전히 집착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집착 없음'에도 집착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영리한 핑계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런 말을 믿습니다.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아간다면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 지도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자신이 선정이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선정이나 깨달음이 그들이 경험한 것과 다르다고 말해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선정이나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그들 자아의 깊은 부분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깨달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깨달음이 아닌가

그렇다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쩌면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기에 앞서 먼저 무엇이 깨달음이 아닌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라한이 된 것은 출가한 지 사 년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태국 북동부에 있는 한적한 사원에서 삼 개월의 우기 안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경행대에서 걷기 수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마음은 고요했고 어떤 번뇌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강렬한 깨우침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환하게 이해되었고 엄청난 환희와 동시에 깊은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무아의 체험이었습니다. 새벽 1~2시까지 수행했지만 조금도 졸리지 않고 마음이 완벽하게 명료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 탁발을 나갔습니다. 저의 발우에 음식을 보시하는 신도들을 보며 그들에게 한없는 자애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새로운 아라한에게 첫 번째 공양을 올리다니 얼마나 커다란 복을 짓는 것인지에 대하여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깨달음을 얻던 날, 공양간에는 음식을 담은 통이 두 개 있었습니다. 한 통에는 항상 먹던 생선 젓갈이 담겨 있었지만 다른 통에는 제대로 요리된 돼지고기 카레가 있었습니다. 저는 곧 눈치를 챘습니다. 천신들이 저의 깨달음을 축복하기 위해 공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당시 그 사원에는 스님이 별로 없어서 저보다 법랍이 높은 스님은 그 사원의 주지 스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스님은 생선 젓갈은 조금도 손대지 않고 돼지고기 카레를 듬뿍, 아무도 그

깨달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자아에 대한 집착이 원인
깨달았다고 떠벌리기보다는
'소거'됐다는 표현이 정확해

만치 먹을 수 없을 만큼 듬뿍, 자신의 발우에 담았습니다. 뭐, 그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양이 통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주지 스님은 돼지고기 카레가 든 통을 들더니 돼지고기 카레를 모두 생선 젓갈 통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국자로 휘휘 저으면서 '이것들은 다 마찬가지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두 가지 음식이 다 마찬가지라면 왜 자기 발우에는 돼지고기 카레만 담았지? 이 위선자! 욕심쟁이! 돼지! 내가 아라한이 되어서 천신들이 공양한 좋은 음식을 모조리 망쳐버렸어.'

그러다가 문득 아라한은 음식에 대한 욕심이 없고 화도 내지 않는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짜 괴로움을 알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아라한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아라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됩니다. 그 해의 우기 안거는 무척이나 괴로운 우기 안거였습니다.

깨달았다는 착각을 일으키기는 이처럼 쉽습니다. 강렬한 깨우침이 일어나고 다섯 장애가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후에 두려움이나 분노나 그 밖의 다른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깨우침이 일어난 경우에도 어떤 장애는 사라지고 어떤 장애는 약화되지만 또 어떤 장애는 전혀 손상 없이 건재합니다. 따라서 매우 조심스럽게 스스로의 수행 정도를 평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깨달음일까요?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는 예류자입니다. 예류자 단계에서 유신견(有身見)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어디에도, 어떤 형태로도 자아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온 중의 어떤 것도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온, 다섯 가지 무더기를 벗어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아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자아가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은퇴 후 영원히 행복하게 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처럼 깨달음을 얻은 후 영원히 행복하게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일부는 반열반 후에 어떤 식으로든 지속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반열반 후에 모든 것이 사라진다면 깨달음은 도대체 무슨 소용인지 묻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단멸론이고 정신적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멸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던 어떤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이 존재하다가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원인과 결과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원인이 소멸되어서 더 이상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알기는 비교적 쉽지만 자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아라는 관념을 가지고는 결코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길은 있으나 그 길을 걷는 자는 없습니다. 열반은 있으나 열반을 얻는 자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사라져야 합니다. 특히 자신의 의지가 사라져야 합니다. 놓아버리고 내맡기십시오. 자애로운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자애로움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고 통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행은 장애라는 해충을 박멸하는 일이 아닙니다. 장애와 함께 지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해충을 박멸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번뇌를 박멸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파괴하기보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상을 다섯 가지 무더기, 오온으로 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깨달음의 첫 단계인 예류자가 되면 삶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자아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류자가 되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왜 말하고 싶어합니까? 자아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아가 남아 있다면 아직 예류자가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던 스리랑카 스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난다망갈라' 라는 스님입니다. 이 스님은 학승으로 유명했던 삐야닷시 스님이나 나라다 스님, 그리고 미국에서 활동하는 구나라타나 스님 등과 모두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 스님은 상당히 반항적이고 솔직한 성격이었습니다.

이 스님이 호주에 있는 저희 사원을 방문했을 때 누군가 이 스님에게 깨달음을 얻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스님은 자신은 깨달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소거(消去)되었다고 대답했습니다.

"Are you enlightened?"

"No, I am highly eliminated."

깨달았다거나 해탈했다고 말하기보다 소거되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더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소거됩니다. 누군가 수행이 어떻게 되어가느냐고 물으면 점점 더 소거되어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수행의 여정에 대한 부처님의 설명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출강 및 통신 2019학년도 28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학인 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28년의 전통과 학적으로 자랑과 긍지를 삼고 있으며 법사 활동과 위상 정립에도 기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②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 교육합니다.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합니다.

④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 02)733-1959 720-1836

불교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9년 2월 22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제주교육원 (☎ 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www.pubsa.net FAX : 02)737-5305

오직! 소리비교 조건만으로 초청후!

본사의 견본 염불시설로 내 염불이 편안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바꾸어지는 가장 확실한 체험후 견본 그대로 시설하는 길만이 사찰에 난무하는 불량 시설들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본사가 개발한 염불전문시스템이 시중에 있을시는 1천만원 포상!

앰프 1, 스피커 2, LG데크 / USB, 무선마이크 헤드셋 2, 핀무선마이크 2 합계 4개
유선마이크 법문용 1 · 염불용 1 스탠드 포함 합계 2개 완벽시설비까지 290만원
스피커 계속 연결시 비용추가 특징: 고장난 적 없고 앰프다루기 1초

방생용 앰프 및 마이크 하나만 바꿔도 품격이 달라지는 소리도 구경

▣ 소리 비교 조건으로 초청 : 055-343-1191, 010-9471-2026, 010-7740-2026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108 명품소리훈련원 원장 박 청 락



대행 스님

이 마음공부는 천만금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그래서 어떤 때는 신도님들더러 내가 그러죠. "남편을 원망하지 마라. 너도 전에 그랬잖아. 지금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 금방 당할 때는 알지만, 과거로부터 당해서 지금 현실에 온 것은 너는 몰라. 너도 남을 그렇게 아프게 했어.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 그러면 그것이 다 소멸돼." 그렇게 합니다. 사실이고요, 또 그게. 뭐, 그걸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의 도리를 빨리 배우려면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이유를 붙이면 빨리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소멸시키는 실천이거든요.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지금. 정진이다 뭐다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실천요. 그래서 다른 이름은 붙이지도 않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여러분처럼 아주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아서 이렇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 없는 길을 알기 때문이죠. 길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아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물에 가면 주해신이 된다. 모든 걸 자유스럽게 대치해 나갈 수 있는 주해신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기독교 믿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듯이 말입니다. 이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실천이 중요하지. 그래서 천차만별의 마음은 '그 마음이 없는 것이 마음이다' 이겁니다. 부처라는 이름이 없는 것이 부처지, 부처라는 이름이 있는 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북하면 "마음이 없는 것을 마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마음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자유스럽게 실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딪히면 아프고 또 좋고 나쁜 걸 다 빤히 아세요. 아시는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행하시면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일상생활 속에서 내 몸이 하는 거, 먹는 거, 말하는 거, 사는 거 모두 몽땅 그놈한테다 맡겨 놓고 사시면 얼마나 편리해요. 이 세상이 다 없어진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북하면 부처님께서도 그러셨나요? "허허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 형국인데, 배는 네 모습이고 배 속에 있는 생명들은 네 중생이니라. 그런데 그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한테다 진짜로 믿고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선장이 다 알아서 가는 데까지 끌어다 줄 것을 그냥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찾고 온통 난리를 치니까 그 배는 뒤집힐 수밖엔 없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마음공부는 천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허공길의 공부입니다. 우리가 저승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무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승의 이치를 다 알아서 대치를 해 나가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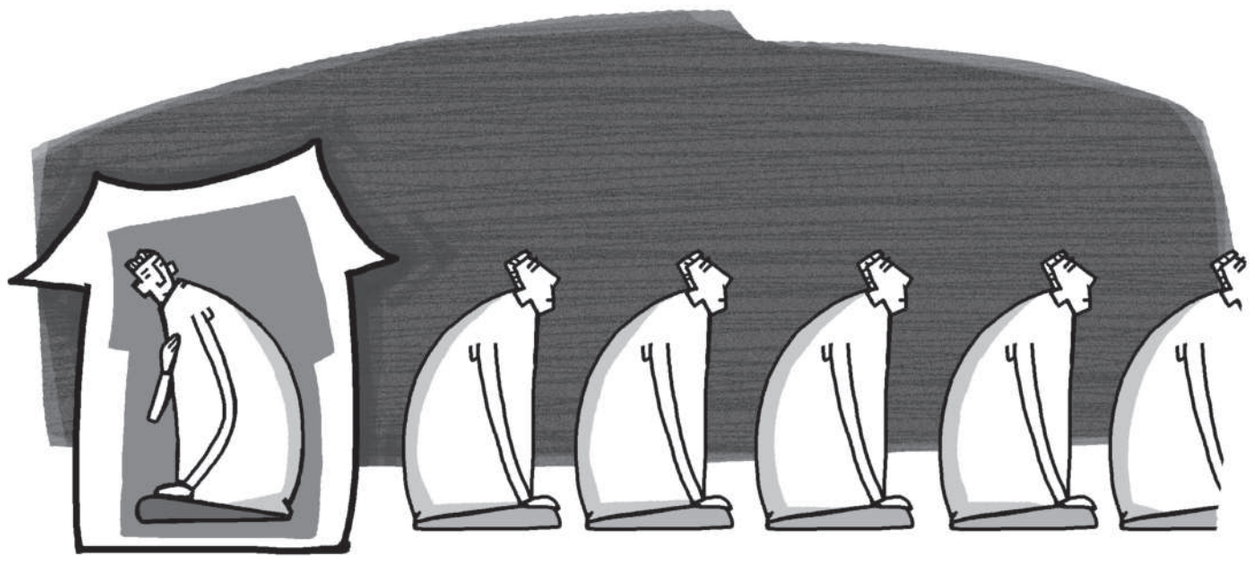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 여덟 달 만인가 일곱 달 만에 애를 낳았다는데 다 죽게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가 또 몇 대 손이랍니다. 몇 대까지 손이 없었대요. 아,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이 공부를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급하니까 그냥 그렇게 지극하게 오직 그거 하나로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자기 앞에 떨어져야만 그렇게 야단법석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급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허바다에 그냥 배 한 쪽 타고 가는 형국이거든요. 지금 살아나가는 게 그렇게 아슬아슬해요. 어느 때 차 사고가 날는지, 어느 때 떨어질는지, 어느 때 또 잘못될는지, 어느 때 식구가 어떻게 될는지 그것도 모르고요. 그냥 허허바다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 내 가슴이 얼마나…, 여러분이 들으면 얄팍한 말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개개인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만 불쌍하고 가엾은 게 아니에요. 벌레서부터 내려오면서 그 사는 걸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냥. 그래서 아마 화성에는 생명들이 다 없어졌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그냥 알아서 다 사라져서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 뒤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면 사람 살던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안 거예요. '아, 여기서도 살다가, 이 화성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 살고 살고 부딪히고 부딪히고, 수백 수만 년 가다가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이렇구나!'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냥 화해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이 보살이 된다면, 왜 저, 은비까비 금비까비 이런 거 텔레비전에서 나오죠?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그런 사람, 보살이 그렇게 행을 하거든요. 보살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거는 만화 영화에서만이 할 수 있고, 그거는 그저 그려 놓은 거고 텔레비전에서만 나오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은 나와라 뚝딱, 금 나와라 뚝딱"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진 인간이에요.

나는 내 수중에 아무것도, 내 수중이 아니라 내 몸까지 없어요. 아주 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어요. '버릴 것도 없는 걸 버렸다고 했구나.' 했다고요. 여러분이 함이 없이 살고 공해서 내가 따로 한 게 없구나. 내가 너무 많아서, 고정됨이 없이 그냥 항상 보고 또 보고, 듣고 또 듣고, 만나고 또 만나고, 하고 또 하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도 할 수가 없고, 내가 산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돈 벌었다고 할 수도 없고 내가 망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전부. 그렇게 없는 걸 알아야 내가 아주 자유스럽고, 어떠한 게, 뭐, 집안 가족이 다 죽는다고 이렇게 와도 그냥 뻔뻔하게 앉아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신도님들 중에도 때로는 간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하고 오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자기가 해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병원엘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도 됩니까?" 하거든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해." 이럴 수밖에요. "오직, 오직…." 하는 사람은 그냥 일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당장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병원엘 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누차 보고 알게 된 사실이 '아, 모두가 대신해 줄 수는 없구나.' 하는 거죠. 다른 건 다 해 줘도 깨치는 거하고, 죽는 거, 아픈 거, 똥 누는 거, 잠자는 거, 먹는 거, 이거 여섯 가지는 아무리 해도 대신 못 해 준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혜가 풍부한 사람들은 가정에서 누가 아프거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주 마음 태평하게 버젓하게 그거를 그냥 대치해 나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방방방방 뛰어요, 그냥.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하고 모두 다 그냥 버리면 될 거를, 저렇게 어렵게 고생을 하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살면 얼마나 살고, 또 죽는 날까지 얼마나 남았다고 죽는 걸 겁내고 그러나.' 하는 생각도 해 보고요.

여러 가지예요. 아주 여러 가지 말 못하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이날까지 여러분한테 말을 했어도 정작 할 말 못 한 것이 너무 많죠. 내가 해서 될 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면서 점점 이렇게 돼야 이게…,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같이해 주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같이해 주고, 길면 긴 대로 같이해 주고 짧으면 짧은 대로 같이해 줘라. 이것이 바로 모가 나지 않고 둥근 거니라." 때로 이렇게 자기 몸을 보면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은 어디 아픈 걸 더 잘 알 거예요. 기운이 없다거나 입맛이 없다거나 또 어디가 아프다거나 이런 거는 더 잘 알죠. 딴 사람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알면 아는 대로 대치를 빨리빨리 해 나가야지, 이거는 대치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어디가 어떻게 돼서 내 몸이 이런가. 병원에 가서 좀 검진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시간을 오히려 더 늦추는 거예요. 빨리 해결을 할 것도 말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만약에 제가 어려서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 하면 벌써 죽었지 여직껏 살지 못해요. 저도 사람이니까 때로는 어디가 아프기도 하겠죠. 그럼 '이렇게 아파서 돼? 아프게 만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허허허…. 아이, 이 몸뚱이를 집을 삼고 사는 생명들이 전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저도 죽고 나도 죽지 그럼 누가 안 죽을 수 있나요? 그런데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 해?" 이러거든요. 어때요? 죽는 거를 그렇게 대단스럽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요, 내일 죽든 오늘 죽든 이따가 죽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요, 부모를 두고서 자식이 먼저 죽는다거나, 또 부모가 자식들을 많이 두고서 먼저 죽더라도, 죽으면서 그 자식들을 괴롭힌다거나 이런다

☞ A18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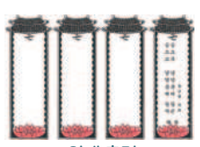
GM since 2015 GSOFT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연등표 출력


인등표 출력


문자발송


기부금 영수증


위패 출력


사주팔자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 070-7633-2525/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영도극불교연합회

증명대법주 도성큰스님 정각큰스님

고 문 | 혜주, 해정, 법공, 명준, 해문
회 장 | 호법
부 회 장 | 혜도, 해암, 혜진, 정오, 혜각
사무총장 | 원영정사
이 사 | 대범, 성연, 청우, 대수, 진명
감 사 | 해암, 혜진
기획실장 | 담화림

福

회원일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310-78 발원사 Tel. 051)405-2326

여러분이 마음도리를 배우려면 이유를 불이지 마세요

☞ A17면에서 계속

면 그 부모 된 마음은 상당히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는 방법, 그것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하하…. 남을 괴롭게 하면 나는 그 몇십 배, 몇백 배 더 괴로우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실천을 하는 것이 자비예요. 실천은 자비고 사랑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안 하더라도 사랑한다고 해야 상대가 좋아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 좋게 말해 놓고 자꾸 그러다 보면 진짜로 실천이 되죠. 그러면 그게 자비예요. 그래서 그 한 가정이 화합해서 좀 화목하게 살려면 거짓 아닌 거짓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짓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더라도 그 가정을, 상대방을 편히 행복하게 해 주기 위해서 "참 당신 고생해. 사랑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데서 그 웅크려졌던 모든 마음이 다 스르르르 녹거든요. 그 마음이 녹으면요, 애들한테도 신경질 안 내요. 또 부모 모시는 사람은 부모한테도 신경질 안 내고요. 그런데 웅크려진 걸 더 웅크려지게 말 한마디를 툭 해 버리면요, 그 양쪽을 다 불안하게 만들게 되죠. 한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또 나라 일과 사회생활을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고생을 아무리 했어도 말 한마디만 그렇게 잘해 주면 그 고생한 게 다 스스로 녹아지는데, 돈이 드니 못 해요, 왜 못 해요, 글쎄? 그런데도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마음인가 보죠?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이 아니라, 우리는 지혜롭게 방향을 이끌어 나가는 큰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거죠.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자기가 하고 사는 거예요? 그 업식이, 업보가 거기에 뭉치고 뭉쳐서, 화가 불끈 일어나면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말을 해 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게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아이고, 저이는 저런 말만 만날 한다.' 하고 재미없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인생을 어떡하면 단 한 시간이라도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저녁에 자리에 누우면 참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지, 불편해서 그냥 잠도 못 자고 일어났다 앉았다 이러시면 그게 사람 사는 겁니까, 어디?

질문자1(남) 큰스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는 본원 법형제회 회원입니다. 이번에 질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조계사 사태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일 먼저 그 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 종단이 매스컴에서 왜 저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지, 또 불교계의 제일 큰 종단이기 때문에 원력이 높으신 스님들이 계신데 저런 걸 사전에 막아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질문이었는데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커 가는 모습을 보여 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공부가 된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 중에는 '불교는 저런 것이다. 스님네가 저러니 불교는 믿지 말자.' 이런 마음이 많이 났을 거라고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제 여기서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상처는 어떻게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큰스님 그거는 스스로 자기네들이 생각하기 나름이죠. 그거는 잘 생각하면 정말 자기네가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 수 있겠지만,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면 이것은 바로 즉각적으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한테 미치는 거니까요.

질문자1(남) 그런데요, 요즘에 타 종교에서도 너무 극성스럽게 신자들을 늘려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불국토가 돼야 없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조계사 사태로 포교하는 데에 흠집이 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큰스님 불국토라는 것이요, 우리 불교인들만 늘려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생명의 근본이 '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배우고 진화하면서 또 지혜롭게 물리가 터지고 이러는 모든 것을 '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어떤 국한된 종교가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가는 진리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기독교 믿는 대로, 또 불교 믿는 사람은 불교 믿는 대로, 그대로 '자비'의 뜻을 알게 되면요, 천체 모습을 보고 살게 되니까 그런 걸 보고 비난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어떤 수녀 한 분이 "스님, 그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더군요. 그래서 그랬어요. "만약에 고생을 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부딪힘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한 해의 추수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했기 때문에 남도 주고 나도 먹는다. 그렇듯이 이것은 마음공부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발길로 차고 문도 떨어져 나가고 온통 이렇게 하는 반면에 거기에서 납득이 된다."라고요. 이런 걸 한번 겪어 보면서 '아, 이것이 아니로구나!' 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로구나!' 해서 그 욕심도 없어지고….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싹 그냥 없어지죠.

그래서 사람도 수없이 바뀌죠. 이렇게 우리가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듯이 사람도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고정되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일만 하는 사람도 고정되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바뀌는 거죠. 자기가 당해 봐야 그 습성을 놓으니까요. 그래서 그분들도 그렇게 싸우다 보면 '아, 이런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망신당했으니 예이, 이거는 할 짓이 아니로구나.' 하는 걸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바람에 단번에 그 습이 딱 떨어져 나갔으니 얼마나 그게 효과적입니까? 하하하….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늘 "어묵동정 행주좌와가 모두 선인데 무슨 특별한 선을 하느냐." 이렇게 일러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이 안거 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들께서 안거 행을 하시는 그런 뜻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큰스님 안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이 마음공부하는 데는, 선에는 안거라는 것이 특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고 안거를 했다 하더라도 선이에요. 해제했을 때는 지구가 안 돌아가고, 또 안거했을 때는 지구가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것도 그래요. 안거했을 때는 우리가 살고 있고 해제했을 때는 우리가 죽나요? 그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 하는 데는 누워서 잘 때 와선, 서서 다닐 때 입선, 또 일을 할 때 행선, 앉아 있을 때 좌선, 이것이 전부 네 가지가 송두리째 그냥 요만큼도 끊어지지 않고 참선이 된다 이거죠.

질문자1(남) 예, 잘 알겠습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우리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선의 기회를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큰스님 네. '선이라는 이름 없이 참선을 하고 간다, 끊어지지 않게.' 이런 거죠.

질문자1(남)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공부하다 보니까 삼독(三毒)을 좀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아침마다 '오늘은 삼독에서 벗어나는 하루를 지내야지.' 하고서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튀어나옵니다, 진(嗔)이라는 놈이. 그거를 막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큰스님 하하하…. 그래서 내가 항상 이러지 않습니까. 잘못 나오든지 잘 나오든지 간에 잘 나오는 거는 '주인공, 감사해.' 하고, 또 잘못 나오는 거는 '너만이 잘 나오게 대치할 수 있잖아.' 하고 거기다 놓으란 얘기죠.

질문자2(남) 스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은 내용인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교수로 계신 어느 스님이 쓴 글 중에 윤회에 관한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스님의 말씀이 "지구상의 생물에는 유정물, 즉 감정이 있는 생물과 무정물, 즉 감정이 없는 생물이 있다. 동물은 감정이 있는 유정물이고 식물은 감정이 없는 무정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고 "윤회를 하는 것은, 식물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윤회를 못하고 동물만 윤회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큰스님 법문을 듣고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로는, 식물도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식물 역시 지구상의 생물이며 그 윤회 선상을 떠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는 생물이 윤회를 한다는 말은 제 나름대로 상당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데, 큰스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치시기를 어떤 윤회 선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모든 떠오르는 생각, 감정들을 지켜보면서 다시 주인공 자리, 그 용광로에 되돌려 놓을 때 이미 한 바가 없이 함이 되는 것이며, 그래서 그 감정은 남아 있지를 못한다. 만약 그런 주인공 자리를 모르고 우리가 내는 감정, 그런 데 끄달리게 되면 현생에서 살아가면서 냈던 마음이 어떤 에너지로서 허공에 남아 있게 되고, 그다음 생에서도 그 에너지는 소멸하지 않고 우리의 업장이 되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감정이 있는 동물이 윤회를 한다는 그 말은 상당히 공감을 하겠는데 제가 의문이 나는 거는 정말 식물이 감정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님께 여쭙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큰스님 왜 감정이 없겠어요? 실질적으로 경험한 일인데요, 산에 다니다 보니까요, 손가락도 잘라질 정도로 말아 들이는 식물이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스치고 가는데 스치는 순간에, 이파리가 이만큼 넓었는데 그게 그냥 따르르르 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요상하다.' 이러고선 그냥 막대기 하나를 집어 가지고 그걸 건드렸어요. 그랬는데 그 잎이 그냥 쫙 말리면서 그거를 물고 영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두 시간 있으니까 그게 놓아지는데 보니까 그 나무때기가 은근히 부스러졌어요. 그런데 감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약초요. 약초들도 풀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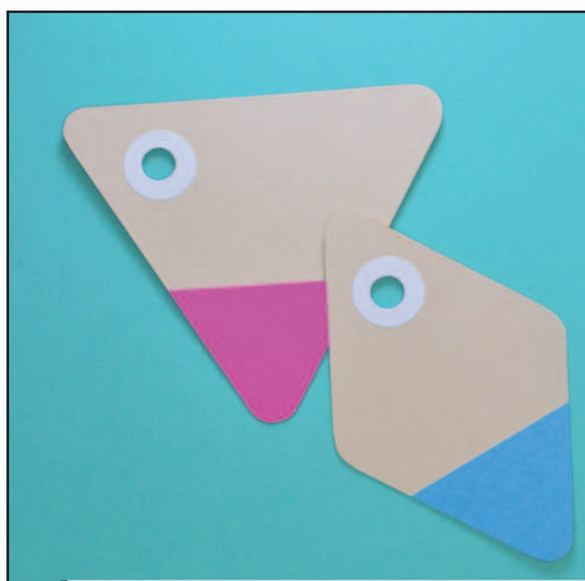
그래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주인공 자리에 놓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주인공 자리에 놓아서 내 마음이 큰 바다로 이루어진다면 수증기로 해서 올라가서 이 정수봉에서 정화를 해서 다시 물을 모든 만민에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지금 현실에 비가 오면 내리듯이. 그러면 조그만 풀도 다 먹어요. 요만한 풀도요. 그렇죠? 작으면 작은 대로 먹고 크면 큰 대로 먹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벌써 생각이 있어요. 소나무가 뿌리를 내리는데 말이에요, 흙이 모자라면 그것이 그냥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려서 흙에 닿게끔 해요. 그래서 그것이 살아나요. 그런데 생각이 없어요? 허허허…. 그건 언어도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극매고 아파서 죽게 되니까 풀을 손으로 뜯으면서 '너, 나 좀 살려 줘. 나 죽겠어.' 하고 애원을 했대요. 이렇게 죽어 넘어졌는데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게 그 옆의 풀들이 다 그냥 얼굴을 내밀고선 자기 액을 빼 주더라는 거죠. 자기 이파리 하나씩 빼서 입에다 넣어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깨고서는 그냥 살아났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겪어 보고서 '이 세상에 모든 생명 있는 풀들은 다 생각이 있고 다 사랑이 있고 의리와 도의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고, 또 악하게 쓰면 악한 업이 그대로, 자기가 요다음 생에 나올 때 모습을 달리 해 가지고 나온다는 걸 알았대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질문자2(남) 스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법문은 1998년 12월 6일 법형제 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불이면 일심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일심으로 정진해야 하거든요.



피부·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 현불 논단 |

새해 '불국정토운동' 펼치자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기해년 웅비를 맞이한 한국불교
올해를 불국정토운동 원년 삼길

불국정토, 번뇌 굴레 벗어난 세상
불자만의 세상 발원, 여법치 않아
모든 중생 행복 · 안락한 곳 '정토'

민주사회 만드는 시민사회운동과
자리이타의 불국정토 이념 맞닿아
이는 부처님 전법교화행과도 유사
장기적으로 불교정토운동 실천을

한국불교가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했던 무술년 한 해를 뒤로 하고 기해년의 웅비를 맞이하고 있다. 새해를 맞이하면 항상 여러 가지 소원과 희망을 그려보지만, 한국불교가 올해를 불국정토운동의 원년으로 삼았으면 한다. 개항기 이후 이웃종교가 선교에 전념해온 데 비하여 한국불교는 포교에 적극적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야 다양할 수 있지만, 한국불교는 해방 이후 비구와 대처 간 분규를 겪으면서 사회운동을 이끌 동력이 부족했던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불교 내부의 혼란이 컸기에 외부 사회를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것이다. 반면 이 시기 한국 기독교는 서구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 하에 사회문제의 해결을 주도하며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불국정토운동을 펼치기 위해선 불국정토에 대한 여법(如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불국정토(佛國淨土)는 부처님이 사는, 번뇌의 굴레를 벗어난 아주 깨끗한 세상이다. 혹자는 불국정토를 불자로만 가득한 세상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불국정토운동은 여법하지 않다. 그런 운동이라면 모든 시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는 개신교의 성시화(聖市化) 운동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의 성시에서는 타종교인은 살 수가 없었다. 장 칼뱅(Jean Calvin)이 지배한 16세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타종교를 가진 자는 사형에 처했다. 이에 반하여 불국정토는 모든 중생이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땅이다.

이런 불국정토운동은 오늘날에는 시민사회운동으로 발현될 수 있다. 모든 중생이 이익되고 안락하고 행복한 땅을 만들자는 '불국정토'의 이념과 시민 각자가 권리의식을 자각하고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모두가 행복한 민주사회를 만들려는 '시민사회운동'의 이념은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성격의 운동이 한국불교에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95년 제창되었던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이 그러했다. 당시의 선언문은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나 실천이 아닌 것이며, 특정계급 및 계층의 이익이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닌 실천적 종교운동이자 시민사회운동이다.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의 성격은 해방 직후 불교혁신운동이나 불교정화운동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후자의 운동들이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자기정화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면,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은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넘어서는 시대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시민사회운동이었다.

오늘날 불국정토운동은 특정 집단의 이익과 입장을 옹호하지 않는 시민사회운동이자 실천적 종교운동이어야 한다. 그 길은 부처님이 모든 중생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 걸었던 전법교화의 길과 다르지 않다.

이제 한국불교는 20여 년 전과는 달리 대내외적으로 안정과 역량을 갖추었다. 물론 출가 승려와 재가신도의 수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형국도 존재한다. 그럴수록 단기 · 일시적이 아닌 장기 · 근본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교 · 사회적 운동이 바로 불국정토운동이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에서 손님을 모으듯이 신도를 모으는 포교방법이 아닌 모든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전법교화를 고민하는 한국불교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의미에서 아무쪼록 기해년 한 해가 불국정토운동의 원년이 되기를 서원한다.

社 說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결성에 부쳐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가 전격적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불자들을 모으는 작업에 들어갔다. 2월 27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연합불자회 창립을 시작으로 나주, 전북, 대전 등에서 연합불자회 결성이 추진된다.

그동안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으로 기관 종사자들은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다. 가족들과 떨어져 나홀로 이주를 택한 직원들이 절반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자 종사자들이 절실히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신행생활이었다.

하지만 지방이전으로 기존에 있던 신행공간이나 시스템마저 송두리째 바뀐 상황이었다. 처음으로 연합불자회가 구성되는 원주혁신도시의 경우에는 기존에 불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기관들도 원주 이전으로 활동이 위축되어 있었다.

중앙신도회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각 지역별 교구신도회 구축을 완비했다. 향후 교구신도회의 지역 신행 중심체로 공공기관 연합불자회를 연계하고, 지역 사찰을 신행중심도량으로 함께 배정한다면 이들의 신행활동은 배가 될 것이다.

또 직장직능 단체들을 함께 연계한다면 그동안 소극적이던 친불교 성향의 직원들이 불자로, 이후에는 신도로 활동하게 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불교는 그동안 이웃종교에 비해 신도 조직화에서 뒤쳐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공공기관의 경우 종교색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이웃종교인들에 비해 불자들은 소극적인 입장에서 활동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제 연합불자회를 통해 상호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사회적 역량을 높이는 일이 남았다. 이에 대한 지역사찰을 비롯한 스님과 불자들의 관심도 필요한 때다.

남북교류 신호탄, 불교가 모범을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시화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면서 남북교류 재개를 기대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한국불교계가 북한불교와의 교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랫동안 남북불교 교류를 대표해온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와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를 비롯해 국제구호단체 한국JTS까지, 최근에는 전통종단인 태고종도 금강산 유점사 복원 의지를 다지며 남북불교 교류에 힘을 보태고 있다.

남북불교계는 지난 2015년을 끝으로 사실상 교류가 단절됐다. 조계종은 그해 10월 금강산 신계사 복원 8주년 남북합동법회, 천태종은 11월 영통사 복원 10주년 남북합동법회가 마지막 남북공동행사였다. 이후 중국 심양에서 남북불교 지도자들이 만나거나 새해 서신을 주고받긴 했으나 함께 행사를 개최할 순 없었다. 이명박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기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북한 불교계 역시 한국불교계와의 교류 단절을 면치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부터 꾸준히 이어진 남북 해빙무드에 이어 꾸준히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며 남북교류 재개의 싹이 다시 움트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가 가장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발맞춰 불교계가 남북교류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길 바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불교계는 그동안 적은 인프라로 이웃종교보다 월등한 대북교류 실적을 쌓았다. 문체부가 최근 펴낸 〈2018 한국의 종교현황〉에도 이 같은 성과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오랜만에 다시 시작될 남북교류에 한국불교가 선봉장이 되길 기대한다.



천미희의 **환경칼럼**

종이도 생명이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치고 하루에 한 번쯤 인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또 책을 읽고, 신문을 읽으니 종이 없이 사는 하루를 상상하기 어렵다. 우리집에서도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아들이 하루에도 몇 장씩 그림을 그리고, 관심 있는 곤충이나 희귀 해양 생물을 검색해 수시로 인쇄한다.

그러니 인쇄용지가 항상 묶음으로 준비되어 있다. 종이가 지천으로 있다 보니 귀한 줄을 몰랐다. 그래서 달력 뒷면이나 이면지 사용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종이나 휴지를 낭비한다 싶을 때면 어김없이 "종이도 생명이야. 나무였어"하고 말해준다. 생명을 워낙 아끼는 아들은 그 말을 들으면 행동을 잘 수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이가 나무라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우리는 종이를 쓰면서 나무를 생각하지 못한다. 무심한 우리들의 종이 사용으로 지구의 숲 절반 이상이 종이가 되어 빠르게 사라져 가고 있다. 이쯤 되면 '숲을 찢어 종이를 쓴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소비하는 종이에서 배출되는 탄소량은 대서양을 비행기로 왕복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과 같다. 이뿐 아니다. 종이 한 장을 만들려면 머그컵 한 잔의 물이 필요하며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욕조 하나를 가득 채울 만큼의 물이 필요하다. 또한 단단한 나무를 잘게 잘라 펄프로 만들고 빳빳한 종이로 만드는 과정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런 이유로 제지 산업은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에 이어 네 번째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산업으로 꼽힌다.

이렇게 숲을 훼손하고 많은 물과 에너지를 소비하며 생산된 사무용지들은 전 세계에 있는 3억 대에 육박하는 프린터에서 사용되며 인쇄용지 소비량은 지난 20년 사이 3배나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 해 복사지 사용량 29만t이고 그 중 45%는 재활용되지 못하고 휴지통에 버려지고 있다.

서울시는 종이가 금처럼 귀하니 지금 바로 종이 절약을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아 '지금(now, 紙金)하자'는 종이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종이 절약을 해야 하는 이유를 알리고 종이 절약을 위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권장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프린터기 옆에 붙여두고 챙겨봐야 할 항목들로는 인쇄 전 오탈자 확인으로 재인쇄 막기, 꼭 인쇄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기, 양면 인쇄 설정하기 등이다. 또한 휴지 대신 손수건이나 걸레 사용하기, 청구서 메일로 받기, 재생 종이 사용하기, 이면지 공책 만들어 쓰기, 종이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도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다.

인류의 역사에서 종이가 없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인류를 무지에서 구원한 수많은 지식의 보고와 역사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종이 위에 전승되어온 수많은 정보와 진리의 말씀 덕에 이만큼 진화해 왔다. 인류의 진화와 발전에 기여해 온 종이를 지구의 허파를 갉아 먹는 주범으로 전락시키는 건 종이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다. 종이 절약으로 종이에 대한 예의를 다할 가장 좋은 때, 지금이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기획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405-9402 영주지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구지사 : (053)768-8008 전북지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개천사
• 주 소 : 경북 의성군 안계면 봉양리 산54-2
• 주 지 : 법광 (속명 : 송윤용)
• 승 번 : 20603

위 사찰과 위 본인은
수행 종풍이 맞지 않아 귀종에서
탈종을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3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2019년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영덕불교사암연합회

회 원 일 동

새로운 방생 명소
해룡일출大관음사
해변 힐링 마을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❶ 워크샵, 명상힐링캠프 가능한 최신식 시설
❷ 공양, 커피, 음료수(카페테리아), 불교용품점, 서점
❸ 산중절인 무일선원과 연계가능
❹ 방생의 최적지 - 감포몽돌해변
❺ 갤러리, 법회장소 등 활용가능
❻ 10대 제자사리, 석경, 대형고려16나한 고구려불, 건칠불 봉안
❼ 템플스테이 - 개인 및 단체이용

해룡일출大관음사 (한국불교대학 해변절)
경북 경주시 동해안로 1740 T. 054-745-9229



※ B.U.D 山海세계명상센터의 해변절로서 여러시설을 갖추고 있음.

모두 위한 기도는 기복 아닌 '수행'



여예진 이사장은… 1955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불심이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불교를 받아들였다.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하고 평생 봉사하는 삶으로 회향하고 있다. 여 이사장은 부산학부모총연합회 회장, 부산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민주평화통일위원회 부회장, 부산유엔 홍보이사,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21, 22대 회장을 역임했다. 통일부장관 표창장, 부산시장 표창장, 범어사 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공로패, 범죄피해자 치유와 회복을 위한 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검찰총장 표창장 등 다수 수상했다.

그대는 자비보살

여예진 한국한의원 이사장
(사중금박물관 관장)

봉사와 나눔의 삶

범어사 등 여러 불교대학 졸업

범어사와 30년 인연 이어

금정불교대 총동문회장 활동하며

동문회 무료급식소 20년 봉사

반찬배달, 문화탐방 등 봉사회향

"가장 보람 있었던 시절"

각종 봉사관련 수상 100여 건

제등행렬 등 부산불교 기둥 역할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참 열심히 살았죠?"

부산시장 표창장, 통일부 장관 표창장, 검찰총장 표창장, 부산한일라이온스클럽 회장,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자랑스런 한국인 대상 봉사대상…. 방 안에는 상패들이 가득했다. 어림잡아 100여 개는 넘어 보였다. 대부분 남을 도운 행적의 흔적이다. 상장과 상패의 키워드는 '봉사'와 '나눔'이다. 대부분의 상장과 상패는 포장도 뜯지 않은 상태로 보관돼 있다. 상장과 상패의 주인은 그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틀림없다. 오직 자비와 나눔을 실천하는 것만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온 여예진(65) 한국한의원 이사장을 1월 7일 사중금박물관에서 만났다.

봉사하는 삶 복된 삶

새벽 6시, 추운 새벽임에도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23년 동안 꾸준히 운영되고 있는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무료급식소 현장이다. 힘겨운 이웃을 위한 공양간이다.

어제 저녁부터 굶었다는 할아버지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밥을 받기 위해 일찍 길을 나섰다. 추운 새벽에 장을 보고 들어온 봉사자들은 익숙한 장면인 듯 곧바로 부엌으로 들어간다. 반찬거리를 풀어 다듬고 쌀을 안치며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한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쉴 틈이 없다. 추운 겨울 새벽길을 뚫고 찾아온 손님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봉사자들은 눈코 뜰 새가 없다. 지난 2년간 급식소 회장을 맡았던 여 이사장이 급식소의 모습을 떠올렸다.

부산 범어사역 근처에서 매주 목요일 문을 여는 무료급식소에는 800여 명의 어르신이 찾아오고 있다. 한 달 동안 식비만 400만원이 넘고 일 년으로 치면 5400만원이 필요하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회장을 지낸 여 이사장은 급식소 회장을 맡았던 그 때가 가장 보람 있었던 시절 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여 이사장이 범어사와 인연을 맺은 지는 30년이 넘었다. 범어사에서 신행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여 이사장은 어느 날 부처님 말씀을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여 이사장은 불교대학을 생각했고 그때부터 여러 불교대학을 찾아 공부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이 범어사금정불교대학이었고 졸업 후 자연스럽게 총동문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

"무료급식소가 처음에는 구서동 지하철 근처에서 시작했어요.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활동을 펼친 건 20년이 넘었죠. 매주 목요일이면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회장직을 맡은 건 2년이었지만 급식소와 여 이사장의 인연은 그 2년이라는 세월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 이사장이 회장직을 지낸 것은 오랫동안 쌓고 다져온 신뢰와 정이 바탕이 되어 만들어진 자리였다. 여 이사장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는 범어사의 활동 주역으로 매년 연등행렬을 주도할 뿐 아니라 삼보일배 정진, 동지팥죽 나눔, 자비의 떡국 판매 등 다채로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사찰기행을 통한 문화탐방순례, 무료급식 지원 사업으로 개최하는 일일찻집, 범어사 전용 순환버스 동참금 지원, 독거노인 도시락 반찬 배달 등 동문회 활동은 범어사를 넘어 부산불교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리 잡았다.

여 이사장은 검은 정장에 꽃은 배지를 매만졌다. 배지에는 '바로 알고 바로 믿어 바로 행하자'라는 문장이 새겨져 있다.

불교대학 학훈이다. 여 이사장은 "마음에 새기고 싶어 항상 잊지 않고 옷깃에 달아 둔다"고 했다. 범어사금정불교대학총동문회 활동은 여 이사장의 숨은 봉사현장 중 하나일 뿐이다. 수많은 상장과 감사패가 쌓여 있는 것을 보며 그동안 진행한 봉사활동에 대해 물었다.

"연탄 나눔을 해마다 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조정위원, 마약퇴치 캠페인…"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녀는 손사래를 쳤다.

"뭘 이런 걸 설명을 해요? '봉사'라고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주변에 많은 도반들이 봉사를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함께 하면서 물이 든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소속된 기관이 봉사단체여서 삶이 온통 봉사로 채워졌던 것 같아요. 복을 진짜 많이 받은 삶입니다."

조금만 더 봉사와 나눔 활동에 대해 설명해 달라는 요청에도 그녀는 말을 아끼며 미소만 지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고 전화를 받은 여 이사장은 주소를 받아 적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전해오는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눌했고 거칠게 갈라져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이사장은 곧장 한의원으로 연락해 한약을 보내야 한다며 직원을 재촉했고 통화를 마칠 때 쯤 "돈은 제가 냅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약값을 안 받느냐고 질문하자 그녀는 크게 한 번 더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기도로 이어가는 신행

여 이사장은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손을 잡고 절에 다녔다. 불심이 깊었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절을 찾을 때면 언제나 편안함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의지로 절을 찾은 건 청년기에 접어든 스무 살 때였다. 누구나 그렇듯이 스무 살은 인생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중요한 때이다. 여 이사장 역시 인생의 많은 것들이 걸려있는 중요하고 간절한 시절이었다. 그 때 여 이사장은 부처님과 만난다.

"제발 시험에 합격할 수 있기를…"

B2면에 계속

INSIDE

B3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연재에 들어가며

B5
문화
2019~2020 '한국 관광 100선'

B6
학술 · 문화재
아픈 우리 문화재 수난사 총망라

30년 모은 문화재로 박물관 개관 '전법행'



지난해 11월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에서 주최한 구법 삼보일배 정진에서 여예진 회장이 회원들에게 격려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범어사 금정불교대학 총동문회 구법 삼보일배 모습. 선두에서 기도하며 발걸음을 옮기는 여예진 회장 .

'여예진 이사장'

B1면에서 계속

여 이사장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서 기도했다. 간절함이 만든 꿈이었을까? 여 이사장은 그날 밤 꿈에서 청수그릇을 보았고, 아주 맑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여 이사장은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한 기쁨도 컸지만 부처님의 가피를 경험했다는 것이 더 기뻤고 행복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기도의 힘을. 사람들은 '기복' 이라고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신심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기도를 통한 신행은 남편을 만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어졌다. 한의학 만학도였던 남편의 공부를 돕고 세 자녀를 키우기까지 여 이사장의 삶은 하루하루를 '견뎌냈다' 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시린 손을 비벼가며 아이들의 얼굴을 만져 온기를 전해야 했고, 저녁 반찬거리를 살 돈이 없어 눈물을 훔쳐야 했다. 어쩌다 돈이 생기는 날에는 시장에 나가 조금이라도 싸게 그리고 많이 사서 아이들을 먹였다. 여 이사장은 자신은 배가 고파도 아이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갈 때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동국대 한의학과를 졸업하고 병원을 개원하기까지 1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여 이사장은 그 힘겨운 시간을 정성어린 기도로 극복했다. 덕분에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

"아이를 등에 업고 또 한 아이의 손을 잡고서 자갈길을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다시 돌아오려면 하루 3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지요. 반찬거리 살 돈은 없어도 부처님께 올리는 꽃을 한 송이 가슴에 품고 행여나 잎이라도 떨어질까 노심초사 했어요.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정성' 이라는 단어의 뜻을 새삼 알게 됐어요."

여 이사장은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 의 의미를 진심으로 깨달았던 순간이라고 했다.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이 다하도록 귀의하고 정성으로 받든다' 는 의미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깊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였을까. 여 이사장의 기도는 '기복' 이라는 말로 밀어둘 수만은 없는 것이었다. 여 이사장과 남편 윤경석 원장은 1992년 10월 한국한의원을 개원했다. 환자가 줄을 이었다. 그리고 윤 원장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침술은 중풍 환자에게 탁월했고 국내 지방 한의원 가운데서 유일하게 중풍 부문 '코리아메디칼' 대상을 수상했다. 침술뿐 아니라 한방 약품에서도 정성을 다했다. 고압저온 탕제기로 약효를 올렸고 현대화 포장 방법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약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왔다. 26년 동안 운영한 한의원은 부산시 선도기업(바이오 헬스 부분)으로 인증 받고 모범 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한국의 한의학을 외국으로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현재 한국 한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복' 넘어선 기도 신행과 수행

힘겨운 시절 기도 가피로 극복

어려운 시험 합격, 한의원 개원

기도하며 기도의 진정한 뜻 새겨

"가피로 얻은 행복 다시 회향해야"

사중금박물관 열고 전법회향까지

이 모든 발전에 안팎으로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여 이사장이다. 그녀는 남편이 오직 환자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대외 활동에 최선을 다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시민을 위한 한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그동안 인내한 결과에 대한 보상인 듯 입소문이 나면서 한국한의원은 명성을 얻었고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이사장은 "모든 것은 변합니다. 지난 날 힘든 시간도 지금 얻은 성공과 명성도 모든 것은 변합니다. '제 것' 이라는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 을 되새기고 내려놓는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여 이사장이 전화기 속 할머니의 약값을 대신 했던 대목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박물관 세워 전법 회향도

여 이사장은 최근에 새로운 명함을 새겼다. '사중금(沙中金)박물관 관장 여예진' 이다. '사중금' 은 '모래 속에서 금을 캔다' 는 의미로, 참다운 가치를 알면 모래 속에서도 보석을 발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혜안(慧眼)을 상징한다. 여 이사장은 오랫동안 차 문화를 통해 익힌 안목으로 한국문화와 불교문화의 가치를 널리 세상에 알리고 싶었고, 사중금박물관은 그 의지의 실천이다. 여 이사장은 지난해 3월 31일 사중금박물관을 개관했다.

"민족의 혼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상은 곧 전통을 의미하고 전통은 지금 현재의 뿌리이자 정신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문화말살정책으로 훼손된 우리 민족정신을 바로 잡고 아름다운 문화를 선양하는 것은 곧 저희를 바로 알고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여 이사장은 전통을 바로 아는 것이 참된 '힐링' 이라 강조했다. 자신을 바르게 아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박물관에는 여 이사장이 30여 년 동안 모은 공예품, 회화 등 작품이 500여 점에 이른다. 여 이사장이 가까이 두고 함께 하며 보고 싶다는 열망으로 한 점 두 점 모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이다. 소장품 중에는 많은 불교 관련 문화재도 포함되어있다.

"우리 전통문화의 많은 부분을 불교가 채우고 있어요.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온 정신적인 뿌리에는 부처님 말씀이 곳곳에 녹아 있는 것이죠. 우리문화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부처님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 이사장의 신행은 이제 봉사와 나눔을 넘어 전법의 길로 접어들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여 이사장의 회향이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진다.

모두를 위해 기도한다면…

여 이사장은 힘겨운 시절을 기도를 통해 지나왔고 어려운 시간을 견디며 이룬 것들을 봉사와 나눔으로 회향하고 있다. 흔히들 기복에 치우친 신행은 옳지 못하다는 이야기들을 한다. 하지만 여 이사장에게는 그 이야기가 부질없는 의문이다.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한다면 그것은 수행입니다."

여 이사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기도가 기복에서 끝날 것인가. 수행으로 이어질 것인가는 그 기도의 형태와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여 이사장의 기도 역시 작은 기복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 이사장의 기도는 그 작은 의미를 넘어선 기도로 점점 커졌던 것이다. '모두를 위한 기도' , 이 시대가, 이 시대의 불자가 해야 할 기도가 아닐까. 오늘도 그는 '보살도' 를 이어간다.



미얀마라는 '프리즘'으로 한국불교 보다



조준호의
미얀마 수행처 이야기
① 연재에 들어가며



미얀마 옛 수도인 양곤에 있는 쉐다곤 파고다. 미얀마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 불탑이다. 둘레는 426m, 높이는 100m가 될 정도로 거대하다.

필자는 지난 2013년 〈현대불교〉에 '조준호의 미얀마 불교 이야기'를 16회에 걸쳐 연재한 적이 있다. 그 때 서론만 쓰고 말았다. 본론을 위한 도입부 이야기로 마친 것이다. 끝내 본론으로 진입하지 못했다. 어쩌면 내 속살을 보여주는 데 끝내 망설인 것이다. 아쉬운 감이 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어 시작해 보려한다.

필자가 미얀마를 처음 찾은 것은 지난 2011년 겨울 즈음이다. 총 82일 동안 미얀마 불교를 답사했다. 마하시 선원, 빠옥 총림 그리고 쉐오민 선원 등 주요 수행처에 머물렀다. 선원의 하루 일과표에 따라 좌선과 경행 그리고 수행 점검의 인터뷰 등을 행했다. 그리고 그 때의 일을 기록하였다.

앞으로의 연재는 6년을 묵혀 둔 기록이다. 물론 중간 중간 답사노트를 펴고 다시 읽어 보기도 했다. 현장 체험 이후이지만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의미가 되살아나는 것도 있었다. 당시의 수행처 일과와 관련하여 소소한 순간순간의 상황과 일상이 훨씬 더 객관적으로 대상화되었다. 계속되는 또 다른 재평가의 공부이다. 그 때는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점들이 뒤늦게 제대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시점과 장소를 달리하면 그 때의 일도 다르게 다가오기도 한다. 훨씬 깊이 의미심장하게 재음미되기도 한다. 그러면서 현지답사는 살아 계속된다.

수행처의 일상은 매일 반복된다. 나날이 기억기능은 명료하게 활성화된다. 위빠사나는 현재 이전의 과거의 기억을 온전하게 보는 것이다. 아니 과거의 기억이 드러나는 현재를 보는 것이다. 고로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보는 길이지 사색의 길도 탐색의 길도 아니다. 모든 일상이 생생하게 깨어 돌아간다. 감각기관 또한 매우 섬세해져 있으며 사유의 길이 완전히 멈춘 것도 아니다.

사유의 결과를 틈틈이 점검 차원에서 기록으로 남긴다. 기록은 일과표에 따른 공양의 전후와 중간 휴식 그리고 잠들기 전과 깨어난 후 시간을 활용한다. 무척이나 짧은 시간이 주어진다. 볼펜은 춤추듯 자동기술 한다. 어느 때는 손이 머리를 못 따라간다. 순간순간 손가락 끝에서 쏟아져 나온다.

왜 이러한 수행처 기록마저 남기려 하는가? 기록은 기억보다 앞서기 때문이다. 이 자체가 공부이기 때문이다. 기록을 통해 나의 공부는 점검된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얼마나 변형되고 왜곡되는지를 확인한다. 나는 기록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점검한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이야기는 과거 기억에 의존하여 기억의 편린을 재구성하려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이야기는 그 때의 나의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정제되지 않은 거친 점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 때의 기록을 가능한 그대로 내놓는 것은 부담이 된다. 대중 앞에 내 놓는데 낯 간지러워 다듬으려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가능한 자기검열을 최소화하려한다.

필자의 전공은 인도불교학 가운데 초기불교이다. 학부부터 석 · 박사에 이어 현재까지 줄곧 초기불교에 집중하였다. 특히 우리 현실을 떠나지 않은 초기불교 사상과 실천에 관심이 있다. 내가 '왜 미얀마불교인가'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미얀마는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오랫동안 초기불교 전통을 고수하여 왔다. 초기불교문화가 살아있고 이를 체험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불교 발상지인 인도에서 사라져버린 불교문화가 오히려 미얀마에서 전승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

필자가 처음 미얀마 불교를 접하게 된 것은 인도였다. 1990년부터 9년 동안 미얀마로부터 유학 온 스님들을 통해서이다. 미얀마 스님들은 대체로 학력과 법랍 그리고 수행력을 갖춘 나이 든 스님들이 유학 왔다. 스님들은 가르쳐주는 데에 아낌이 없었다. 경전 공부는 물론 상좌불교의 일상문화까지도 열의를 가지고 가르쳐 주었다. 마찬가지로 미얀마의 아비달마 공부 분위기와 수행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었다. 미얀마 스님들과 인도의 불교사찰에서 지내보기도 하고 여행도 해보면서 생활 속에서 불교와 미얀마를 이해해 볼 수 있었다. 스리랑카나 다른 나라의 스님들이 많이 있었지만 미얀마 스님들과의 관계가 특히 돈독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항상 미얀마불교는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1999년 귀국 후 국내 생활은 논문 쓰기에 바빴다. 그 가운데 초기불교 수행론에 관한 발표는 학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발전하였다. 내가 제기한 사띠(sati) 개념과 사마타 위빠사나의 관계성 등이 그것이다. 지금에 있어 그 동안 문제되었던 점들이 정리된 점도 있다. 그 후 한동안 수행론 발표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1~2년 안에 이제까지 내가 제기해 온 문제들을 새롭고 분명하게 다시 제출하려 한다.

쟁점에 있어 이론과 실천, 개념과 수행 상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일의 일환으로 그동안 국내의 쟁점을 미얀마로 가지고 갔던 것이다. 미얀마 스님들의 입장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다.

대체적으로 미얀마 스님들은 법의 논의에 있어 경론 근거를 들어준다. 상당한 신뢰를 준다. 인도에서 함께했던 스님들과 수행처의 수행승들을 찾았다. 준비해 갔던 질문을 풀어보았다. 많은 점들을 다시 배울 수가 있었고 또한 확인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신을 납득시킬 수 없는 개념상의 문제와 실천의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2011년 82일간 미얀마 체류
마하시 · 빠옥 등 수행처 답사
살아있는 수행의 힘 느껴져

한국 떠나면 한국이 보이듯
미얀마 통해 한국불교 비교

다시 미얀마를 찾은 해는 그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2년이었다. 이때는 석사 과정을 같이 했던 미얀마 스님의 시골 절을 멀리 찾았다. 스님의 사찰은 40여 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석사를 마치고 인도를 떠나 호주로 유학했던 스님과 오랜만에 진지한 토론을 벌였다. 이때 스님은 토론의 결과로 위빠사나와 관련한 유명한 경구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던졌다. 나 또한 논문에서 그 의미를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인데 새삼 스님은 완전한 이해에 다다르지 못했다고 한다. 다시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스님이 던진 문제를 안고 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위빠사나에 대한 논의는 미얀마 몇몇 선원에서 행해지는 행법을 반영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미얀마 수행처를 내왕하는 연구자들과 논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초기불교의 수행법으로 바로 간주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필자는 이러한 차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미얀마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한국인이 많이 머무는 유명한 미얀마 선원을 찾아보았다.

선원의 일과표는 새벽 3시에 시작한다. 선방은 매 시간 좌선으로 일과가 짜여 있다. 선방 이외는 아침 공양과 점심 공양 그리고 수행을 점검하기 위한 인터뷰 시간 등이 반복되는 일상이다.

점차 시간이 지나자 미얀마 불교문화가 초기불교와 관련하여 포착되기 시작했다. 인도가 온전한 불교 전통이 단절되어버린 반면에 가까이 접경해 있는 미얀마에서 오히려 초기불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초기경전 속에 나타난 일들을 미얀마 불교현장에서 보게 될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두 번이 아니다. 확실히 미얀마는 초기불교의 모습을 많이 보존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나라보다 생활불교로 일상 삶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얀마 선원의 답사 과정에서 각국의 수행자는 물론 한국의 많은 수행자를 만났다. 여기에는 출 · 재가를 막론하고 불교인이 아닌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오래 전부터 미얀마를 내왕하면서 미얀마와 미얀마 수행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숨어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여러 수행처까지 찾아서 수행하고 있다는 데 대단하게 여겨졌다. 그러면서 우리의 과거가 떠올랐다. 중국으로 구법 · 유학했던 과거의 한국불교 상황이 현재 미얀마의 여러 가풍의 수행처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이다. 마치 삼국과 고려의 수많은 수행자들이 중국의 수당에 구법 · 유학했던 시대가 미얀마에서 재연되고 있으며, 다시 현재 한국에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법이 구산선문의 상황처럼 재연되고 있다는 착각이 일 정도였다.

이러한 답사과정에서 미얀마나 외국 수행자보다는 한국 사람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주로 사마타 위빠사나에 대한 수행과 간화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다. 그리고 많은 것을 느끼게 하고 생각하게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다. 또는 나의 글을 읽었다거나 나의 강의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어떤 요기(수행자)는 그 동안 논의되었던 위빠사나 수행론에 관한 논문을 출력해 와서 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논의는 더 진지해질 수 있었다.

한국이라는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묶여있던 의식이 풀린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연의 민낯을 보여주고 드러내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나눌 수 없는 교감과 공감이 새삼스레 외국에서 가능한 경우도 있다. 불교와 사회 그리고 인간 전반에 관한 이야기가 허심탄회하게 오간다.

우리 사회와 한국불교 현실에 대한 사색과 성찰 그리고 반성과 비판의 이야기는 끊임없다. 물론 미얀마나 다른 불교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 수십 년 걸쳐 배울 것을 해외에서 단 몇 달 만에 집중적으로 압축하여 배운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한국을 떠나면 한국이 새롭게 보일 수 있다. 한국을 떠나서 한국불교가 제대로 보이기도 한다. 미얀마불교를 통해 한국불교가 훨씬 잘 보일 수 있다. 안에서 잘 안 보이던 것이 다른 나라의 불교와 만나게 될 때 그 동안 전혀 몰랐던 여러 면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도 한다. 다른 나라의 불교를 접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불교에 대한 공부가 된다. 늘 비교적으로 한국불교의 면모를 생각해 보게 된다. 한국불교 뿐만이 아니라 한국문화와 한국불교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해 보게 된다.

앞으로 연재에서는 미얀마 수행처에서 기록한 일들을 소개하려 한다. 여기에는 위빠사나 수행처의 현황과 일상 그리고 시설과 관리 등도 포함된다. 그 가운데 빠옥 총림의 수행처가 중심이 될 것이다. 현재 미얀마에서 빠옥 수행처는 규모가 가장 크고 또한 유명하다. 우리나라 수행자들도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머물며 수행하는 도량이다.

이러한 수행처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생각했던 점들을 말하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의 현안과 과제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동시에 한국을 통해 미얀마불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간에 교류가 중요시 되는 시대에 불교의 문제를 좀 더 다른 각도로 진단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국대 미래융합교육원 외래교수〉

조준호 교수는
동국대를 졸업하고 인도 델리대 불교학과 석사 · 박사를 받았다. BK 21 불교사상연구단, 동국대 불교학술원 전임연구원,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교수, 고려대 철학과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 〈우파니샤드 철학과 불교〉, 〈동남아불교사사〉(공저)를 발간했고, 주요논문으로 '위빠사나 수행의 인식론적 근거', '초기불교에 있어 행복과 욕망' 등이 있다.





0.2평 방석서 내 인생 기적 만든다



내 인생을 바꾼 108배
박원자 지음/나무를 심는 사람들 펴냄/1만 5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인생 큰 위기 때 108배로 삶의 전환점 찾아
"절에 집중할 때 번뇌 사라지고 몸과 마음 편안해져"
108배 과정은 자신의 간절한 발원 묻고 또 묻는 과정
절 수행 통해 기적 일궈낸 많은 수행자 이야기 소개

완전운동 108배로 마음까지 다스린다

10년 전 일반 공중파 방송서 절 수행을 기획해 한때 일반인들에게 절 열풍이 분 적이 있다. 제목은 〈0.2평의 기적〉이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몸을 낮추면 방석을 깔고 앉은 0.2평서 기적이 다가온다는 내용이다. 뚝뚝 떨어지는 굵은 땀방울과 함께 마음속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과정을 통해 몸은 물론 마음까지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게 주된 이야기다.

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절 운동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기적의 운동으로 각광 받는다. 척추와 무릎을 바로 잡는 효과는 물론 절 운동을 통해 혈당 수치 및 고혈압 등을 잠재움으로써 성인병을 멈추게도 한다. 절을 통해 효과를 본 사람들은 몸은 물론 마음 건강까지 얻게 됐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절 운동이 겉으로 보이는 신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의 건강까지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다.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뇌 자극으로 집중력을 높이게 되는 것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절 예찬론자인 저자가 들려주는 108배 효과

그렇다면 108번 몸을 굽히고 108번 일으켜 세우는 이 단순한 동작에 어떤 변화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번에 새로 펴낸 〈내 인생을 바꾼 108배〉의 저자 박원자 작가는 스물 셋, 내장사 겨울 수련회서 처음 절을 해봤다. 차디찬 법당인데도 앞에서 절하는 선배 스웨터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걸 보며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절을 하지" 하고 의문을 품은 것이 저자가 체험한 절에 대한 첫 느낌이었다. 그 뒤 간헐적으로 108배를 했지만, 진정한 108배의 시작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막막하고 힘들던 마흔 즈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늘 남의 집에 들어와 사는 머슴처럼 불행하게 산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였다. 고통서 벗어날 방법을 찾던 중에 108배와 다시 조우한 것이다.

당장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에 휩싸여 남편을 향한 원망이 커갈 때였다. 가장 가까운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자신을 괴롭게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며 오직 고통 탈출을 위해 하루 108배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육체가 힘들어 지기는커녕, 절을 하면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몸이 가벼워지면 마음도 따라서 깃털처럼 가벼워진다는 것을 체험했다. 마음이 본래 자리로 돌아가자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았는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저자는 이 시절의 108배를 돌아보건대 "내 인생서 가장 크고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고,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절에만 집중할 때 번뇌가 사라져 몸과 마음이 한없이 편안해진 것을 경험한 저자는 그 후 20여 년 가까이 108배를 통해 마음 수행과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절 수행에 관한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접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108배를 적극 권유하고 있다. 절 수행 포교가 된 셈이다. 108배는 인생과 닮아 있어 고비를 넘기는 일이 중요한데, 살면서 큰 고비를 넘겨 본 사람은 웬만한 어려움은 수월하게 넘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강조한다.

특히 이 책은 성철 큰스님이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왜 무조건 절을 시켰는지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흔 즈음 인생의 큰 위기를 맞았을 때 108배를 통해 삶의 전환점을 찾은 저자 자신의 경험과 여러 절 수행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해 108배의 기적 같은 효능을 소개하고 있다.

성철 스님은 왜 절을 시키셨을까?

성철 스님은 화두 받으러 온 스님들에게 반드시 최소 3만 배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도 3천 배를 하지 않으면 만나주질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3천 배를 해야 만나준다는 말인가' 라는 세간의 오해도 많이 받았다. 그렇다면 대체 성철 큰스님은 왜 절을 시키셨을까?

3천 배를 하고 나면 심중에 무엇인가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오로지 직접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다고 큰스님은 말했다. 저자는 이를 절을 하는 동안 자신의 삶과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정화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고통 받는 것은 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 및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생겨난 결과 때문이란 것을 생생히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이렇게 불교 인연법을 절 수행을 통해 깨달으며, 자신에게 그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는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진정으로 참회하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고 저절로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고 저자는 책 속에서 경험을 피력한다. "자신이 지은 죄만 참회한다면 수행자라 할 수 있는가? 남이 지은 죄도 참회하는 사람이 진정한 수행자다"라고 말씀하시며, 평생 쉼 없이 일체중생을 위해 참회의 절을 하는 것으로 솔선수범했기에 성철 스님은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것이라 저자는 주장한다.

저자가 들려주는 성철 스님과 관련된 108배 이야기는 수행의 힘이 얼마나 삶을 크게 변화시키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 준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후학들을 이끌며 비구니 승가의 출가 정신을 확립시키는 데 앞장선 인홍 스님이 췌장염으로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성철 스님의 처방을 받들어 21일 동안 1분 1초도 멈추지 않고 기도와 108배 수행한 석남사 비구니 스님들, 큰스님께 화두를 받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3만 배를 했던 여러 수행자들, "부처님 멱살이라도 한 번 잡아 보고 죽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3천 배를 권유한 성철 스님 덕에 목숨을 살린 현각 스님 등 절 수행을 통해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 낸 많은 수행자들의 이야기들이 책 속에서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불가능 없다. 변화 절박함 없는 그대들 있을 뿐!"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108배를 통해 삶을 변화시킨 사례들은 수없이 많다. 중학교 때 조기유학을 떠나 홍콩서 국제변호사가 된 한 젊은 여성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108배만큼 좋은 의지처는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회의가 들거나 앞날이 두려울 때 108배를 하며 마음의 안정을 얻었다. 108배 하는 시간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묻고 또 묻는 과정이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스스로 확신을 얻고 다시 일어나 도전했다고 한다. 그밖에도 강한 성격을 108배를 통해 원만하게 고쳤다는 40대 남성과 부모를 잃고 가정의 우환까지 겹쳐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한 달에 한 번 3천 배를 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극복한 이야기 등 108배로 행복을 찾은 이야기들은 108배 수행으로 독자들을 이끌기에 충분한 체험기들이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108배 같은 단순 동작으로 인생을 변화시켰을까? 저자는 해인사 금강굴서 정진 중인 불필 스님에게서 그 해답을 찾는다. 성철 스님 법제자로서 불필 스님 또한 찾아오는 이들에게 108배를 권한다. 하지만, 절을 하면 어떤 변화가 오고 무엇이 좋은지 설명도 없이 그저 '해 보시지요' 한 마디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마치 선생님이 내 주는 숙제를 기꺼이 받아 들이는 초등학생처럼 "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선뜩 나선다. 저자는 이들에게서 스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좀 더 나은 나로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필 스님은 "일단 해 보면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솟아나는데 안 할 수 없지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 스스로 횟수를 늘리게 되지요"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수행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소개된다. 3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천 배를 하며 뇌성마비를 이겨낸 중견 화가 한경혜 씨와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진정한 장애는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또한 3백 일 동안 하루 1만 배 수행 하며 올라선 경지로 한결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정진을 돕는 선림사 보우 법사의 이야기는 청정한 한 마음이 한 국토를 변화시킨다는 〈열반경〉의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

마음수행과 건강 챙기는 최적의 홈트 108배

저자가 밝히는 108배 수행의 최대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만 먹으면 바로 그 자리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에 방석 하나만 있으면 된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최적의 홈트레이닝인 것이다.

초보자들의 경우 108배 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5분 내외인데, 같은 시간 대비 빠른 걷기와 수영, 테니스를 하는 정도의 열량 소모가 된다고 한다.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방석 하나 펼 자리면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바쁜 현대인들에게 효과적인 운동법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소개한다.

108배는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결합된 복합 운동이어서 목과 골반, 허리서 다리까지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 발달에도 좋다. 또한 절 하는 동안 뜨거운 기운은 내려오고 찬 기운은 올라가서, 머리는 차고 배는 따뜻해지는 '수승화강' 이 되어 혈액과 기운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몸의 균형도 유지된다.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 있는 학생이나 직장인들은 대부분 근육이 뭉쳐 있어서 뒷목이 뻣뻣하고 머리가 무거운데 절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단전 호흡이 되면서 뭉친 근육도 풀릴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이외에도 저자는 책 속에 언제 절을 하면 좋은지, 올바른 절하기 동작, 호흡법 등 108배를 처음 하는 초보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팁을 정리해 놓았다. 기해년 새해 아침을 절 수행으로 맞이해 보는 것이 어떨까? 방석만 준비하면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계획 세우지 않아도 당장 시작할 수 있고, 더군다나 다이어트는 물론 마음도 가벼워진다면 그것만큼 의미있고 멋지게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또 있을까?

저자 박원자 작가는?

숙명여자대서 중국문학을 전공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불교를 만나 수행으로 삶을 다져 갈 수 있던 것과 수행자들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던 것을 인생의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기는 불교 전문 작가다. 동국대 역경위원을 역임했고, 그동안 쓴 책으로는 수행자들에게 삶의 길을 물은 〈인생을 낭비한 죄〉, 비구니 역사의 산증인인 인홍 스님의 인생을 기록한 〈길 찾아 길 떠나다〉, 스님들의 행자 시절을 엮은 〈나의 행자시절〉, 〈이 땅의 유마 대원 장경호 거사〉 등이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前 종정 법전 스님의 수행기와 혜암 스님의 유고 법문집 등을 정리, 진행했다. 수행자들의 초심을 취재한 〈간절하게 첫 마음으로〉(가제) 출간을 앞두고 있다.

2018년 도서출판 운주사 우수도서 선정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18 세종도서 학술부문

2018 세종도서 교양부문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 저/신국판/416쪽/값 22,000원
소유가 인간 삶에서 지니는 의미와 역할, 소유의 본질과 전개 등에 대해 초기불교, 선불교, 서양철학, 경제학, 심리학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조명!

송시의 선학적 이해
박영환 저/신국판/536쪽/값 27,000원
중국문학의 최고봉으로 평가되는 송대의 시가詩歌를, 선종의 관점에서 회통과 융합이란 주제로 치밀하게 연구한 역작!

다문화 사회와 철학
이정은 · 이병욱 · 정창호 저/264쪽/값 13,000원
200만 외국인 시대를 맞이한 한국 사회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철학적으로 성찰하였다!

참여와 명상, 그 하나됨을 위한 여정
이정배 외 저/신국판/256쪽/값 13,000원
사회참여와 개인의 내적 성장(명상)은 함께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표적 종교의 전문가들이 이 둘의 상관관계와 공존 가능성을 성찰한 책.

삼계교 연구
수당시대에 선종, 정토종 등 불교종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400여 년 간 영향을 끼친 삼계교 대한 연구 성과들을 총 정리한 역작!
서본조진 저/박부자 역/716쪽/값 3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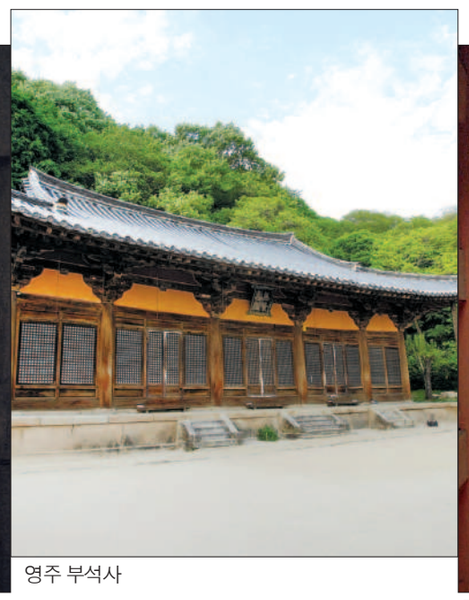
붓다와 프로이트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고, 뉴욕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저자가 양자의 상호융합의 길을 모색한다.
마크 엡스타인 저/윤희조 · 윤현주 역/
336쪽/값 15,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 자유문고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해남 미황사


경주 불국사


경주 석굴암


영주 부석사


합천 해인사 장경각

올해 꼭 가봐야 할 사찰은?

문체부 선정한 '한국관광 100선'
미황사 등 전국에 사찰 다수 포함
불국사, 해인사 4회 연속 선정
설악산 · 오대산 등에 名刹 산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올해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사찰은 어디일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2019~2020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100대 관광명소 한국관광 100선'을 선정 발표했다. 100선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전국의 주요 사찰들이 다수 포함됐다.

'한국관광 100선'은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우수 관광지 100곳을 2년에 한 번씩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사찰은 4회 연속 선정된 경주 불국사와 석굴암, 합천 해인사, 3회 선정된 영주 부석사, 올해 처음 선정된 해남 미황사다. 이 밖에도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설악산, 오대산, 백제유적지, 무등산, 내장산, 마이산, 팔공산, 주왕산 등에 한국을 대표하는 사찰들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관광 100선'은 지난해 선정된 '한국관광 100선' 평가, 지자체 추천,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한 예비후보 2배수 발굴,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하는 1차 서면평가(정성 · 정량), 2차 현장평가, 3차 최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정성평가는 학계, 여행업계, 여행작가 · 작가, 여행 동호회(커뮤니티) 회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13인이 참여해 진행하며, 정량평가는 이동통신사, 내비게이션, SNS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한다.

이번 '한국관광 100선'에는 권역별로 수도권 26곳, 강원권 13곳, 충청권 10곳, 전라권 14곳, 경상권 28곳, 제주권 9곳이 선정됐다.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열린관광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 대상이며, 내 나라 여행박람회 참여와 대국민 홍보여행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현재 제작되고 있는 '한국관광 100선' 지도와 기념품이 전국 관광안내소와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배포된다. 국문 관광정보 제공 누리집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에서는 한국관광 100선 선정지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공하며, 영어, 일어, 중어 등 외국어로도 번역해 전 세계에 한국 우수 관광지로 소개한다.

문체부 김현환 관광정책국장은 "내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에게 소개할 만한 대표 관광지를 찾을 때 '한국관광 100선'이 도움이 될 것이다"며 "100선 선정이 영예와 목표가 되어 국내 관광지들의 동반 성장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황사(전남 해남군 송지면 미황사길 164) / (061)533-3521

이번 100선에 처음 선정된 천년고찰 미황사는 육지의 사찰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자리하고 있다. 남해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달마산(489m) 서쪽 기슭에 안겨 있는 미황사는 한 폭의 산수화 같은 달마산의 풍광과 아름다운 섬들로 둘러져 있는 호수 같은 바다의 절경을 선사한다. 보물 947호인 대웅보전의 꽃살문과 빛바랜 단청, 자하루 너머로 기우는 석양의 풍경이 일품이다.

▲불국사 · 석굴암(경북 경주시 불국로 385) / (054)746-9913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불국사 · 석굴암은 '한국관광 100선'에 4회 연속으로 선정됐다. 토함산의 풍광과 함께 하는 불국사는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그 중 석굴암(국보 제24호)은 자신의 나라가 부처님의 나라라고 믿었던 신라인의 이상향으로 '불국토'라는 또 다른 풍경을 선사한다.

▲해인사(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 (055)934-3000

불국사와 더불어 4회 연속 선정된 법보종찰 해인사는 세계기록유산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을 볼 수 있는 곳이다. 가야산 풍광을 완성하는 격조 깊은 천년 가람과 성보의 법향으로 특별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부석사(경북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 (054)633-3464

의상 스님과 선묘의 전설을 가진 부석사(세계문화유산)는 한국전통건축의 건축미를 보여주는 무량수전(국보 18호)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전설을 품은 도량과 아미타부처님을 모신 무량수전이 빚어내는 고즈넉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밖에 ▲남한산성(세계문화유산) / 망월사, 장경사, 국청사 ▲설악산 / 신흥사, 백담사, 오세암, 봉정암, 안락암, 내원암, 계조암, 영시암, 안양암, 성국사, 석황사 ▲오대산 / 월정사, 상원사, 사자임, 북대사 ▲부여 · 공주 백제역사유적지(세계문화유산) / 영은사, 삼충사, 서복사지, 정림사지 ▲무등산 /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규봉암, 만연사 ▲내장산 / 내장사, 백양사, 원적암, 벽련암, 약사암, 청류암 ▲마이산 / 탑사, 금당사, 은수사 ▲주왕산 / 대전사, 백련암 ▲한라산 / 관음사, 석굴암 등이 있다.

불교음악원 제2기 불교합창아카데미 모집

오는 2월 22일까지 접수
오디션 2월 27일 오후 2시
2월 28일 합격자 개별통보

조계종 불교음악원(원장 박범훈)이 '불교합창아카데미' 제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불교합창단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적인 합창교육을 위해 지난 해 설립된 '불교합창아카데미'는 '붓다', '보현행원송' 등의 찬불가를 작곡한 박범훈을 필두로 김성녀(국립창극단 예술감독) 유희성(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이 창극, 뮤지컬 등의 형식을 갖춘 찬불가 교육을 담당한다. 율동에 필요한 무용은 한국무용의 대가 국수호(디딤무용단 이사장)명인이 지도하고 민요의 실체는 유지숙(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전수조교), 박애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 최수정(중요무형문화제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등의 명창이 지도한다. 신작찬불가는 박범훈 원장과 김회경교수(동국대학교 한국음악과)등, 찬불가를 작곡한 작곡자가 직접 지도한다.

불교합창에 관심 있는 스님과 불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시에는 수료증이 수여된다. 또 불교음악원 정회원 및 불음합창단 단원 우대 혜택이 있고, 불교방송 및 불교행사에 출연하게 된다.

접수기간은 2월22일까지며 60명을 모집한다. 오디션은 2월 27일 오후 2시 불교음악원(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에서 진행한다. 오디션은 자유곡(찬불가) 1곡이며, 사찰소속 합창단원의 경우는 면접만 보면 된다. 총 교육기간은 32주(주당 2시간, 총 64시간)이며,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다. 동창금은 월 4만원이며, 교육 내용은 찬불가(교성곡 포함), 뮤지컬, 연희, 민요, 무용(전통, 현대) 등이다. 교육장소는 불교음악원이며, 합격자 발표는 2월 28일 개별통지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불교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및 불교음악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3218-4866.

박재완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1월 '큐레이터와의 대화'

특별전 '대고려,~그 찬란한 도전' 등 진행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의 참여형 프로그램 '큐레이터와의 대화' 1월 프로그램에서는 특별전 '대고려, 918 · 2018 그 찬란한 도전(2018년 12월 4일~2019년 3월 3일)'과 '황금인간의 땅, 카자흐스탄(2018년 11월 27일~2019년 2월 24일)', '손창근·손세기 기증 명품 서화전(2018년 11월 22일~2019년 3월 24일)'의 해설이 진행된다.

이 밖에 상설전시관에서는 '불교조각실에서 배우는 산스크리트어(1. 23)', '감은사 동탑출토 사리구(1. 30)' 등 다양한 시대와 장르의 전시품에 대한 풍부한 설명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들을 수 있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매주 수요일 18:00~18:30 / 19:00~19:30(공휴일이 수요일인 경우 프로그램 없음), 2회 진행한다.

'큐레이터와의 대화'는 별도의 예약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2)2077-9000.

박재완 기자





아픈 우리 문화재 수난사 망라하다

경북도 등 문화재 수난일지 · 사찰재산대장 집성 발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당시 우리 문화재가 어떻게 도난 · 반출되고 훼손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백서들이 발간됐다.

경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은 최근 〈구한말 · 일제강점기 경상도 지역의 문화재 수난일지〉(이하 문화재 수난일지)를 발간했다.

〈문화재 수난일지〉는 말 그대로 경상도 지역의 문화재가 어떻게 일제에 의해 도난 · 반출 · 훼손됐는지를 시기별로 정리해 놓은 일종의 백서다. 근대 시기의 우리 문화재의 수난사는 1879년부터 1945년까지 반세기 이상이 이어진다. 그 양도 많아 백서가 부록을 포함해 1247쪽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우리 문화재 수난사를 30년 동안 연구한 정규홍 씨는 대표 저자로 참여해 각종 문헌과 신문 · 잡지 · 박람회 전시 목록 등을 세밀히 조사하고 수난의 근거로 제시해 역사적 사실들을 확보했다.

백서에 기록된 첫 불교 성보문화재 수난 기록은 1903년 불국사 다보탑석사자상의 반출이다. 본래 불국사 다보탑석사자상은 4구가 안치돼 있었으나, 현재는 1구밖에 남아있지 않다. 일본의 동양미술사학자인 세키노 타다시(関野貞)은 1902년 4구에 돌사자가 있었음을 증언했으나 다시 찾았던 1909년 2구가 사라졌음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당나라 식의 분황사 석사자와 함께 당시 양식을 대표하는 귀중한 표본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비교적 완전한 2구는 일본인이 일본으로 가져갔다"고 기술했다.

백서는 당시 기록들을 분석해 다보탑의 돌사자상이 1902년 이전 1구가 사라졌고, 남아있던 1~2구는 1903년 일본으로 반출됐고, 이후 영국과 프랑스의 박물관으로 팔려가거나, 어떤 1구는 일본 우에노 서양헌 정원에 1935년까지 있었음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 훼손도 이어졌다. 1918년에 일제 총독부는 부석사 조사당과 무량수전을 수리했다. 조사당의 경우 흙벽으로 된 조사당 외벽을 회를 섞어 표면을 고르게 하자 사람들의 낙서판이 돼 버렸다. 무량수전의 경우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 일제는 수리를 하며 무량수전 외벽에 그려진 벽화들을 모두 노란색으로 칠해버렸고, 고려시대부터 이어져 오던 귀중한 불교 벽화는 사라지고 말았다.

또한 일본군에 의해 천주사 · 도성암 · 낙사암 · 동암 · 청곡사 · 각화사 · 비로사 등이 방화 · 소실됐으며, 안국사 · 청계사 등이 몰소 됐다.

백서에 기록된 수난일지를 따라가다 보면 시대별로 그 유형들을 파악할 수 있다. 초창기에는 일본인의 이주와 함께 문화재 조사들이 이뤄진다. 조사와 발굴들이 진행되며 문화재 도난과 훼손들이 나타나며 일본에 반출되기 시작한다. 반출된 문화재는 일종의 박람회를 통해 소개되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1941~1943년에는 일본의 총동원령에 의해 사찰 · 유림 등에서 불구와 제기 등을 헌납하는 사례로 나타난다.



경상북도와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이 간행한 〈구한말 · 일제강점기 경상도 지역의 문화재 수난일지〉와 두 기관과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발간한 〈일제강점기 경북 사찰재산대장 집성 上〉. 두 책 모두 일제강점기 시기 우리 문화재의 수난을 알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1879~1945년 일제강점기 당시
경상도 지역 문화재 피해 정리
경주 불국사 다보탑 돌사자 도난
영주 부석사 조사전 외벽 낙서 등
성보 반출 · 훼손 경위 파악 가능

정규홍 씨는 "구한말 이후 우리가 문화재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서구 열강에서 건너온 선교사나 공사관, 통역관들에 의한 반출이 상당했다"면서 "가장 큰 피해는 개항 이래 한국에 건너온 일본인들에 의한 약탈 행위로 이들은 사찰과 사지에 면면히 존속돼 온 불상 · 석조물들을 무단 방출하고 훼손 · 변형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상북도 · (사)한국국외문화재연구원 ·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가 발간한 〈일제강점기 경북사찰대장 집성 上〉도 주목할 만 하다. 이는 20세기 전반 개발 사찰에서 정리한 재산대장과 귀중품 목록, 조선총독부 관보에 수록된 재산목록 등을 정리한 것으로 기존 사찰에 어떤 성보문화재가 봉안돼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 자료다.

이를 통해 일제 시기부터 한국전쟁 전후 · 현대에 걸쳐 각 사찰 성보들의 명칭과 수량들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으며, 적요란에 조성연대와 작가가 기록돼 문화재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선일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한국 불교문화재는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중 많은 피해를 입었다"며 "책의 발간을 통해 사찰에서 유출되고 도난당한 불교문화재가 한 점이라도 사찰로 돌아오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직지사 성보문화재 디지털화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 직지사 업무협약 체결

50여 말사 · 성보박물관 등 소장 고문헌 조사 진행

직지사와 본말사 등에 소장된 성보문화재가 디지털화 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은 "직지사와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구랍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ABC)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직지사 성보박물관과 50여 말사가 소장하고 있는 불교 고문헌을 정밀 조사하게 된다.

직지사 성보박물관은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국보 제208호), 김룡사 사인비구주조 동종(보물 제11-2호), 직지사 석조약사여래좌상(보물 제319호) 등 수천 점이 넘는 성보를 소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예념미타도량참법(보물 제1241호)', '백지금니금강(白紙金泥金剛) 및 보문발원(普門發願)사경(보물 제1303호)', '묘법연화경(보물 제1306호)' 등 귀중한 경전이 포함돼 있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이번 직지사 소장 문헌은 5천만화소의 고해상도로 촬영해 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서비스 시스템(kabc.dongguk.edu)'을 통해서 서지 및 이미지 자료 등을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동국대 불교학술원은 2012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동국대의 지원으로 ABC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ABC사업은 고문헌에 대한 집성과 역주작업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출판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해 불교 기록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및 문화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불교학술원과 직지사는 구랍 27일 '불교기록문화유산 조사 · 촬영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문정왕후 발원 '회암사 약사삼존도' 보물 지정

문화재청 지정 공고… 조선시대 불교조각 등 3건도


조선 중종의 계비 문정왕후가 아들 명종을 위해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 보물 제2012호로 지정됐다.

조선시대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16세기 문정왕후가 발원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와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등 조선 시대 불교 조각과 고려 · 조선 시대 불교경전 등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보물 제2012호로 지정된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1565년(명종 20년) 중종 계비 문정왕후(文定王后, 1501~1565)가 아들인 명종(明宗)의 만수무강과 후손 탄생을 기원하며 제작한 400점의 불화 중 하나로, 경기도 양주 회암사의 중창에 맞춰 조성된 것이다.

회암사의 대대적인 불화 조성을 추진한 문정왕후는 당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왕실 여성이자 많은 불사(佛事)를 추진한 불교 후원자였다. 회암사는 문정왕후의 후원을 받은 승려 보우의 활동기에 전국 최대 규모의 왕실 사찰로 번창하다 쇠퇴해 19세기 초 폐사지가 됐다. 현재 '회암사지'는 사적 제128호로 지정돼 있다.

이 불화는 가운데 본존인 약사여래를 중심으로, 왼쪽에 월광보살(月光菩薩) · 오른쪽에 일광보살(日光菩薩)을 배치한 간략한 구도로, 금니로 그려 매우 화려하고 격조 있는 품위를 보여준다. 주존불과 보살 간에 엄격한 위계를 두어 고려불화의 전통을 따랐고 갸름한 신체와 작은 이목구비 등 조선 전기 왕실 발원 불화의 특징이 잘 반영돼 있다.

당시 제작된 총 400점의 불화는 대부분 흩어져 현재 미국과 일본 등지에 총 6점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사여래삼존도'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회암사'명 약사여래삼존도는 조선 시대 최대 규모 왕실 불사회암사에서 제작한 역사적, 불교사적으로 상징성이 높다"며 "조선 전기 왕실불교 부흥에 영향을 끼친 왕실 여성들의 활동과 궁중화원이 제작한 불화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은 보물 제2011호로 지정됐다. 목포 달성사 지장보살삼존상은 1565년(명종 20년) 향엄(香嚴) 등 5명의 조각승이 참여하여 조성한 작품으로, 지장삼존, 시왕, 판관과 사자 등 19구로 이루어진 대단위 불상군이다.

이밖에도 고려 공민왕대에 간행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3은 보물 제875-3호에, 조선 초에 인출된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5은 보물 제1543-2호에 각각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대고려전 보고, 전문가 강연도 듣고

2월 14일까지 진행… 박동춘 소장 '고려 제다' 등

지난해 12월 4일부터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배기동)의 고려 건국 1100주년 특별전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과 연계된 전문가 초청 강연이 마련됐다.

오는 2월 14일까지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전문가 초청 강연은 지난해 12월 20일 고려불화와 불복장 관련 강연을 시작으로 총 4회 진행된다.

1월 10일 열린 2회 강연에는 심연옥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고려시대 직물과 문양'을, 채해정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가 '고려시대의 금속공예'를 강의했다.

1월 24일 제3회 강연은 데라시마 노리히토 일본 오쓰시역사박물관 학예원의 '오쓰시와 한반도-고대부터 이어진 친밀한 관계', 정명희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의 '대고려 특별전의 기획과 구성'이 진행된다.

오는 2월 14일에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의 '고려시대 제다와 탕법', 이현숙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전문경력관의 '국립중앙박물관 특별전의 연출과 디자인'이 강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대고려- 그 찬란한 도전' 특별전 연계 전문가 초청 강연회는 사전 예약 필요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신성민 기자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포천로 224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

박재완의 PhotoEssay



오늘을 맞는다는 것

저녁 창을 바라보는 일에도

이유 하나쯤은 있는 것인데

다한 것들을 스치는 일에는

붉어진 눈 한 켤레쯤 있어야 하리

'오늘' 은 그런 것이니

말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과

말없이는 살아가지 못하는 것들이

이 아침에 다시 만나는 일에는

꽃보다, 하늘보다, 바람보다

더 오래된 가슴 하나는 있어야 하리



삼중 스님의 남기고 싶은 인연

㉕ 김일 선수 上

박치기왕의 마지막 소원 '진돗개 동상'

'박치기 왕' 하면 누구나 김일 前 프로레슬러를 떠올릴 것이다. 김 선수는 1960~70년대 프로레슬링계를 제패한 국민 영웅이다. 2006년 10월 26일, 나는 김 선수 곁에서 그의 마지막을 함께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늘 내 가슴 속에 스포츠 영웅으로 살아 있다. 나와 김일 선수와의 인연은 각별하다.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김일 선수도 차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일간지를 비롯한 어떤 언론사도 김 선수의 행방을 찾지 않던 때였다. 나 역시 어릴 적 흑백 텔레비전에 나온 김 선수를 응원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일면식도 없는 유명인과 인연이 닿은 것은 우연이었다.

1993년 어느 날,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재미교포 여성 불자를 만났다. 그 여성은 나에게 후쿠오카에서 박치기 왕을 만났다고 전했다. 김일 선수가 후쿠오카 변두리에 있는 작고 허름한 병원에서 '다 죽어간다' 는 이야기였다. 비행기 표 마련할 돈이 없어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김 선수의 딱한 사연도 함께 전했다. 박치기 왕 김일 선수가 돈이 없다니, 믿기지 않았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김 선수는 선수시절 번 돈으로 사업을 하다 크게 실패했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도망치듯 떠났지만 형편은 더욱 안 좋아졌고 말년에 들어서는 김 선수 홀로 가난한 투병생활을 하는 듯 했다.

소식을 접한 나는 일본에 가기로 결심했다. 어렵사리 김일 선수의 편도 비행기 삯을 구했다. 나는 김 선수가 있는 후쿠오카의 한 병원에 도착했다. 내가 마주한 김일 선수의 모습은 생각 이상으로 충격적이었다. 김 선수가 지내고 있던 병원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복지병원으로, 시설도 분위기도 열악했다. 10명이 함께 쓰는 병실이었지만 그는 한 눈에 띄었다. 김 선수는 185cm 거구의 몸으로 침대에 구겨진 듯 누워있었다. 김 선수는 당시 64세였다.

TV에서 봤던 얼굴보다 노쇠한 얼굴이었다. 김 선수는 좁은 병상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했다. 그가 장삼을 수한 나를 보자마자 한 행동이었다. 내가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몹시 반가워하는 느낌이 들었다. 김 선수는 신심 깊은 불자 어머니 손에 자라 불교를 좋아했다.

비행기표 값만 주고 떠나기는 아쉬웠다. 나는 휠체어에 탄 김 선수와 좀 더 이야기를 나눴다. 그에게 귀국할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 김 선수는 한국에 돌아가면 거처도 없고 부채도 많아서 도망자 신세라고 털어놨다.

프로레슬링계를 누비던 전성기 때 김 선수의 여자 문제는 심각했다. 본처 그리고 자식들과 사이가 좋을 리 없었다. 김 선수의 자녀들은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았다. 부인과는 사별했다. 고국에 집도, 의지할 가족들도 없는 그였다.

말년에는 사업 실패와 투병 생활이 그의 전부였다. 현역 시절 몸을 무리하게 쓴 후유증이 김 선수를 고통 속으로 몰았다. 박치기 후유증과 노환, 고혈압, 경추변형, 만성두통, 당뇨병 등에 시달리던 김 선수는 일본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으며 병원을 전전했다.



김일 선수의 고향인 전남 고흥에 세워진 진돗개 동상.

국민영웅 '박치기 왕' 뒤안길로
말년 일본서 가난한 투병생활
김 선수 귀국 돕기 위해 일본행
"고향에 진돗개동상 세워주세요"
소박한 마지막 소원이 새 삶으로

설상가상 김 선수를 후원하던 이들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바람에 연락이 끊어지고 있다고 했다. 큰 덩치에 마른 몸, 휠체어에 얹힌 김일 선수. 내 눈에 김 선수는 작고 낡은 병실에서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애처로웠다.

김 선수는 "예전에는 날마다 고기를 30인분씩 먹었다"면서 "환자식은 먹어도 늘 배고프다"고 했다. 나는 측은지심에 김 선수를 내 숙소로 데려갔다. 호텔 방에서 그가 먹고 싶다는 음식을 마음껏 먹게 했다.

김 선수의 삶은 '인생무상' 그 자체였다. 나는 '한 사람의 노년이 이토록 비참해질 수 있는 것인가' 란 생각에 잠겼다. 온 국민의 영웅이었던 한 사람이 이 지경으로 비참하게 살 줄 누가 알았을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슬픈 일이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에게 말을 건넸다.

"선생님이 이루고 싶은 단 한 가지 일이 뭡니까.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차, 싶었다. 사실 나는 김 선수를 위해 빌려온 돈도 갚기 버거운 상황이었다. 내 형편 생각도 하지 않고 분수에 맞지 않는 약속을 내뱉고 만 것이다. 혹시라도 그가 한국에 집 한 채를 사달라고 한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김 선수가 입을 열었다. 대답을 기다리는 내 속은 조마조마했다.

"고향에 진돗개 동상을 세우고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황당한 대답이었다. 나는 김 선수에게 진돗개 동상이 진짜 소원이 맞는지 재차 물었다. 김 선수는 놀란 나에게 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 때는 미처 이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쳐다보고 있자니 자꾸만 진돗개 생각이 납니다."

김 선수의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의 작은 섬이다. 초등학교 3학년, 김 선수는 진돗개 한 마리를 애지중지 길렀다. 진돗개는 유독 김 선수를 잘 따랐다.

2차 세계대전 말기, 일본 순사가 섬마을에 개를 잡으러 왔다. 당시 일제는 군복에 개털을 넣기 위해 조선 전국에 개 공출 명령을 내렸다. 김 선수의 진돗개 역시 이를 피할 수는 없었다. 어린 김 선수는 반항조차 못하고 진돗개를 일본군에게 뺏겼다.

그런데 이틀 뒤, 잡혀갔던 진돗개가 쇠사슬을 끊고 탈출했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집까지 찾아온 영특한 진돗개를 얼싸안고 김 선수는 기뻐서 울었다. 하지만 개마다 번호를 매겨 곧 일본 순사가 진돗개를 잡으러 왔다. 다시 잡혀가는 진돗개가 자꾸만 뒤를 보며 우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는 것이었다.

진돗개 동상 수백 개를 세울 수 있었던 전성기 시절에는 그 생각을 못했다고 했다.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진돗개의 마지막 모습이 잊히지 않는다며, 김 선수는 고향에 동상을 세워달라고 부탁했다.

김일 선수의 마지막 소원이 진돗개를 기리는 동상이라니. 말 못할 감정이 확 올라왔다. 나는 어떻게든 그 소원을 들어주겠노라 김 선수와 약속했다. 그리고 그 일이 김 선수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계속〉

정리=김지원 기자



인도 · 네팔
8대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I 2019년 3월 8일 출발
225 만원

창립30주년특별기획
실크로드·돈황 10일
출발일 I 2019년 4월~10월 (매월출발)
239 만원~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푼힐 트레킹 9일
출발일 I 2019년 3월~4월 중 출발
259 만원~

· 포함사항 - [노옵션] 왕복항공료(유루세, 공항세 포함), 식비, 숙박비, 여행자보험, 관광지 입장료, 팁경비 포함
· 불포함사항 - 개인적 성격의 지출, 짐 포터·룸메이드 팁
· 10명 이상 모집시 출발 (모집인원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02-720-9600
마음여행 Since.1989 실크로드여행사
상세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umtour.com